

## 1. 36개월 까지 무이자 할부판매

2~3천만원 이상 CAD SYSTEM을 구입하고 싶어도 자금부담으로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희소식

## 2. 1000만원대 이하의

ARRIS Turn-Key System AutoCAD Turn-Key System

## 3. 우일 Detail Libray지원 (AutoCAD, ARRIS &)

## ●대상품목

- -ARRIS Turn-Key System
- -AutoCAD Turn-Key System
- -기타 주변기기 일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담요청서를 COPY한후 FAX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상담 요청서

빌리언시스템 CAD담당자앞

회사명

부서명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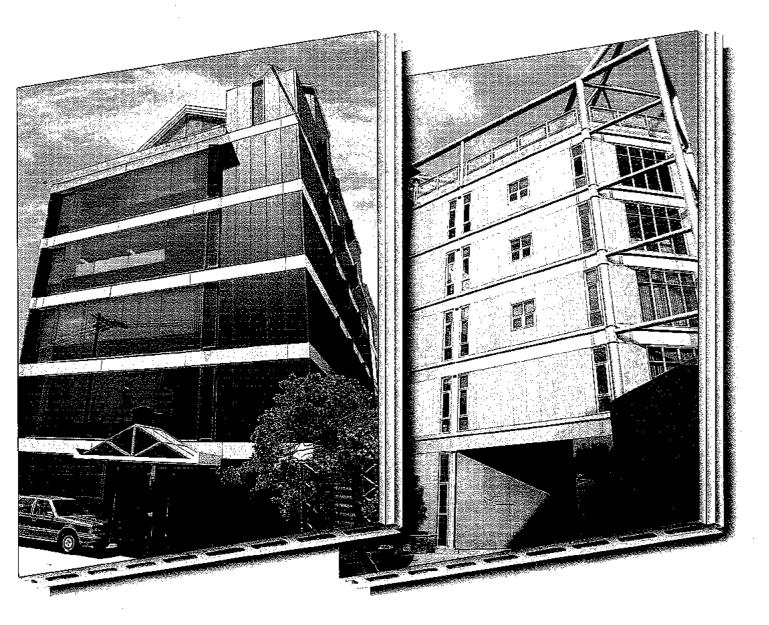
전화

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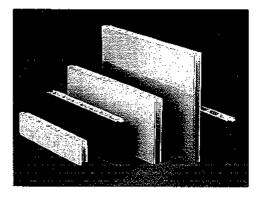
활용업무 (구체적으로)

BEE 용 서통 AI사업부

발매 (주) 빌리언시스템 Tel:514-0386 Fax:545-0296



#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 입니다



배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랑성 ···· M²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패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처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넲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복수영업부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이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c 국립극장
- s 쉐라톤워커힘
- e 루데호텔
- e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문화예술진홍원(문예회관)

유관순기념관

o충현교회본당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o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3계몽센타 예술극상
- ◎육군박물관
- 여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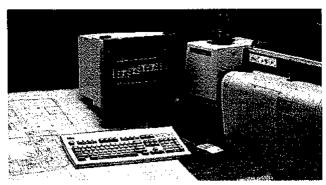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TEL. (0341)987-4184, (02)632-0216 FAX. (02) 392-2751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 209-1 松麻里 山 209-1

##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전문회사로 출발한 (주)건캐드는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전문 컨설탄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친철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 ●아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 던데…

만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 ●CAO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켜 드립니다.

##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활용기술과 CAD데이타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 활용을 추구합니다.



# ARRIS가 실현합니다.





## 國작업 시간 단축

등산지구 아파트(1960세대,780세대,980세대) 설계작업시 수작업으로 3개월 걸려던 설계작업을 불과 20일 만에 끝냄.

## ∭다양한 3rd PARTY 기능 상세도처리

일반상세, 실내마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실가구상세, 외부시설상세등 총450개

## 한글 단/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메우기 기능, 공간 채우기 기능등

## 구조일람표

칠근(보, 슬라브,기둥)과 철골접합상세능

# 해인슈퍼하우징⊙인공 지능3S를 채택!(Simple, Speed, Smart)

- 해인 슈퍼히우 장의 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민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구현
  사용자의 단순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중심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기능 창호도 자동작도기능 벽체 마감자동 작도기능 벽체 해칭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계단 작도 기능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기능 MULTI- WINDOW 기능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완성한 한글(약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약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A SECULO SECULO

# 쾌속입출고

##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철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 신속한 입출고

항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 🚟 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진용의 Computer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저진동** 독수감속기의사용 및 <del>특수</del>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의 장착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A/S는 인제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위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대형제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이중탑재형 : 꽈레트 하나에 두대 주차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횡식, 종식)

靈지하 다충 순환방식 : 다충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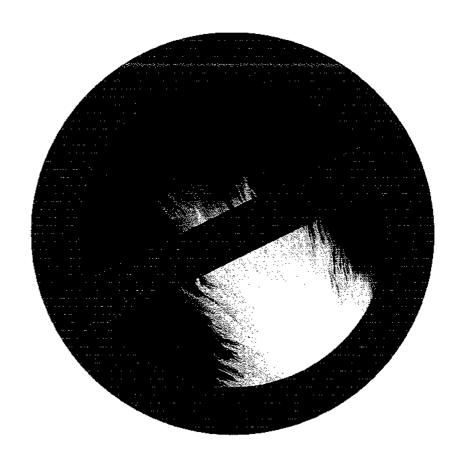












화/M/S/T/O/P

# GLASS WOOL PANEL

## 인슈그라스울파넽—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파넬입니다./

##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언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문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율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 인슈그라스울파넬의 3대 우수성

## 1. 우수한 불연성

인슈그라스율파네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면재로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 하므로서 회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파넬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치로폴	<b>■■■■</b> 85°C		
P.U.R	110°C		
P. J. R	180°C		
페놀폼	200°C		
그라스울	350°C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 2.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무단열재인 유리 섭유의 결을 수하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성유의 결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장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건고하고 균일한 두메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의 단면구성)

##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제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얼재명	열 전 도 물		
그라스물	0.029		
스치로폴	0, 0285		
암 면	0.053		
발포 CONC.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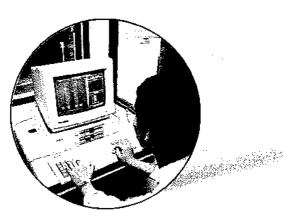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 주식회사 언합인슈 💆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립리 39 - 2 TEL: (02)745-0687, (0336) 34-8880 FAX: (0336) 32-4243 석을사무소: 서울자 강남구 역상동 773-6 연합인수별당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자타워



● 한국일보시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u>13평의 땅에 50대</u>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판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 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YOP-A연립형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 서울 · 올림픽대교

##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임으로 설치원가 절감

## 유원 컴퓨터 주차티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이상, 1분내 입출고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다양성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날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타 : 3계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I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14기 200대



상담전화: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귀사께선 어떤 건축자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품질보중 본성들은 품질시합감시전문 기관안당검시소에서보중함.

한국화학시청검사소 TEL. 634-0034

设置保建压的

是基利化集制有担理压



여기 강화유리도아 H후램이 선택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강화유리 도아 상 · 하부에 후램에 틈이 없어 방풍ㆍ 방음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예)



소음공해 및

방전













착하여 외부와 완전 차단하며

고장난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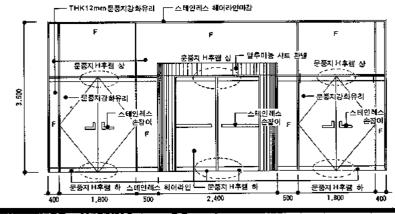
냉방효과 및 열손실을 50% 절감 하고 조립식으로 고장난 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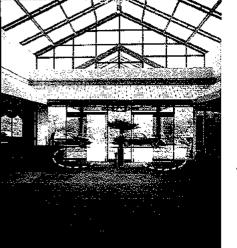


## 풍설치

- 냉·온방·눌차단

수명반영구적





"문풍지**H**후램 은 열손실 100% 보장"

B제품은 여기에서 열손실이 많이 되는 부분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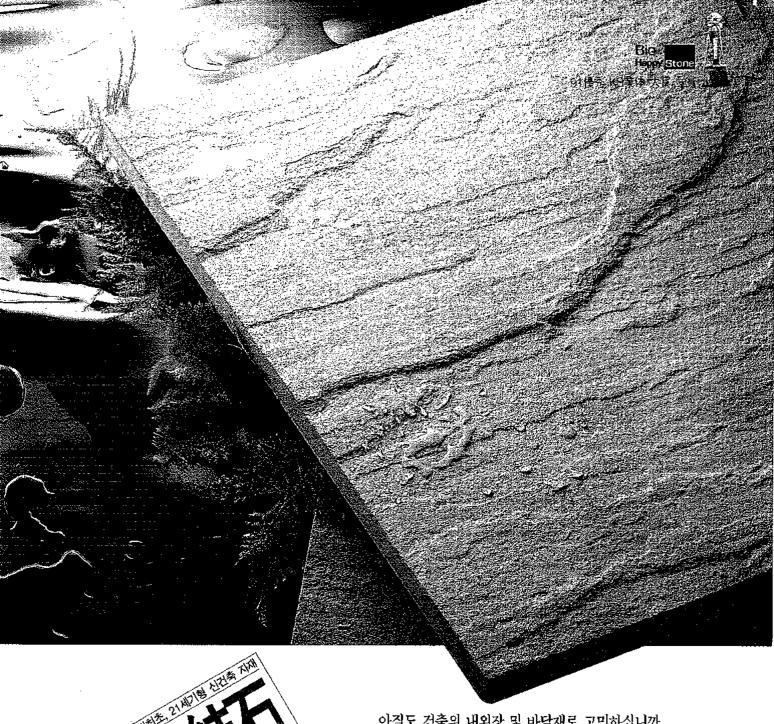
부산시 북구 삼락동 342-16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5-3 TEL: (051) 302-1:100 ~2 FAX: (051) 301-4 ·5 7 5

TEL: (02) 576-0 0 8 3

(02) 577-0 0

FAX: (02) 574-9







삼확확성은 풍요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포항제철계열 국내최고의 요업전문회사 입니다.



三華IL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 BIO-HAPPY STONE의 3가지 자부심

##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워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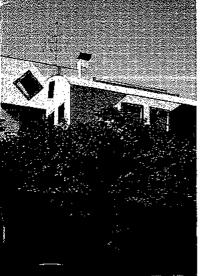
### 2. 뛰어난 가공성

1,200°C이상에서 소결(燒結)한 불연제품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 3. 대형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25', 600×600×m/m×25'로 공공건물, 오파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본사・공장: 경상북도 포함시 청림동 1 - 143 건재사업부 TEL.(0562)91 - 2051~3, 90 - 0114 FAX.91 - 0033 / 서울직판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천동 89 - 22(국제조명빌딩 2층)
TEL.(02)516 - 7772~4 FAX.516 - 7775 / 전국각대리점 / 서울지역, 옥산실업: TEL.(02)540 - 1637~9 FAX.540 - 1640 / 무산지역, 홍선불카: TEL.(051)515 - 4730~1 FAX.56 - 5923 / 대구지역, 삼호특수: TEL.(053)755 - 9994, 742 - 1576 FAX.751 - 5884 / 광주지역, 성산금속(주): TEL.(062)524 - 7151~3 FAX.524 - 7154 / 울산지역, 삼화상사: TEL.(0522)43 - 7068~9 FAX. 43 - 7069 / 포항지역, 동양상사: TEL.(062)81 - 2220, 61 - 7482



## 차례/1992년 11월호 통권 제283호

	녹색갤러리 /尹柱憲	14
r amount to passed	통일전망대 /金永雄	18
	서대신동 주택(전시설) /金瑛燮	22
	준영빌딩 /兪元在	25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사 /全相佰	28
	동우빌딩 /崔東奎	30
<u> </u>	K-마을회관 계획안 /朴贊政	32
일하며 생각하며	환상에의 초대 /朴英健	34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대행제도 개선방안 /姜錫俊	36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 🎚 ) /張順鏞	. 44
71智2四	패러 <b>다</b> 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4) /吉成鎬	52
<b>新母Z</b> 套	21세기 건축을 향하여-에밀리오 암바쓰 /이용재譯	62
<u> </u>	대한주택공사사옥	70
	건축법 질의·회신	86
X BI	1992년 9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2
		94



표지시진 : 통일전방대 (설계/김영웅)

發行人:吳雲東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員長:李義求

委員:徐千植,李瓚榮,金文圭,崔英集,

宋洙九

編 輯:出版事業部

發 行 處:大韓建築士協會

住 所: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170

電 話:代表(02)581-5711,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 /72(054-2) : 0612(519)

印刷人;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Eui-Koo

Member: Suh, Chun-Sik/Rh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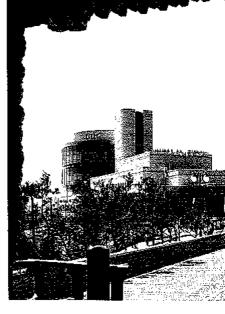
**U. D. C.:** 69172(054-2): 0612(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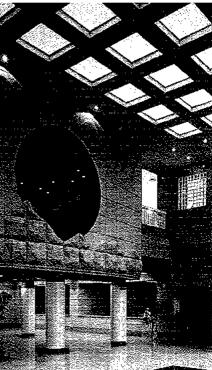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 CONTENTS VOL. 283. NOVEMBER 1992

Meridan from the complete some transport of the complete south of	CUNIENIS VOL. 283. NOVEMBER 19	92			
NORKS	Gallery Noksaek /Yun, Ju – Hun				
	Observation Tower for Unification / Kim, Young - Woong	18			
	$J$ 's Residence-Gallery / Kim, Young $\cdot$ Sub	22			
	Joonyoung Building / Yoo, Won - Jai	25			
	Yangcheon Station, the No. 2 Subway Line   Jeon, Sang Back	28			
	Dongwoo Building / Choi, Dong - Kyu	30			
sketches	K-Village an Assembly Hall Project   Park, Chan - Jung	32			
ESSAY	Invitation to the Illusion / Park, Young - Geon	34			
FEATURE	by Kang, Suk - Joon	36			
REPORT	A Methodological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 Jang, Soon - Yong	44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Kil, Soung - Ho	52			
Over <b>sea</b> s					
archit <b>ec</b> ture	Go Toward the 21C Architecture—Emilio Ambase / Lee, Yong - Jae	62			
COMPETITION	Korea National Housing Co. Building	70			
LANS &					
ORDINANCE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86			
STATISTICS		92			

AR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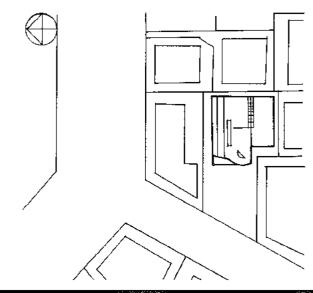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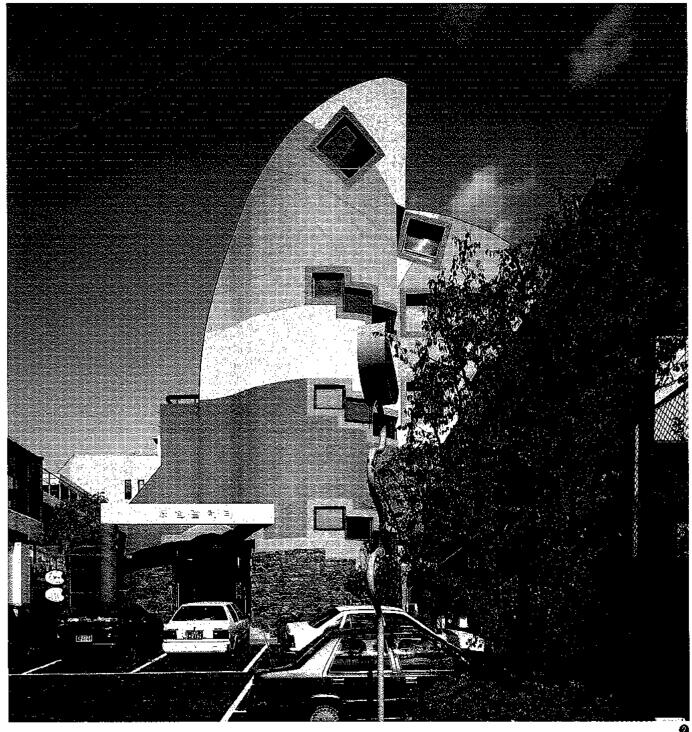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견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서축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 /서대문구연최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문화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강동분회 / 강동구성대통317·4, 484·6840·강서문화 / 강서구화목동1105·05, 604·7168·성동분회 / 성돗구구와동252·16, 446·5244·돗대문분회 / 돗대문구선 동101-7, 923-6313·종모문화 /종모구수성동46-18, 735-0905·마모분회 /마포구성산동275-1, 336-5057·송파분회 /송파구송파50-12, 423-9158·중구분회 /송무르2가서9-11, 279-1415·용산분회 /용산 구원효료1가129·22, 712·7647·서초관회 /서초구서초1号1623·1, 586-7707·은평분회 /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동작분회 /동작구사냥동206·6, 815-3026·강남분회 /강남구논천동242·30, 511· 8515·노원분회 /노원구상제1동1049-79, 992-8076·양천분회 /양천구선정동1027-9, 646-7172·중광분회 /중랑구면목동166·46, 923-6123·성북분회 /성부구삼선5가410, 923-4401·구로분회 /구로구구 보통86~4, 853~4084 를 부산직할시건육사회 / 부산시 진구 범천통 847~18, 28(051)634~4973~9 를 대구적할시건축사회 / 대구적할시수성구범여동3.71~8, (053)753~8980~5 를 인천적할시건축사회 / 인천적할시남동구간석1동558~ L, (032) 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법당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화 / 광주직할시북구중홍통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합시건축사화 / 대전직합시중구대홍동487·1, (042)255·9350~4 ■ 경기 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24-5, (8331)47-6129~30 · 격찰분회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 /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 /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 1554 · 성남분회 /성남시수정구태평등3407, (0342)755 5445 · 외정부분회 /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2 · 1083 · 송탄분회 /송탄시서정통343 - 22, (0333)4 - 6153 · 고양분화 /고양군원방음주교 38북력16롲트, (0344)63-8902 · 구리본회 /구리시수백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 /이천문이천융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 /광명시결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 /안산시고산동 536·1, (0345)80·9130 ■감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사옥천동39·5, (0361)54·2442·원주분화 /원주시중앙봉60·54, (0371)42·4287·강룡본회 /강룡시청내동6·14, (0391)2·2262·속초분회 /속초시봉명동466· 63, (0392)33-5081 · 삼최분회 /삼최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회 /영월군영월읍영총1리960-12, (0372)43-2695 🛢 충천북도건축사회/ 충천북도참주시복문로3가87-3, (0431)55-2752, 53-7342 · 충주분회 /충주시역전통673·1. (0441)847·3082·계천분회 /계천시의람동8·8. (0443)43·6253·옥천분회 /용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출창남도건축사회 / 대전직찰시중구대홍동452·2. (042)256·4088·천안분회 /천안 시문화동160·1, (0417)551·4551·홍성문회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무여분회 /무여군무여읍동남리703·1, (0463)2·2217·대천분회 /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전라북도건 축사회/ 전리목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빌딩 508), (0652)87·6007~8·이리분회 /이리시남중봉1가77·22. (0653)52·3304 · 군산분회 /군산시신청홍35·4, (0654)445-4060 · 남원분회 /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통783·23(추선회관)(062)364·7567, 33·9944·목포분회 /목포시대안동], (0631)43·3348·순천분회 /순천시강천동51·11(0661)3·2457·여수분회 /여수시관문동441 번차. (0662)64-7023 ■검상북도건축시회/ 대구직합시중구동인동17285번차. (053)425-4904·포항분회 /포함시축도동43-8. (0562)44·6029. 46·1664·경주분회 /경주시용천동771-4. (0561)3-3638·구미분회 /구 비시원평동964·264. (0546)52·6351 52·7547·안동분회 / 안동사서부동157·4. (0571)54·5703·김천분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영주분회 /영주시휴천2동642·52. (0572)33·7504·집촌분회 / 잠촌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만산시중앙동3가3·47, (0551)46·4530∼1 · 울산분회 / 울산시남구신청동585-6. (0522)74·8836·전주분회 / 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충무분회 /충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검해분회 /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밀양분회 /밀양시대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문회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 / 양산분화 / 양산분 1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문회 / 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 / 암산 포시통급동91-6, (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전주시2도 [총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회 /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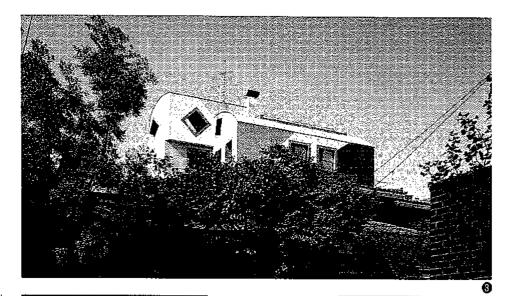
# 녹색갤러리 Gallery Noksaek

尹柱憲 / 종합건축사사무소 내외 Designed by Yun, Ju-Hun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대지면적 / 417.3㎡ 지역·지구 / 일반주거자역, 주차장정비지구 건축면적 / 191.49㎡ 연면적 / 897.69㎡ 건폐율 / 45.88% 용적율 / 151.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외장마감 / 트라이비트, 외단열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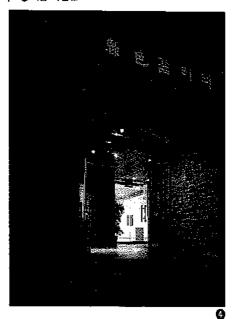
기존과 새로움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립과 조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함이 오늘날 우리의 과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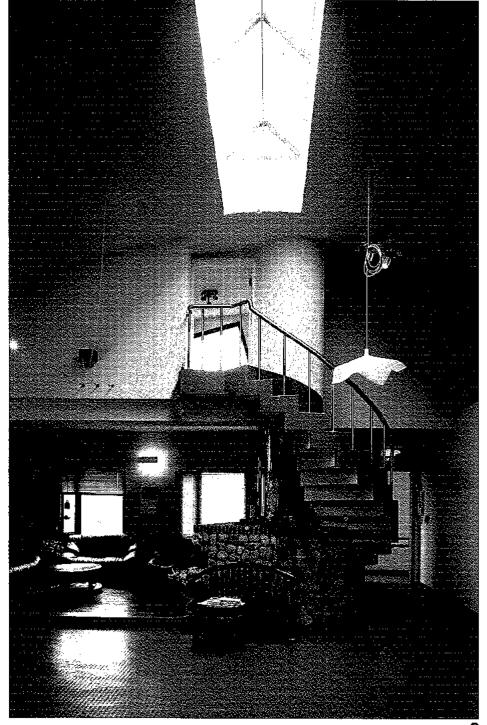
다분히 침체된 주거가능에서 점차 근린생활시설 들로 전이되어가는 주변상황에서, 본 프로젝트는 바로 그 대립과 조화의 가능성이 모색된 경우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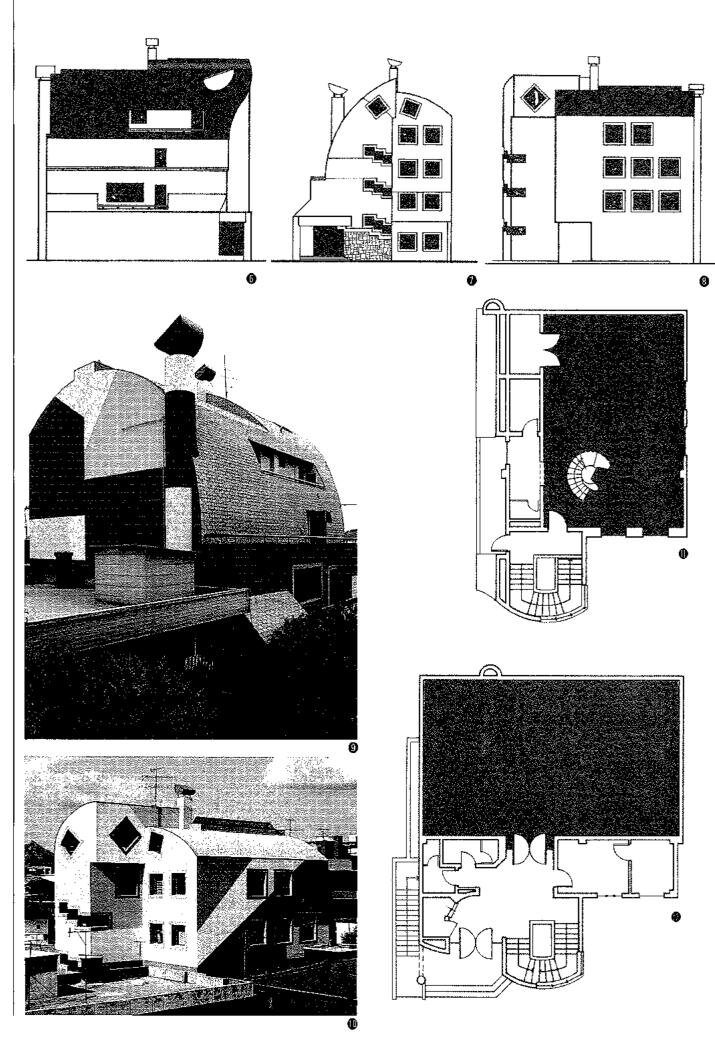
녹색갤러리는 기존의 주거군에 대한 소극적 순용의 자세를 지양하고 색다른 모티브, 즉 강한 볼륨과 과감한 색조를 대입하여, 변화되어가는 환경에 활기와 밝음을 부여하는 대립의 절서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며, 한편 부박한 질감과 어두운 채색의 기단부를 깔고, 상승할수록 밝음과 가벼움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주위에 군립하지 않는 조화를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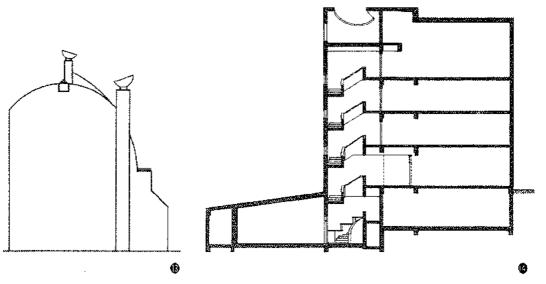
전환되어가는 장소적 성격과 역설적 이미지의 조형 그리고 유희적인 색조가 어울려, 시각적 아 름다움이기 보다는 다의로 음미될 수 있는 짤막 한 표의 문자로 남고싶다.

- 배치도
- 🛭 정면도 전경
- 🚯 서측면 전경
- ♪ 주출입구 상세
- 🗗 4층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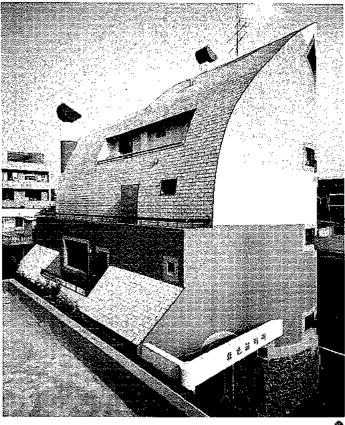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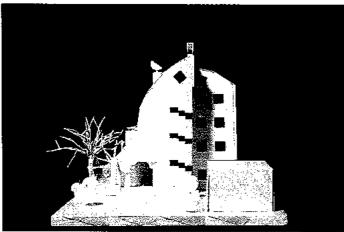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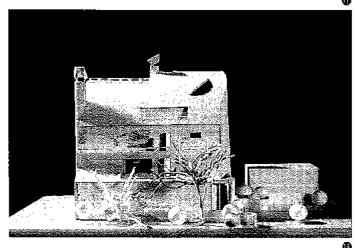


- ⑤ 좌촉면도
   ⑦ 정면도
   ③ 우촉면도
   ④ 배면측 외벽상세
   ⑥ 점점 및 조금 의료
- 🛈 정면 및 촉면 외부상세
- 기준층 평면도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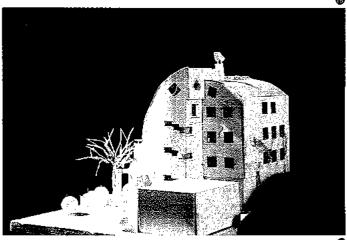
- ② 1층 평면도
   ❸ 배면도
   ⑤ 단면도
   ⑤ 촉면상세
   ⑤ 4층 작업실 전경
   ⑥ 모형 Ⅱ
   ⑥ 모형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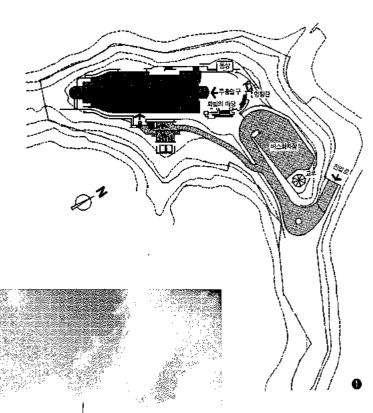




## 통일전망대

Observation Tower for Unification

金永雄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토우 Designed by Kim, Young—Woong



## ■ 대지위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

선88번지 지역 · 지구 / 개발촉진지역, 시설이용지구

대지면적 / 21,550㎡

건축면적 / 2,667.2m²

연면적 / 8,616㎡

건폐율/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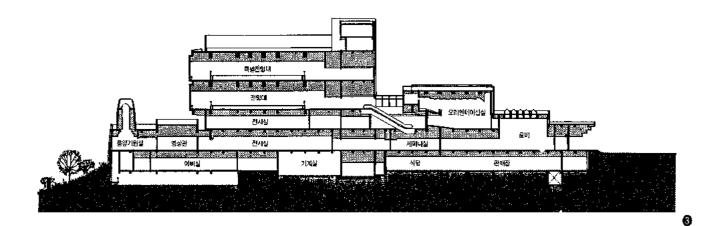
용적률 / 27%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내장재 / 화강석(버너구이 및 물갈기)

주요외장재 / 화강석 (혹두기, 도두락, 버너구이 마감) +24mm 칼라복총유리

十알루미늄 커튼윌



갈대발과 모래톱 등의 개발되지 않은 옛 한강의 정취를 느끼며, 자유로를 따라가다 한강쪽으로 툭 튀어나온 작은 오두산정에 통일전망대가 자라 잡고 있다.

당초 계획의 목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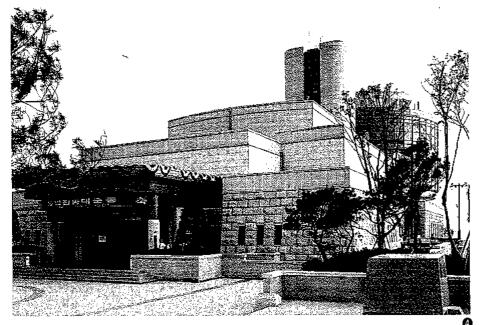
- · 통일의지와 염원의 상징화
- 분단현실의 체험을 통한 국민교육의 장
- · 합리적이며 기능적인 공간구성과 상호유기적 동선체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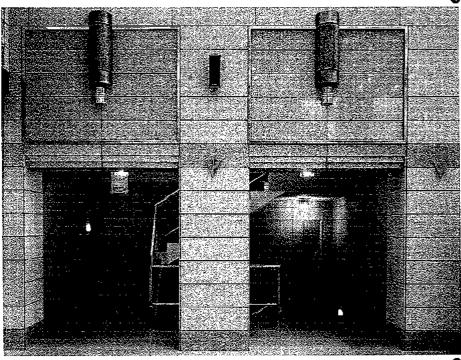
이라는 목표 아래 설계를 진행하였지만 『통일의 지와 염원의 형상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 적인 형태로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 또 한 참고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몇가지 계획의 주안점을 설정하 였고, 그 방향에 맞추어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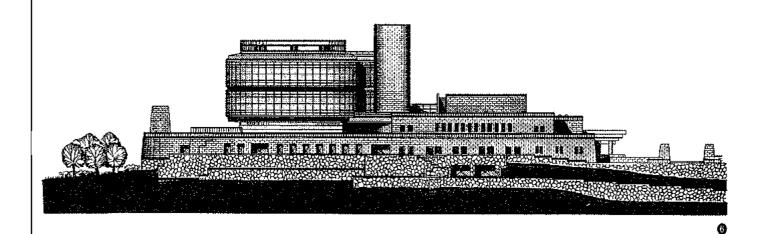
## 계획의 주안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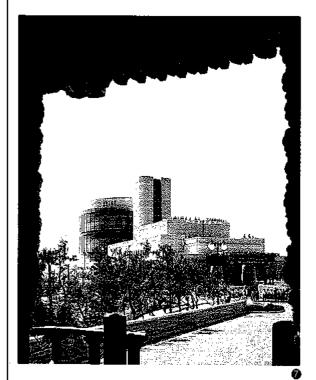
- 통일의지와 염원의 상징적 형상화
- 동선의 적극적 구분 및 기능적 연결
  - -- 지형을 이용한 동선의 입체적 분리
- · 전통적 조형수법 및 조경방식 활용
  - 조형상 기단부 개념도입, 전통적 재료의사용 및 축조방식
  - -노단식 정원의 설정
  - -위계·반복에 의한 공간구성
  - -선과 면의 연속, 중첩 및 반복
- · 기존 지형의 적극적 활용
- · 관람의 단계별 주제 구성에 의한 관람 내용의 명확성 추구 · 계획이 미래지향성 추구에 두었다. 진축에 있어 어떤 명제에 대한 완성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 만큼 최선을 다하여 명제에 근접한 대안을 제시 하느냐 하는것이 아닐까 한다.

준공이 되어 이제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설계의도를 이해하면서 관람했을때 관람자의 느낌은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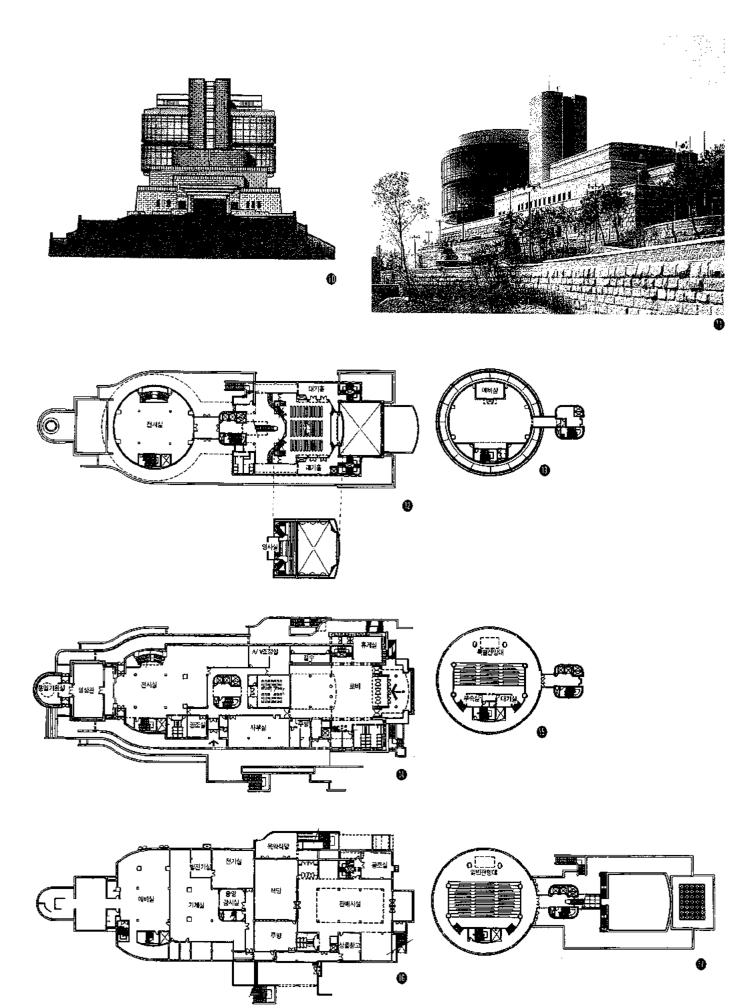








- 배치도
- 🛭 동축전경
- 단면도
- ◆ 주출입구측상세
- 6 1층 로비내부
- 6 남동축면도
- 고투에서 본 전경
- 🚯 (층 로비내부
- ⑤ 통일기원실 내부
- **(D**) 북동축면도
- 진입로에서 본 동축전경
- 2층 평면도
- ♣ 5층 평면도
- 🗗 1층 평면도
- 🚱 4층 평면도
- ♣ 지하 (총 평면도♣ 3층 평면도



## 서대신동 주택(전시시설)

J's Residence—Gallery

대지위치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53, 353 = 2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004.00㎡

건축면적 / 28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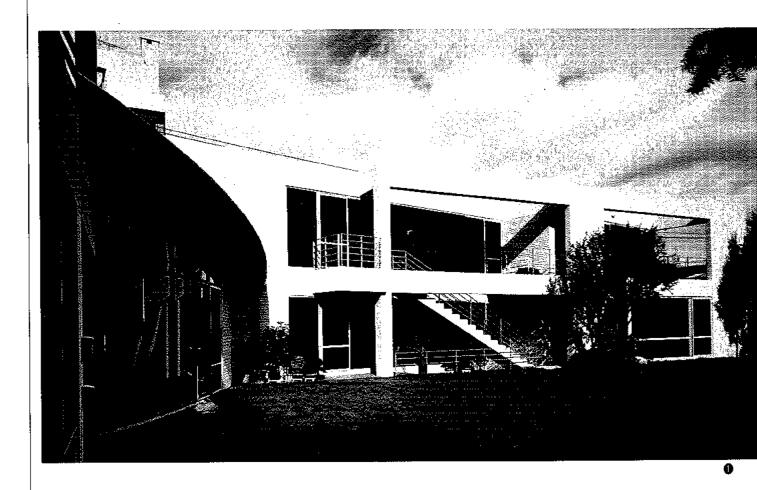
건폐율 / 2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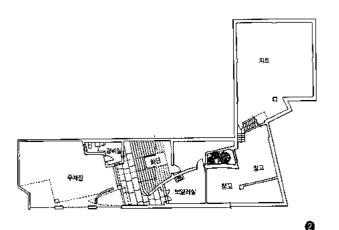
용적률 / 4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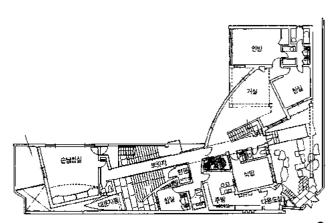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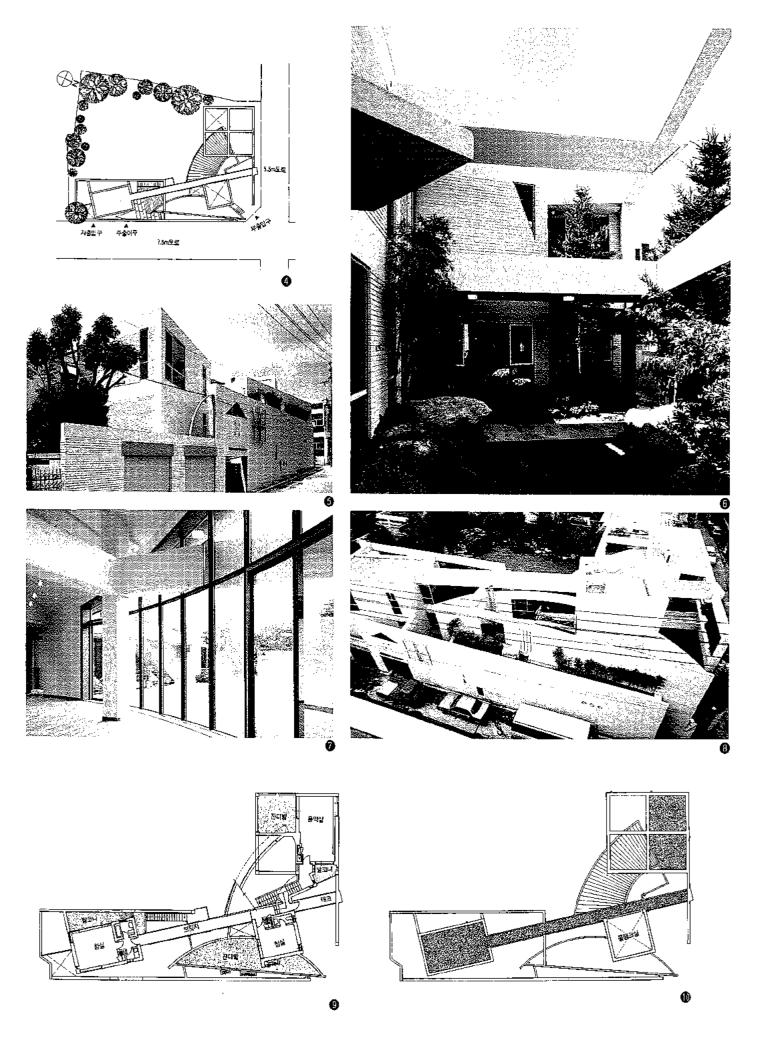
주요외장재 / 노출콘크라트, 고압벽돌위 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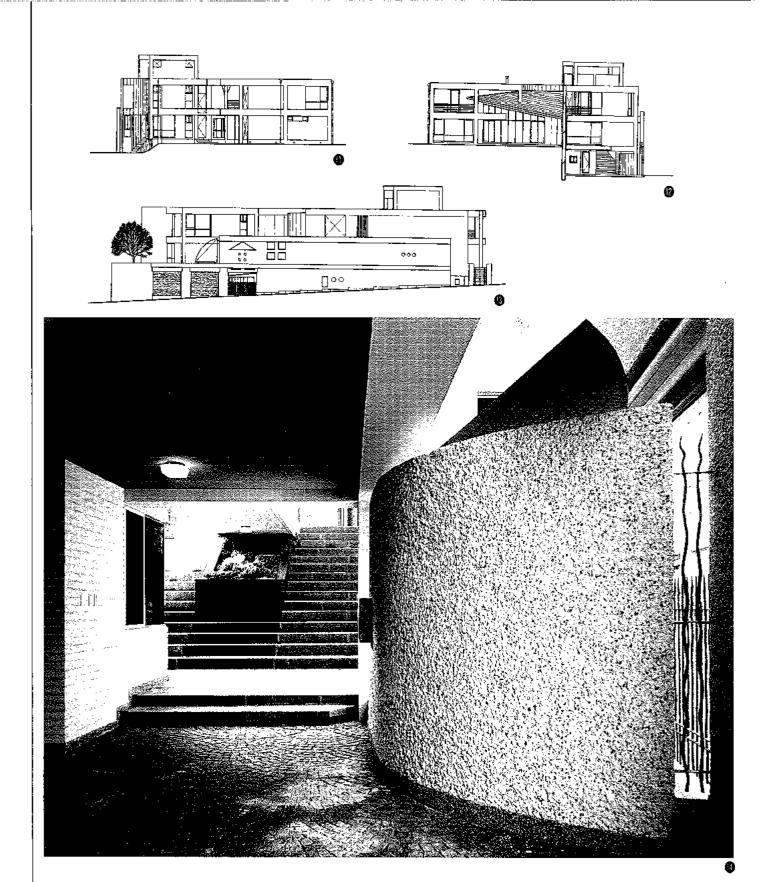
金瑛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 — 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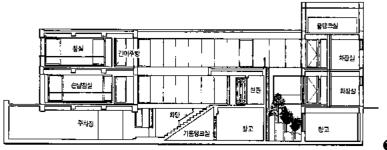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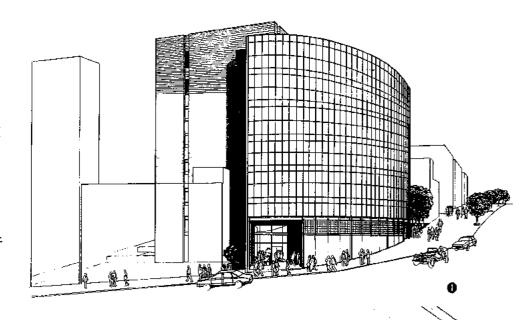


- ❶ 서축배면도
- 🛭 지하층 평면도
- 🚯 1층 평면도
- ❹ 배치도
- ⑤ 진입로에서 본 동측전경
- 를 부출입구 부분의 정원
- 🕖 1층 거실에서 본 외부
- 🚯 내려다본 주택 전경
- 😉 2층 평면도
- 🕩 지붕층 평면도
- 수축면도
- ② 일단면도
- **(B)** 정면도
- 동촉대문 안쪽에서 본 천경● 주단면도



Joonyoung Building

兪元在 / 다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Yoo, Won-J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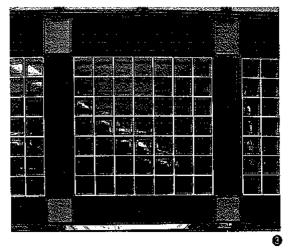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03-8외 1필지

대지면적 / 1,025,20㎡ 건축면적 / 508.74㎡ 연면적 / 4,884.80㎡ 건폐율 / 49,62% 용적뿔 / 299.43%

규모 / 지하 3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3 · 4종 의부마감 / 18mm 컬러복충유리,파스델타일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주차대수 / 50대 (옥내18대, 옥외2대, 주차티워 30대)

❶ 루시도 🛭 남축전경

- ❸ 저충부와 상충부 사이의 외벽면 상세
- 🚯 서측 전경
- ⑤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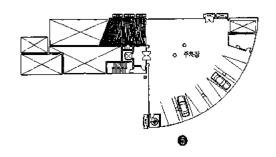
서초동 화물터미널 앞, 1/4원호 모양의 경사가 많이 진 모서리 땅에 1/4원형 평면을 가본으로 하여 코어 및 주차장 등을 대지형태에 맞쳐 늘어놓았다. 지하철 입구에 면한 6m 정도 레벨 차를 갖는 전면도로와 건물이 어떻게 자연스럽게만나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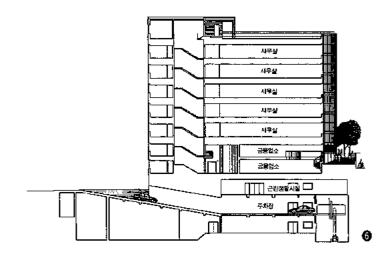
주 출입구와 옥외 주차장은 3m 고저차가 있어 지하 주차장의 진입 램프가 편리해졌다. 1~2층을 한데 묶은 금융사무실은 고저차 3m를 이용하여 2층 매자닌을 전면도로에서 직접 출입하게 하여 금융업소의 효율을 높였고, 객장의 공간감과 위·아래 연결을 위한 오프닝 (opening)을 마련하게 됐다. 고저차가 심한 대지는 설계작업 중 많은 숙제를 던져주지만 이용하기에 따라 다양한 단면, 자연스런 뚫린 공간, 기분좋은 선큰 가든 등 풍부한 공간의 질을 잉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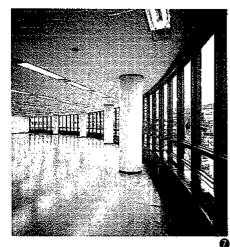
이런 궁리들로 평면 단면 웨어맞추기에 작업기 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고 그 정리된 기능 위 에 단순한 유리옷을 입혀 전면에 전개되는 우면 산의 풍광을 유입시키고자 하였다. 평범한 외관 은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지루해지지 않는, 무똑 뚝하지만 은근한 맛을 나타내려는 설계의도를 머 금고 있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Under-design is better than over-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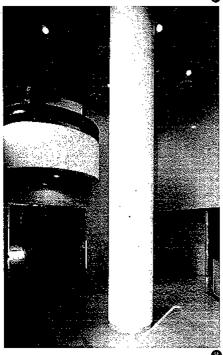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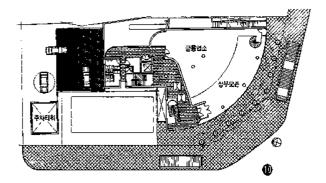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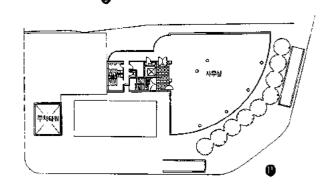






- 🚯 단면도
- 3충 사무실
   주출입구축 로비
- ① 1~2층이 오픈되어 있는 금융업소 내부
- ①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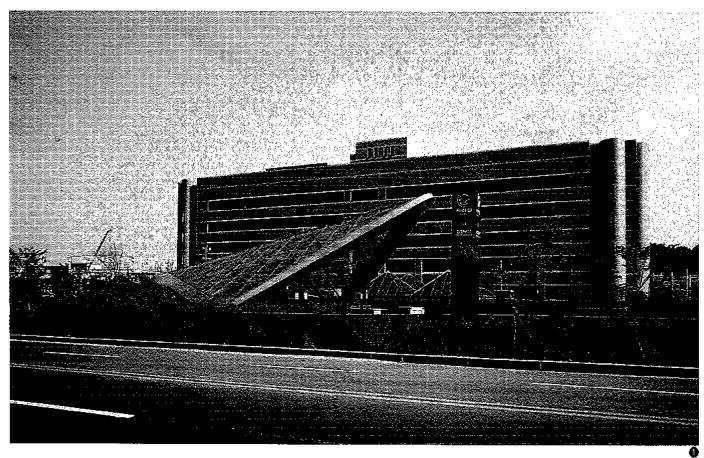


Yangcheon Station, the No. 2 Subway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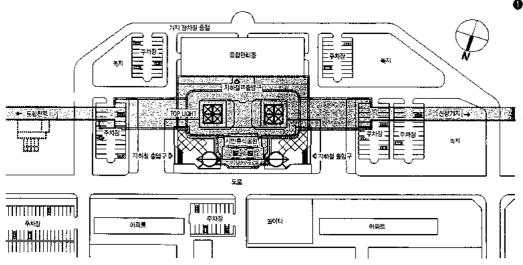
건물명 /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약 용도 / 여객 대합실 및 승강장 규모 / 지하 2개충 연면적 / 5,015m<sup>2</sup>

NORKS

**全相**佰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eon, Sang - B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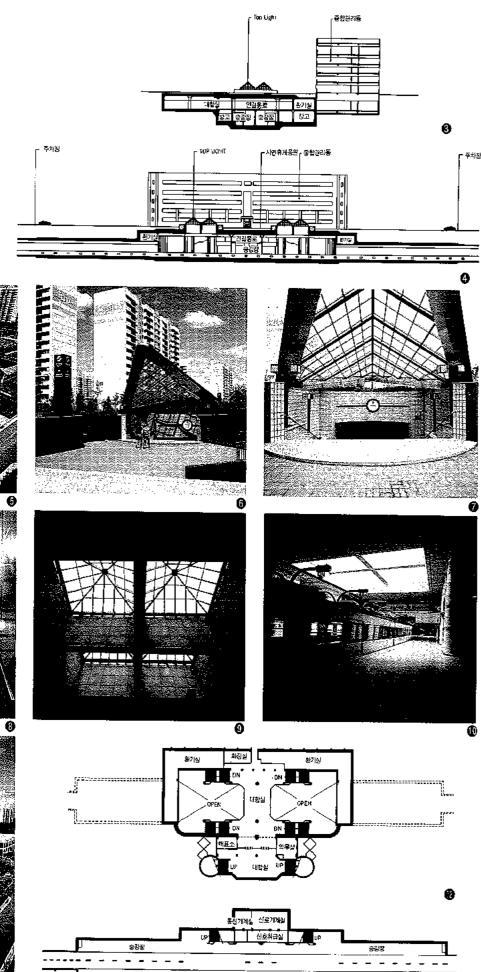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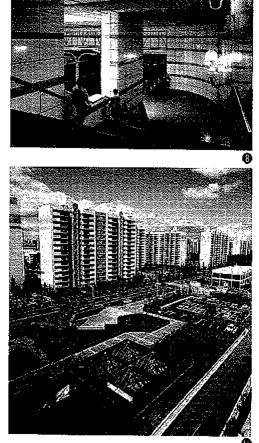
- 북측 전경
- ② 배치도
- 중단면도
- ④ 횡단면도
- 당근로 전경당측 전경
- ⑤ 지하철 정면 출입구
- 🕡 지하철 출입구 상세
- ④ 계단실
- ⑤ 승강장에서 본 톱라이트
- ① 자연광에 비친 승강장과 지하철 전동차
- 전경
- 🚱 대합실층 평면도
- 8 승강장충 평면도



원래 지하철은 자연과 격리된 인간생태의 소 외지역이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그 러므로 부지여건을 최대한 살려 지하역에 천창 을 두고, 썬큰 가든을 주위에 설치하여 지하공간 에서 태양 빛을 보고 자연풍을 만끽할 수 있는 명랑한 지하역을 마련하였다.

지상은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여객, 역무원, 그 리고 근린주민 모두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 역을 이용함에 있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랑 스런 역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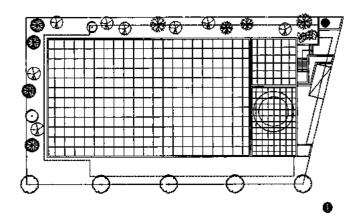




## 동우빌딩 Dongwoo Building

VORKS

崔東奎 / 종합건축사무소 서인 Designed by Choi, Dong-Kyu



2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1,154㎡

연면적 / 10,7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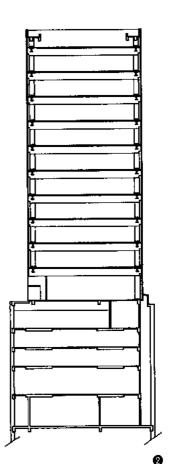
건축면적 / 6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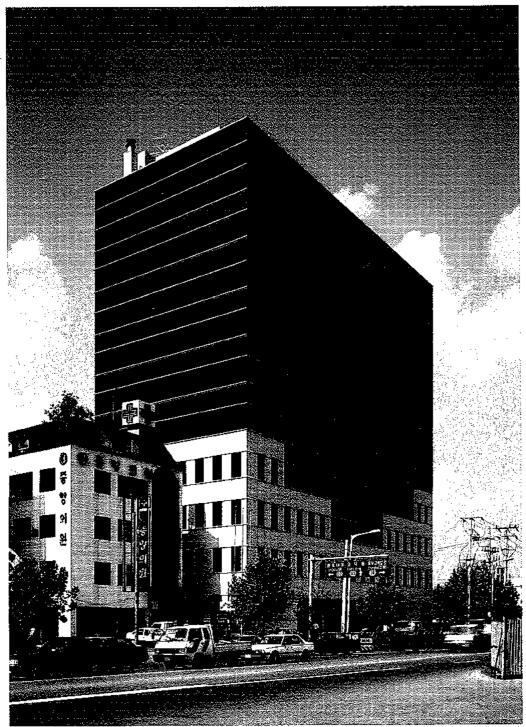
건폐율 / 5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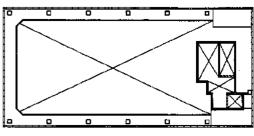
용적률 /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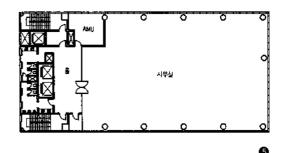
구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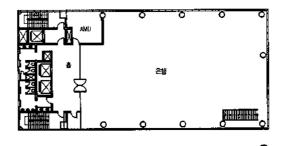
규모 / 지하 5층, 지상 10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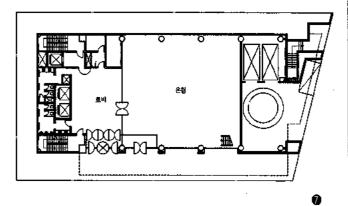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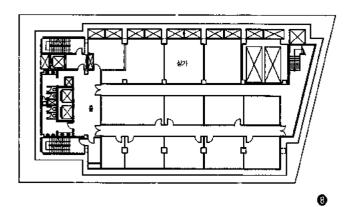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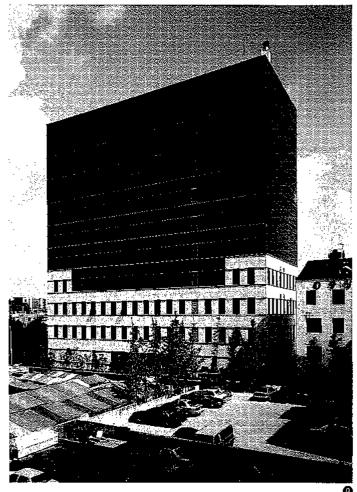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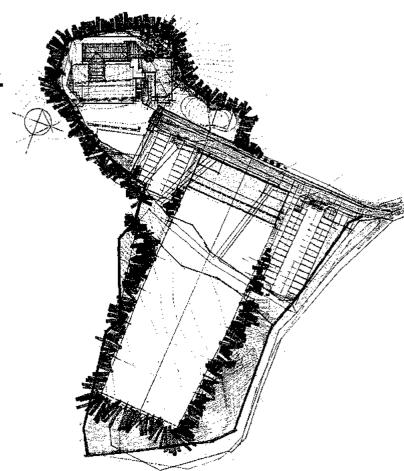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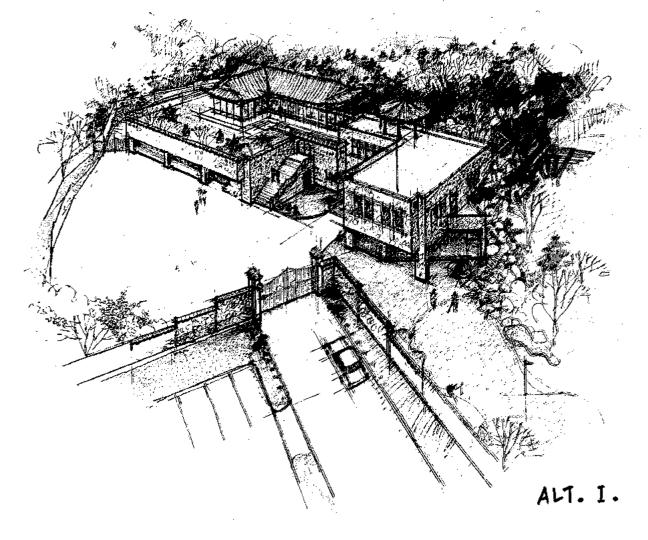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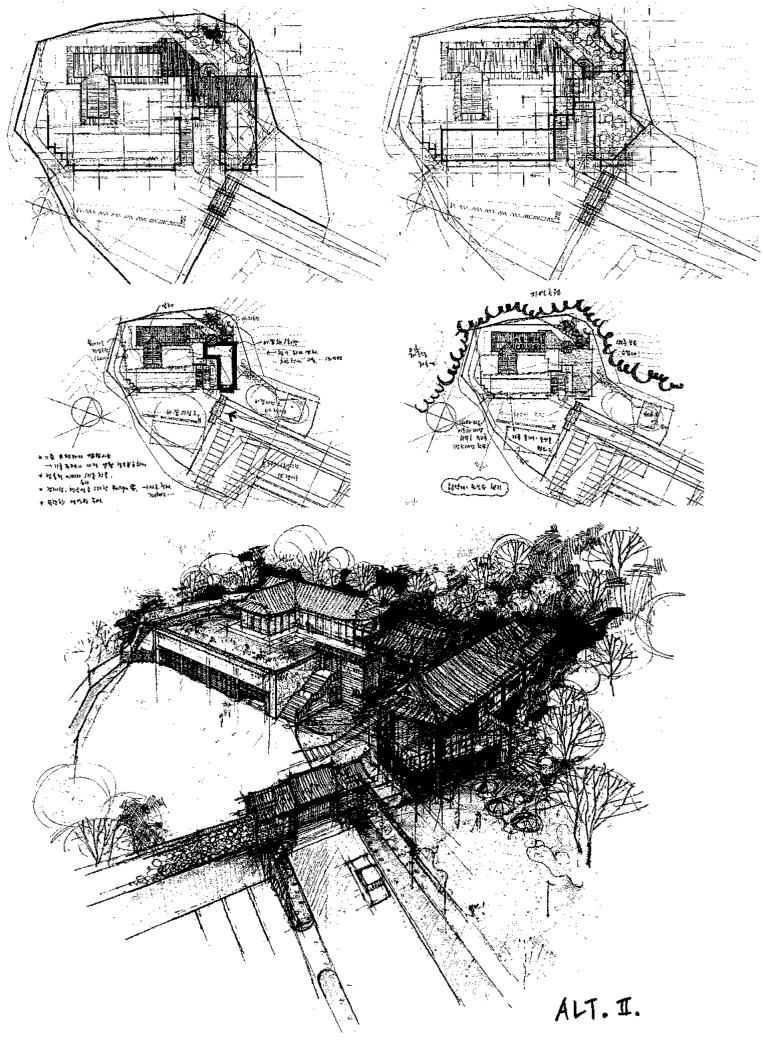
- ❶ 배치도
- ② 단면도
- ③ 도로에서 본 전경④ 옥탑층 평면도
- 기준충 평면도
- 6 2층 평면도
- 🕖 1층 평면도
- 🚯 지하층 평면도
- 🚯 후면에서 본 전경 ● 내부 흠

K - 마을회관 계획안 K-Village an Assembly Hall Project

朴贊政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Designed by Park, Chan - Jung







## 환상에의 초대

Invitation to the Illusion

朴英健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범건축 by Park, Young - Geon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서 몸이 펄펄 꿇고 연거푸 재채기가 터져나오더니 온몸이 쑤셔온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리를 펴고 누워있자니, 몸이 무거워 천길만길 가라앉는 듯 하다가도 어느때인가는 간곳없이 붕 떠오르는 듯 하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때가 때인지라 마음놓고 엄살을 부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서 어떻게든 몸을 추스러보려 애를 써보지만 마음같이 움직여 주질 않는다. 정신을 잃듯 잠속에 끌려들어 가기도 하고 경까에 들린듯 화들짝놀라 깨어나기도 한다. 그 와중에 꿈인듯 생서인듯 무슨 환상 같은 것이 보인다. 천사같이 하얀옷을 입은 여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다가 문득 깨어보면 이젠 죽는구나하는 절망감이 들기도 한다.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데 하는 생각에 만사가 덧없는 듯하여 눈가에 물기마져 비찬다. 그 아우성 그 몸부림 도대체 그 끝은 한가지인데 다듬 그 난라인가? 가을날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걸어가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과 같다. 한없이 편안한 차림으로 한걸음씩 떼어 놓은 발자국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날카로운 통증이 가슴을 때린다. 화면은 붉은색 모노크롬으로 바뀐 채 정지된 영상들이 마구 겹치며 빠르게 돌아가다가 훼이드 - 이웃, 한참동안이나 계속되는 암흑의 세계, 단절, 다시 훼이드 - 인 하면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니는 봄의 정경이다. 종달세가 높이 날고 얼음녹은 시냇물 소리가 한없이 정겨운 풍경이 배경이 된다. 무대 한쪽에서 하얀 발레복을 입은 무용수가 등장하여 느린 동작으로 원을 그리며 돌기도 하고 가끔은 발작하듯 솟구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허공을 향하여 기지개를 켜듯 두팔을 쭉 뻗어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며 기슴을 모으기도 한다. 어디서인가 봄의 향내가 스며나오더니 사방은 온통 녹색의 기운이 감도는듯 폐파민트의 감미로움이 배어온다. 나른해지는 기분과 매사가 귀찮아지는 권태감이 온몸의 기운을 빼어버린 듯 엉금엉금 기어 자리끼를 찾아 여기저기 더듬거린다. 창밖에는 대양이 빛났다. TV 미니시리즈 프로를 본다. 석찬은 색안경인 눈을 껌뻑거리며 아직 살아있는 청각과 축각을 곤두세워서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 싸움을 벌인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기우는 일방적인 게임이지만 집념을 불태우며 끈질기계 달라붙어본다. 결국은 겨서 이기고 만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이겨보았자 얻는 것이 없다. 처음부터 시작한 이유를 모르겠다. "요즈음은 선거철이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곧 선거를 할테고 우리협회도 한다. 내가 제일이요, 내가 적임자입니다. 나를 뽑아 주시면 끝내 줍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눈길만 미주쳐도 싱끗, 갑자기 너무 친절하다. 누가 되더라도 말대로만 된다면 나뿔 것은 없겠다. 누구처럼 자기 맘에 들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당장에 이만신청을 해야될가?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몫을 빼앗아 남이 가지면 남이 그만큼 잘 살게 될테나 좋다.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기라도하나? 요즈음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 봤어?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

유치하다. 나래이션기법을 도입한 연출수법은 신선한테 그만큼 내용이 따르지 모했단다. 외국작품을 번안한다는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역시 조상의 얼이 배어나질 못했다.

일찍이 누군가가 설파한 바로는, 파리는 -매춘부와 같다. 멀리서 보면 남자의 영혼을 녹여 버릴 것 같고 그녀를 두팔로 끌어안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러나 5분 후에는 공허감을 맛보고 자기 혐오에 빠진다.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렇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 속에서 그녀는 싸구려 밍크코트로 몸을 감싼 체 빨간 비닐 우산 밑에서 저녁내내 자리에 서 있었다. 생글생글 웃기까지 했다. 겉은 반지르하지만 페인트 냄새도 가시지 않은 호텔방에 세 남자가 함께 잔 일을 생각해 보라. 남자가 이제중년에 접어들면서 배가 나오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잠자리에서 코를 약간 골아 대는 것이 무슨 대수일까? 그러나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단체관광객을 인솔한 초행길의 「가이드」가 불쌍하다. 이무리 피곤해도 그 천둥치는 소리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아침마다 벌겋게 충혈된 눈을 드려다 보면 거울을 깨드리고 싶다. 관광학을 전공하고 외국어를 열심히 파댈 때는 이게 아니었다. 그래도 희망을 갖자! 갑자기 미국사람 소리가 들린다. 『쏘리』, 『쏘리』…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유학가서 눌러 앉은 것이 벌써 한 이십년은 되었다. 미안하다는 표현이 참 유연하다. 그는 그렇게 살아간다. 일요일에 결혼식이 있다. 누군데? 친구딸... 아빠 친구딸이 벌써 시집가? 열두시인지 한신지 아리송하다. 수첩에 적어 두었는데 사무실에 두고 왔으나, 그래도 늦는 것보다는 이른게 낫지. 12시 5분, 식이 벌써 시작되었다. 대부분 얼굴을 모르는 이 뿐인데 알만한 사람이 한 물은 있다. 어색하게 목례를 보낸다. 나보다 늦게 오는 양반도 있다. 어딥니까? 예! 저기, 저깁니다. 10분후에는 식이 끝난다. 사람들이 우루르 몰려 나온다. 어떻게 할까. 그 틈에서 기다리나 ? 아직 인사도 못 했는데 가족사진 찍는데, 애매하다, 식사하러 갑시다. 커기서 인사하지 뭐, 그럴까요 아니, 그냥 가겠옵니다. 약속이 있어서, 봉투보면 알겠지, 좀 적은게 아니었나? 할 수 없지 뭐. 요즈음은 선거철이다. 미국에서는 선거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곧 선거를 할테고 우리협회도 한다. 내가 제일이요, 내가 적임자입니다. 나를 뽑아 주시면 끝내 줍니다. 사람들이 이상해 진다. 눈길만 마주쳐도 싱끗, 갑자기 너무

친절하다, 누가 되더라도 말대로만 된다면 나쁠 것은 없겠다. 누구처럼 자기 맘에 들지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당장에 이민신청을 해야될가?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몫을 빼앗아 남이 가지면 남이 그만큼 잘 살게. 될테니 좋다.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기라도하나? 요즈음에도 굷어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어 봤어? 그래서 희망을 갖는다. 이민 애기를 하자면 한이 맺히는 사람이 있다. 모든 희망을 걸고 이민만이 살 길인 사람이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걸치고 자동차정비를 배워야 했고, 연필 꽁댕이를 집어 던지고 용접마스크 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수구자심, 이제 나이들고 왠만큼 자라도 잡았으니 고향이 그립다. 이제는 가서 콘소리치고 남은 여생을 즐겨야지. 금의환향이 별것이냐. 떠나온지 오래되어 친구들의 이름이나 얼굴은 어슴프레하지만 두고온 고향의 거리들을 기억에서 언제나 또렷하다. 사람사는 모양이야 어디 쉽게 변하겠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모양 그 형편대로 살고 있겠지. 자랑스러운 시민권을 갖고 가야지, 알수없지 않은가, 앞날을, 수 틀리면 원대복귀다. 오늘도 김포공항은 붐빈다. 가는 사람은 오늘도 간다.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가게되면 간다. 도착 하시는 대로 우리 초청 해줘요, 아시겠죠. 신경쓰세요. 이 나라 이 살림이 아직도 그리 불안한가? 해두면 좋지 않아요? 늙어서 은퇴하면 거기가서 연금 받고 살아요. 한달에 500불이나 준대요. 거기서는 일불이 아쉽대요 그만큼 돈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금은 아무에게나 주나? 연금 따 먹으러 이민 간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하기야 이 곳에도 연금위원회라는게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었다. 그렇게 해서 불안한 마음이 가시고 그만큼 정서가 안정된다면 무얼 탓하겠나, 너, 공치니? 아니, 야직. 마, 빨리 시작해. 머리 올려줄께. 뭐하니? 요즘 세상에 이보다 더한 낙이 있는줄 아니?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지. 즐기는거야 오늘도 학생놈들은 땅하다. 수학여행 갔다 와서 중간고사 치르고 체육대회 하고나서 지금은 대전준비를 한단다. 정작 주어진 과제는 대책이 없다. 매사가 그렇다. 애나 어른이나 환상을 쫓아 하루하루를 넘긴다. 현실이 너무 각박한가? 휴우! 일하며 생각하랬는데 생각이 지나쳤나?

##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대행제도 개선방안

EATURE

姜錫俊 / 동아건축사사무소 by Kang, Suk - Joon

우선, 아직도 일부건축공무원이나 건축사까지도 혼동하고 있는 공사감리업무와 조사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근원적인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두고자 한다.

공사감리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행위로서 건축사 본연의 업무이며, 조사 및 검사업무는 시장 군수가 허가처분한 건축물이 허가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로서 현재도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는 시장, 군수가 직접 담당하고 있음이 시장 군수의 본연의 업무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군수의 본연의 행정업무를 타인 (건축사)에게 위탁 대행 시킴에 있어서는 보수의 지급은 필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사가 전기, 기계, 소방설비 등의 설계를 타전문인에게 위탁시켰다면 상당한 보수의 지급은 지극히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은 17년간 ('75~'91)시장군수의 본연의 건축행정업무인 조사 및 검사업무의 무료대행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회원이 행정 및 형사처분으로 인한 전과자가 되고 사회로부터는 건축사회는 건축부조리양산의 본산인양 부정적인 시각의 멸시로 우리들의 사회적 위상에 얼마나 많은 손상을 가져왔는가.

이웃 일본국 건축사의 경우는 의사와 함께 선생님으로 존경받고 사는데 반하여, 이는 일본에서는 건축행정 (조사 및 검사)업무는 시장, 군수 소속하의 건축공무원 (건축주사와 건축감시원)이 전담하고 건축사에게는 조사 및 검사업무를 일절 대행시키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감리업무에 있어서도 건축주와 시공자에게만 처벌이 가해질 뿐 감리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무료강제 대행으로 인하여 17년간 부당하게 입은 피해와 손실을 살펴보면서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하겠다. (과연 우리 본연의 업무로 입은 것인가? 아니면 시장군수의 어거지 보조공무원격으로 입은 부당한 피해인가)

이 피해및 손실액은 건축사 본연의 수입인 설계비 또는 감리바 중에서 부당하게 희생된 금액으로서 만약 대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손실액은 우리 회원들의 재산축적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공무원이나 건축주보다도 대행건축사의 불이익이 2내지206배에 달하고 있음은 헌법11조의 평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며, 법리상 처벌불이익의 경중을 가리자면 직접위법행위자인 건축주가 첫째이고, 둘째는 국민의 수임자인 공무원이며, 셋째가 대행건축사의 순으로 차동되는 것이 순리임에도 현실은 이와는 완전역순의 모순이다.

대행업무로 인한 처벌은 행정처분만으로 백일이 되어야하며 업무정자의 기간은 1월이내 (현행12월)로 단축함을 전제로한다. (그래도 1개월간 피해액은 17,000,000원으로 관련당사자중 불이익 피해의 비중은 면할 수가 없음)

### (표1) 피해 및 손실금 현황

	처분회수		처 분 량		금 엑(원)	
구 분	연	회원당	연	회원당	*	회원당.
경고	9,329 회	54				
업무정지 						
등록및 면취취소	5 121 0	ഹല	11 (0000)	C 101	1 00109	10495lexlmlo
로 인한 로 인한	5,171 명	2.2회	11,390월	6.1월	1,934억	1억3천6십만원 (103,642,000
도 있었 처분						(103,642,680)
벌 금	Apped .	1041			3억2천8백만원)	17만6천원
(건과자)	328न्हे	18韓	!		(328,000,000)	(175,777€)
대행업무	(지출비	_ <del>-</del>			3,250억	1억7천4백만원
출혈액	용)					(174,156,000
합 계	구속지	30%			5	2억7천8백만원
					5,1879	(277,948,000

※처분회원당이란 17년동안의 1년간 평균회원수를 기준한 것임.

## 〈표2〉 무료대행봉사자에 대한 편중피해비교 (대행건축물 1건당 직긴접관련당사자 3인중에서)

조사검사건축 공무원	직접위법행 위자건축주	대행건축사 (간점지도자)
징계회분 감봉]월	벌금만 <u>으로</u>	발금 1,000,000원에 더하여
<u>500,000&amp;</u>	<u>1,000,000원</u>	업무정지 6월 (월당17,000,000 원씩 102,000,000원) 계 <u>103,000,000원</u>
1:	2:	206

보는 바와 같이 무저항무관심 속에서 굴종만을 감수한 우리들의 피해와 손실은 상상이외로 막대함을 자각하게 되었음에 면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우매하게 당해온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협회차원에서의 대정부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시기를 일실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시장, 군수의 책무인 건축행정업무의 대행으로 인하여 17년간의 막대한 자기비용출혈과 2중3중 (형사행정, 민사)의 처벌만이 누적되어가고 있는 대행업무는 다음과 같은 대행업무관계제도의 개선 없이는 건축사업계의 경제적 상황 등으로 볼때 이 이상 더 지속해 나갈수 없는 절박한 시절에 놓여있음을 감안하여 협회임원진과 대의원께서는 오는 92 년 11월 정기총회에서 93년 1월말을 시한부로 대행업무의 지속여부를 제1과제로 채택하여 그간의 손상된 권익보호와 추락된 사회적 위상확립을 위해 다음에서 열거하는 대행제도개선사항들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건의와 무료대행봉사에 대한 2중처분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한 협회차원에서의 헌법소원제기도 아울러 결의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는 바이다.

건축행정업무의 대행규정인 건축법 23조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우리 회원단체의 의사결정여하에 따라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대행업무를 아니하게되면 사법 처분 및 행정처분과 대행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출혈도 불필요하게 되고 전과자의 신세도 면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대행업무관계법령들의 개정건의내용들은 1989년 12월 28일에 있었던 건설부와 본 협회간의 개정실무협의석상에서 건축법과 건축사법이 동시에 토론된 바 있으며, (개정내용설명은 부천의 강석준회원이 직접하였음)건축법에 대한 건의 내용은 1990년도의 건축법 개정시에 90%이상이 개정되었으나 당시에 건의된 건축사법은 그간 개정기회가 미루워진 관계로 현재 건설부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는 사안들임을 참언하는 바이다.

#### 건축사법에서는

①제 19조 (업무대용)1항3호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신설하여 현실비용에 상용하는 대행료를 건축주로부터 건축사가 직접수령할 수있는 규정을 신설 (※ 따라서 건축사법 부칙에서 건축법23조의 3항을 삭제한다로 다른 법률의 개정을 추가)

②대행업무의 수수료는 연면적 m'당 3,000원 (250m'기준 경우는 75만원으로 책정 이는 1건당 4회 현장점검에 2회의 시정확인점검이 추가되었으며 1회 현장출장 점검소요 시간은 건축사와 건축사보 2인이 교통체증 등을 고려하여 4시간 (반나절)을 잡았으며 건축사와 사보의 열당은 다음과 같다. (92년 1월 협회이사회 결정임)

〈표3〉건축사 및 사보의 1일당 보수료 (보상비제외)

(원)

구 분	직접비	간접비	일당함계
건축사	87,700	직접비×85% 74,545	162,245
사 보	51,600	43,860	95,460
합 계	138,300	118,405	257,705

우리와 유사하게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대행 (검사대비정비업무겸)업소나 적성검사대행자인 의사와 국가자격사험공단 (100%정부지원)등은 현실적인 상당수수료를 수령하게 하면서도 우리에게만 유독 무료대행만을 강제하여 왔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93 년 6월부터 1건당 6회 현장출장점검에 단돈1,000원지급 예정임. 이는 명분일뿐 무료대행이나 다를 바가 없음)

※ 이는 현장출장도 없이 자동차검사를 위한 기계식으로 하는 15분간의 점검비가 45,000원임을 감안할때 건축사의 6회 현장출장 검사비는 결코 비싼 것은 아니다.

③제28조1항의 업무정지 기간은 현행 12월에서 1월로 단축하고 건축법 80조2호에서 제23조 2항의 "조사및 검사자의 업무부실의 경우 200만 벌금"을 삭제하여 전과누적면제토록

※ 현행사법처문과 행정처분의 2중처분제중 행정처분만의 단일회문제로 완화

④ 제28조의 2(행정처분사유의 시효 등)로 업무정지의 사유가 2년을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처분할 수 없도록 신설 (변호사법 74조, 검사장계법 25조, 국가공무원법 83조의 2에서도 2년 경과면 처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⑤ 건축법 제23조의 4항으로 대행업무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화되는 공사감리업무의 철저를 가하기 위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라를 하고 각종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할 자를 현행대로 각각 달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⑥ 제20조 4항으로 건축사의 공사감리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년한은 국가형벌의 공소시효년한인 3년으로 신설 ⑦ 건축법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완화 (매년정기조사로 대행건축사만 적발처벌되고 있음)
- ⑧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 5항에서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토록 되어 있는 규정도 삭제 (전항사유와 동일)
- ⑨ 제23조 (등록) 5항의 건축사보를 두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둘 수 있다로 완화 (변호사법18조 법무사법21조 부동산중개업법6조 공인노무사법 11조 등에서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일본 건축사법에서는 사보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음. 또한 건축사업계의 불황으로 92년 10개월간 1건의 설계수주도 못한 건축사가 전체의 20%이상임)
- ⑩제9조 3호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경과란 문항을 삭제
- ※ 이로 인하여 건축사는 집행유예처분만 받아도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5년후에 재시험을 보도록 되어있음.
- ①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사유가 소멸 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있을 때에는 시험없이 재교부할 수 있도록 선설 (의료법52조2항참조)
- ⑩제11조 (면허취소등) 1항 5호의 등록취소 3회 및 동6호의 최근 10년간의 업무정지통산기간이 36월이면 면허취소한다는 가중처분규정 삭제
- ③제28조 1항 5호 년2회이상 업무정지기간통산이 12월이면 등록취소한다는 규정 삭제
- ⑥제24조 (등록거부사유) 4호 벌금형 받고 1년 미경과자는 삭제 (대행건축사가 벌금형 받는 것은 경직된 현행규정상 불가피한 사안으로 되어 있음.)
- ③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건축사면허제도는 이를 자격과 면허제로 구분하여 자격시험합격후 2년간의 연수를 거친 다음에 면허하도록 하여 면허취소는 있어도 자격취소는 없도록 개정

이상의 사항들은 건축시들의 대행업무제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개선대책으로 사료되는 바,시급한 조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

대행업무개선안 건의에 있어서 대행업무의 계속가부를 건설부와 시급히 협의개선할 것을 우리 회원각자는 협회장은 물론 관계당사국에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회원이 지금까지 시장, 군수의 책무을 무료대행봉사하여 주고 비중적으로 부당하게 처벌만을 받아 왔다는 우리 건축사의 현실적 입장과 해명을 위한 관계 대관 대민 홍보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대행관계당시국 및 회원들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17년간의 무료행정 업무대행으로 우리건축사가 입은 인권적 침해상황과 이에 따른 재산적인 피해손실에 대한 분석자료 및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참가하는 바이니 개관하시고, 우리의 손상된 권익보호와 추락된 사회적 위상정립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 ● 전국 건축사의 17년간 ('75-'91) 건축행정 업무무료대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실, 추정 개요와 개선대책

본 개요 설명에 앞서 아직도 일부공무원이나 건축사까지도 혼돈하고 있는 공사감리 업무와 조사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근원적인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두고자하며 공사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지도하는 행위로서 건축사의 본연의 업무이고 조사 및 검사업무는 시장, 군수가 허가처분한 건축물이 허가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로서 현재도 2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는 시장, 군수가 직접 담당하고 있음이 시장, 군수의 본연의 업무임을 입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자기의 행정업무를 타인 (건축사)에게 위탁 대행시킴에 있어서는 보수의 지급은 필수적인 것으로 예를들어 건축사가 전기, 기계, 소방설비 등의 설계를 타전문인에게 위탁 외주시켰다면은 상당한 보수의 지급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사가 17년간 (75-91) 무료봉사하여 주고 받아온 피해와 손실을 살펴보면 사법처분 전파자는 총328명에 벌금 총액은 3억2천8백만원으로 1인당1백만원이고 행정처분전과자는 총5171명 (1인당 2.2월)에 추정 피해 불이익금은 총1,934억원으로서 년평균 전국대행자 (1,866명) 1인당의 패해액은 1억3백60만원으로서 사법 및 행정 피해 추정 불이익금은 1,937억원에 년평균 전국대행자 (1,866명) 1인당1억3백80만원 피해이고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출혈된 총추정액은 약3,250억원에 년평균 전국대행자 (1,866명) 1인당 출혈액은 1억7천4백만원으로서 년평균 전국 대행자 (1,866명) 1인당 총 추정손실액은 2억7천800만원 으로서 대행업무 직,간접 관련 당사중 각종처분 (사법 및 행정)에서 대행 건축사에 대한 편중처분현상을 보면 다음파 같다.

#### 가, 피처분대행 건축사 1인당의 사법처분 불이익금과 행정처분 불이익금의 불균형 대비표

사법처분 불이익금액	행정처분 불이익금액	대	비	 14]	<u>고</u>	
1,000,000원	37,400,000원	1 : 3	7.4			

<sup>•</sup>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건축사에 대한 감독처분 (행정처분)불이익이 국가형벌 불야익의 37. '배나 되고 있음은 헌법 제 37조의 비례처분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된다.

#### 나, 건축물 1건당의 작, 간접 관련 당사자 3인중 (건축공무원, 건축주, 건축사)의 불이익 편중 처분대비 (부실공사및 조사검사 당사자의 경우)

조사 및 검사 건축공무원	건축주 (직접위법 행위자)	대행건축사 (간접지도자)
징계처분 (감봉1월경우) 불이익금 약500,000원	벌금만으로 (17년간 평균) 1,000,000원	벌금1,000,000원에 더하여 업무정자 6월분의 피해액 (A) 102,000,000원 (6월 × <u>17,000,000원</u> ) <u>제103,000,000원</u>
1 :	2 :	206 (불이익처분 대비표)

<sup>\*</sup> 같은 사건관련자중 공무원이나 건축주보다도 대행건축사 1인당 불이익이 여타 관련자 (건축공무원 및 건축주)1인당 불이익의 2내지 206배에 달하고 있음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년평균 대행자 1인당 총손실액은 2억7천800만원 (행정 및 사법교해액103.818.000+대행업무수행 총출혈액174.156,000원) 인바 무료대행을 아니하였다며는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건축사와 동일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대행(1급 정비사)이나 운전자의 적성검사 대행자 (의사)와 한국국가 자격시험 대행 또는 청소대행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현실적인 상당액 (시험공단의 경우 국가100%지원)을 수령하면서도 이에 따른 위험부담 (사법 및 행정처분)은 전무한 상태이며, 사회악 발원의 온상으로 우리사회에 크나큰 피해를 가장많이 주고있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시행령 20조의 4 (행정처분) 2항에서는 영업정지의 기간은 60일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업소에 대한 형사처벌만 있을 뿐 행정처분은 아예 없음도 참고바라며 유첩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대법원 및 헌법 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 하면, 위법 원인 행위자인 건축주와 종범 자격인 건축사들에 대한 벌금처분에 의한 불이익과 똑같은 건축행정 (조사 및 검사)업무 수행자인 건축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 불이익량의 형평을 위하여서도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정지)의 기간은 현행 12월에서 1월로 단축되어야 하며 단축되는 경우에도 건축사에 대한 불이익 (건축사17,000,000원)의 편중은 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업무정지기간의 12월은 행정기관의 감독권에 근거한 것인바, 이는 통상적인 고정관념에 의한 것으로서 건축공사 관련당사자간의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한 비례적인 균형 설정이 결여된 무원칙적인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유독 건축사에게만 일방적으로 편중되어있는 관계당사자들간의 불균형은 헌법 제11조 제2항의 평등의 원칙과 동법 12조 일사부조리의 원칙 및 동 제 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사법 및 행정처분과 피해손실액만이 누적되어가는 건축행정의 무료대행 (1993. 6월 부터는 현장6회 출장 검사에 약1,000원의 명분 수수료 지급예정)은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대행업무 제도의 개선없이는 더이상 감당될 수 없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행수수료의 현실화 (현행감리비의50%)지급 (이는 건축사의 대행업무를 과거 건축공무원들이 수행 할때의 조사 및 검사업무에 소비된 외근 업무량의 비율은 전체 건축행정업무량의 80%정도 였으므로 대행업무 수임당시 정부로부터 협회가 지원받았어야할 예산이었음)이 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과 건축허가 행정을 건축사협회로 하여급 대행케 할방안이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바, 이들 행정업무대행을 위임받게 될경우에는 반드시 이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이 전제되어야할것이다. 특히, 현행건축관련 직간접당사자간의 사법 및행정처분에 의한 불이익의 비례가 공무원 (1) : 건축주(2) : 건축사(206)으로 현격하게 건축사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사회규범상이나 헌법상의 평등 원칙 및 처벌비례의 원칙 등에부합되도록 이를 건축사(1) : 건축주(2) : 건축공무원(206)의 비례가 되도록 함이 법리상 순리적일 것이며 또한 현행 유독

건축사에게만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이 편중 병과되고 있는 모순을 지양하고 양자처분중 단일처분재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므로 현행대행 업무부실로 연유하는 업무정지기간 12월은 1월로 단축되어야겠고, (그리하여도 관련당사자 3인중의 건축사에 대한 처분 불이익의 편중은 변할 수가 없음)대행건축물에 대한 유자격

전문 시공업자 (또는 등록)에 의한 시공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17년간 대행 건축사의 피처분 사유중 90%가 일조권 (지하층 노출)위반 인것을 감안할때 고질적인 위법다발 요인의 과감한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하겠다.

#### • 전국 건축사의 17년간 ('75-'91) 건축행정 업무무료 대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실 추정 통계

이 분석표는 17년간 (1975-1991)의 전국건축사 (이하 대행자라한다)가 시장, 군수의 건축행정 업무인 조사 및 검사업무를 무료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 로 받은 사법 및 행정처분 전파에 따른 추정피해액과 손실액 (대행 업무수행을 위해 자출된 비용)을 추정해내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전국대행건축사가 17년간 (75-91)행정 및 사법 처분 총괄통계표 중에서 7년간 (83-89)의 통계수치는사실이고 91년 통계는 3년간 (89-90)의 사실 합산통계의 1년간평균 수치이며 동표중 8년간 (75-82)의 통계는 9년간 (83-91)합산통계의 1년간평균 수치로 8년간의 합산통계를 추산한 것으로 업무정지의 총개월수는 17년간 (75-91)의 경기도

피처분 대행자들의 1년간 평균정지월수별 사실 개월수에 전국 91년도 정지월수별 사실 개월수를 더한 2년간의 1년간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하여 전국 피처분 대행자에 대한 총개월수를 산정한 것이며, 17년간 (75-91)의 사법 (형사)처분에 따른 벌금총액 역시 5년간 (87-91)의 경기도 피처분 대행자가 사실 납부한 총금액에 대한 1인당 평균 벌금액을 기준으로 전국 피처분 대행자의 총벌금액을 추산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계는 약80%는 사실통계 수치이며 20%는 이80%의 사실통계를 근거로 추산된 것이므로 행정 또는 민형사상의 생송 (보상 또는 배상)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다.

# • 17년간 ('75-'91) 대행자가 전국행정 (조사 및 검사)업무의 무료봉사 대가로 받은 행정 및 사법처분 피해액과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총출혈된 손실액의 산정기준

가. 17년간 ('75-'91) 경기도 대행자의 행정 및 사법처분 사실통계표

=1H → H	년평균대	대 행	대행	대행자 19	인당 처분량	전 요.
처분구분	행자수	총피처분자	총피처분량	피차분644인당	년평균대행198인당	A 8.
경고	198인	(702 × 0.9) 6329]	13	1.0회	3.19≱)	1. 년간 평균전 건축사의 100%가 대행업무에 참여하고 총행정 및 사법처분량의 90%를 대행업무의 부실사유로 봄
업무정지	198인	(715 × 0.9) 644인	(1.435 × 0.9) 1,292월	2.01월	6.53월	2. 총업무성지 처분량에는 등록취소자 9인 (216월)분이 포함 되었음.
벌 금	198인	(45 × 0.9) 40%]	(100,600,000×0.9) 90,540,000원	2,263,500원	457,270원	3. 벌금통계는 5년간('87-'91)의 경기도대행자의 80%응답분 임.

<sup>•</sup> 참여전 건축사는 198인을 기준한 것임.

#### 나. 전국 대행건축사 행정 및 사법처분 (월수별)통계표 (위"가"항음근거)

처분구분	년평균대행	대 행	대 행	대행자 19	면당 처분량	
ጣዚተራ	건축사수	총피처분자	총피처분자	피처분5,171인당	년평균대행1,866인당	적 요.
경고	(2,333×0.8) 1,866인	(4,717×0.9) 4,245	1회	1.0對	2.28회	1. 년간평균 건축사의 80%가 대행업무에 참여하고 총행정및 사법처분량의 90%를 대행업무의 부실사유로 보았음
업무정지	1,866인	5,745 × 0.9 5,171인(D)	(12,655 × 0.9) 11,390%	2.2월	6.1원	<ol> <li>총업무정지 처분량에는 등록취소가 81인 (1944월) 과 면허 취소자 7인 (420월)분이 포함됨.</li> </ol>
벌 금	1,8669]	364 × 0.9 32891(A)	(328 × 1,000,000) 328,000,000 (B)	1,000,000원 (C)	138,571원	<ol> <li>경기도 대행자의 5년간 ('87-'91)벌금처분자 1인당 금액은 2,263,500원 (전대행건축1인당의 경우는 457,270원임)이나 전국대행의 경우는 1인당 평균 1,000,000원의 벌금으로 추산한 것임.</li> </ol>

#### 다. 전국대행 건축사 사무소 월당 평균 규모와 운영비는 다음표와 같음 (중하위 규모)

구 분(인) -		일	당 (원)		
구 분(원)	직접비	간접비	보상비	계	월간 운영비 합계
건축사(1)	87,700	(직접비 × 50%) 43,850	(직접 + 간접) × 25% 164,438	394,650	월당25일 근무기준
사 보(2)	$(51,800 \times 2)$ 103,600			103,600	월간 총 운영비는
보조원(5)	$(36,000 \times 5)$ 180,000			180,000	16,956,250원으로서
계(8)	371,300	43,850	164,438	678,259	약17,000,000원임 (A)

<sup>\*</sup>이 보수 일당 금액은 1992. 1월에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금액임.

#### ◆ 17년간 ('75--'91)전국대행건축사가 행정및 사법처분으로 입은 피해액

	년평균대	연피처분		피 처 분	량		피 해 액	
구 분	행자수	자 수	연처분량	피처분1인당	년간평균대행자1인당	연 화해금액	피처분1인당	년간평균대행자1인당
경고	1866인	9329୧]						
업무정지	1866શ	5171인(D)	11,390월	2.2월(臣)	6.1일	(약1,934억원)(F)	_	(G)
	1000 €	01.16(2)	11,050 €		V	193,395,400,000원	37,400,000원	103,642,000원
별 귬	1866인	(A) 328인	(B) 328,000,000원	(C) 1,000,000원 	175 <b>,777%</b>	328,000,000원	63,300원	175,777원
합 계						(약1937억원(H)) 193,723,400,000원	(J) 37,463,300원	(I) 103,818,000원

<sup>☀</sup>대행자 월당 운영비는 17,000,000원으로 계상함.

### • 17년간 ('75-'91)전국대행장 무료 대행업무수행을 위해 출혈된 총금액

기 간	총 건축물	대행 건축물건수	건당지출비용		출 혈 금 액	
(17연간)	신고 건수	(전체의 70%)		<b>충출</b> 혈금액	피처분 1인당	년간평균 대행자 1인당
75-91	2,321,349건	1,624,874건	200,000원	(3250억원)(A) 324 974 800 000원	%ରେ 000 000୫) ଓଡ଼ିଶେ 000 000୫)	(C) 174,156,000€
10 01	DISELIO IS C	:	200,000 2	324,974,800,000원	약63,000,000원	174,156,00

<sup>•</sup>총건축물신고 건수 중 70%를 대행 건축물로 보았음 (년평균 대행자는 피처분자 5,171인 기준임 1,868명임)

### • 17년간 ('75-'91)전국 대행자 (1,866명)가 무료대행 업무로 입은 총피해 및 손싫금액 총괄표

		손 실 금 엑									
손 실 금 액	총금액	피처분자1인당	년간평균 대행자1인당	비고							
행정 및 사법 피처분 피해액	(약1,934억원) 193,723,400,000원	37,463,300원	103,818,000원	전항 H, J, I참조							
대행 업무수행 출 혈 액	(약3,250억원) 324,974,800,000원	63,000,000원	174,156,000원	전향 A, B, C, 참조							
총 손 실 액	(약5,187억원) 518,698,200,000원	100, 463, 300원	277,974,000원(A)								

#### ◆전국대행건축사 17년간 ('75-'91)행정 및 사법처분 총괄통계표 (추산)

※17년간 전국 피처분 횟수중 약90%는 조사 및 검사대행 업무의 부실사유로 추산함.

구분	회원수	<del>10-1</del>		행 정	처 분				형 사	처 별		바 고
년도	<b>총</b> 회원수 처분회원수	경 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면허취소	건수개	비율	발 금	구속	건수계	비 <del>월</del> (%)	
83	2,062	2,483	657	15		3,155	153	1	3	4	0.2	ㅇ구속자 19명중
.84	2,242	1,101	775	15	2	1,893	84.4			0.00.00		서울 : 4명 부산 : 2명
85	2.376 3,108	2,620	493	6		3,119	131.7	1	<u></u>	1	0.04	경기 : 13명
86	2,548 1,049	672	373	12		1,057	41.4	1		1	0.04	
87	2,753 520	281	243	2	1	527	19	1		1	0.04	
88	2,989	180	266	3		449	14	143	3	146	4.90	
89	3,205	141	306	3		450	15	57	13	70	2.20	
90	3,475 874	201	667	1	0.33	874	25,1	70	5	75	2.20	
91	3,745 590	174	413	2	0.11	590	15.7	90	6	96	2,60	
75 - 82	11,956 3,716	2,513	1,174	26	3	3,716	31	8	3	11	0.09	1
계	39,662 15,821	10,366	5,367	81	7	15,821	30.5	364	30	394	1.00	

<sup>※ 2,333 (1</sup>년간평균 회원수 2,333명중의 80% 1,988명을 대행자로 봄)

#### • 17년간 경기도 건축사법 및 행정처분(월수별) 사실통계

1992.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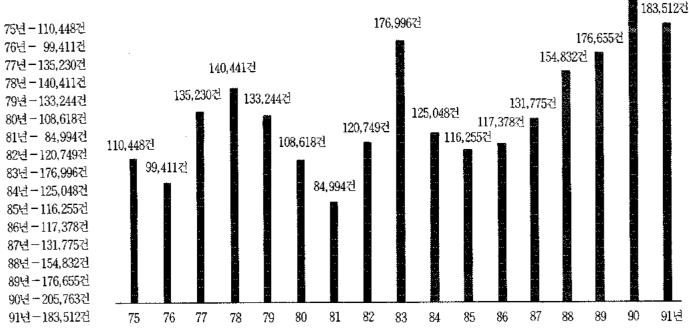
		처분병	경고			업 부	- 정	지(괴	처문자	)			업무정지	년도별	처분(%)	빝	귱 .
구분	년도법	1	3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	계	등록취소.	동록취소	회원수		처분인원	급액
		1975		1				!			1		1	97	1	벌금통계는 75-	86까지는 통계
75 ?		1976	1	1							1		1	106	6	미비이고 87-91	
<b>8</b> 2		1977	1	1	1	1		Ĺ			2		2	132	2	약80%의 사실통	계임
8	1978		14	39	3	_1					43		43	147	47		
(8명간		1979	10	8	21	26					55		55	166	39		
		1980	19		3	<u> </u>					3		3	189	1		
28%피자분)	<u></u>	1981	85	39	15	4			l 		58		58	150	95		
첩		1982	25	16	11	2					29		29	156	35		
E	-M	인원수	<u>15</u> 5	105	54	33					(192)	<u></u> i	(192)	(1,143)		<u> </u>	
	: 계	처분월수	155	105	108	99					(312)		(312)		_		<u>.</u>
	1983		70	44	41	1			6		92	4	96	161	103		
83		1984	43	26	10	4			7		47	_ 2	49	196	47	1	8,400,000,000
91		1985	46	18	17	10	4		2		51	1	52	218	45		
	_	1986	30	20	4		2	i			27		27	235	24		
( 7 년간		1987	65	21	3	1					25		25	244	33	2	5,300,000
₹	<u> </u>	1988	43	59	l	3		_1		l	65	L	<b>6</b> 5	264	41	16	17,300,000
72	<u> </u>	1988	43	59	1	3_		1		l	65		65	264	41	16	17,300,000
%   =		1989	68	45	13					_	58		58	277	45	9	27,700,000
72%可料是)		1990	86	57	13	7	3	1		_ 1	82	11	83	301	55	6	19,100,000
<u> </u>	<u> </u>	1991	96	28	7	. 9	15	3	3	2	67	1	68	321	51	11	22,800,000
	피처분역	신원합계	702	423	163	68	24	6	18	4	706	9	715	(198)	361	45	100,600,000
	퍼처분(	실수합계	0	423	326	204	96	30	108	32	1,219	216	1,435	3,360			

#### • 17년간 대행자의 행정 및 사법처분 (월수별)통계표 (사실통계수치기준)

1992. 6. 30.

	인인 내	1 <b>0</b> , , j =	7 00	> 2¢ '	4 H^I	工 ( 色	T 2/	호기끄	- (^F	≝ <b>ਲ</b> ∕॥″	<b>□^]</b> /	· I正 /						1992, 6. 30
Ť	년도별	년간 평균	₹	78				업 무	정 지	(처분	교수별)	1		· :	동 목	면 허		
분	GEE	*6편 회원수	분	고	1	2	3	4	<b>⑤</b>	6	Ø	8	12	계	취 소	취 소	합계	바고
	경기도 17년간		인원	(41)	(24.88)	(9.6)	(4)	(1.4)	(0,35)	(1.06)		(0.24)	!	41.53	0.53		42,06	1, 등목취소 정지기간은 1인당 24월정지로
A	(75-91) 1년평균	198	월수		24.88	19.18	12	5.65	1.76	6.35		1.88		71.71	12.71		84.41	2. 면호취소정지기간은 1인당 60월정지로 보았음
В	전국 91년	3,745	인원	514	360	166	(9)	71	(3)	9		5	1	624			624	전국수치에서는 A란의 경기도
ט	91년 (1년간)	34143	월수	<u> </u>	360	332	27	299	15	54		40	12	1,139			1,139	I년분의 평균수치가 제외된 수치임.
	1년간		인원	555	384.88	175,6	13	72.4	3.35	10.06		5.24	1	665.53	0.53		666.06	1.이표에서 벌첨7호의 경기도 17년간 피처 분 사실통계표상의 1년간 평균사실통계치
С	합계 (A+B)		월수		384.88	351.18	39	304.65	16.76	60.35		41,88	12	1.210. 65	12.17		1,222,82	수(A란)와 전국 91년도 1년간의 사실통 계치수(경기도 91분은 제외한B란)를 합
	전국 1년간		인원	277.5	192.44	87.80	6.5	36.2	1.68	5.03		2,62	0.5	332.77	0.27		333.04	산(C란)하여 평균한 I년간의 수치(D)를 기준으로 17년간을 추산한 전국통계(E
D	평균   ( <u>A+B)</u>	2,333	월수		192.44	175.6	19.5	152.33	8.28	30.18		20,9	6	605.37	6.1		611.47	란)수치와 2. 별첨6호의 전국 17년간을 피처분통계표 상의 9년간(83-91)의 사실 년간수치를
	2 건국1 <b>7년</b> 간 <b>사실</b>	벌첨7	 인원	4,717.5	<b>3.271.</b> 5	1.492.6	110,5	615.4	28.56	85.51		44.54	8.5	5.657	81	7.0	5.745	기준으로하여 8년간(75-81간의 통제미 비로)의 통계를 년도별 건축시등록증가율 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17년간의 추
E	書 계 (17×D)	호통계 기준	월수		3,271.5	2.985	331.5	2,589.6	142.46	513		356	102	10,291	1,944	(5년) <b>4</b> 20	12,655	정통계수치(F란)를 비교해 보면 3.E란의 수치가(F)란의 수치보다 평균3%
	전국추정	변천6	인원	10,366	2.960	15.51	70.72	640	6.24	1,453,5		46,32	17.68	5.367	81	7.0	5.455	가 많은 근소차이므로 (E)란의 통계치수 (97%의 적중성)를 채택하여 전국 17년간
F	평균 총제	호통제 기준	월수		2,960	3,104	212	2,560	31.2	533.52		370.24	212,16	10.118	1,944	420	12,482	의 건축사가 입은 <b>과해</b> 및 손실액의 산출 기초로 하였음.

#### ●전국 17년간 ('75-'91) 무료 대행도서 신고 건수및 무료대행 출혈비용 추산표



- 1. 17년 계2,321,349건 (이중 조사 및 검사 대행건축물 건수는 총건수의 약70%보아 1.624,874건으로 추산)
- 2. 조사검사업무 1건당 비용산정내용
  - 가. 조사검사회수 2회 (1. 허가전현장조사 2. 준공검사)
  - 나. 1회당 조사검사비용 : 건축사 일당87,700원+건축사보51,600원 합계 반나절 인건비 14만원
- 1 /2일 7만원에 자동차 연료비 기타 비용30,000원 = 10만원

205,763건

- 3. 1년 평균 무료대행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출혈액) 95,581건 (135,341 × 70%) × 200,000원 = 19,116,164,000,000원 (19억원)
- 4. 17년간 ('75- '91) 무료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 (출혈액) 1,624,874건 × 200,000=324,974,800,000원 (3,249억원)

#### ◆건축허기수수료의 범위 (시행규칙9조 관련)

다 제		금 액 (원)				
면 적		건축허가		85	용도변경허가	
1, 200제곱미터 미만은	가	단독	2,000이상	단독	1,000이상	
수임100 건중의 20%차지	90%	주택	3,000이하	<b>주</b> 택	1,500이하	
	나	기타	5,000이상			
	10%		7,000이하		3,000০)তী	
2.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	가	단독	3,000이상	단독	1,000이상	
미터미만은	90%	<b>주</b> 택	4,000০ ই	주택	2,000이하	
수임100 건중의 77%차지	나		10,000이상	기타	5,000이상	
	10%		15,000이하		8,000이하	
3,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		25,000이상		10,000이상		
미만은 수임건수 400건중의 3%차지		40,000ਾ ਰੋ}		15,000이하		

- +1. 조례가 정해질때까지는 허가수수료는 위표의 하한금액을 장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2. 조사 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료는 하한금액의 30%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 허가수수료 범위표에 의한 1건당 대행업무수수료의 산정표

- 가. 100건을 기준한 평균하가 수수료 산정 (조례가 정해질때까지는 하한금액기준)
- (1)1-가, 2,000 × 20% × 90%=18건 (2,000 × 18건) = 36,000원
- (2)1-나, 5,000 × 20% × 10%=2건 (5,000 × 2건)=10,000원
- (3)2-7,  $3,000 \times 27\% \times 90\% = 69.3 (3,000 \times 63.3) = 207,900$
- (4)2-나, 10,000 × 77% × 10%=7.7 (10,000 × 7.7건) =77,000원
- (5)3 25,000 × 3% × 100% = 3 (25,000 × 3건) = 75,000원
- 계 100건
- (6)100건에 대한 총수수료의 금액………405,900원

- (7)100건중 1건당 허가수수료금액 405,900 ÷ 100=4,59원 (8)97건중 1건당 허가 수수료금액 330,900 ÷ 97=3,411원 (• 97건은 위3의 25,000원 수수료규모는 국소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보편적인 평균산출을 위함)
- 나, 대행수수료1건당 평균금액 (허가수수료의 30%)
- (1) 100건중 1건당 대행수수료 평균금액 4,059 × 30% = 1,217
- (2) 97건중 1건당 대행수수료 평균금액 3,411 × 30% =1.023원
- (3) 197건중 1건당 평균하가 수수료 (405,900 + 330,900 = 3,740원
- (4) 197건중 1건당 대행수수료 3,740원 × 30%=1,122원

# '93 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 개최시기 및 장소

- 1993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93한국건축대제전과 병행하여 개최
- 1993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 순회전시 예정

#### ■ 출품자격

- ◆ 건축사부문 : 1993년 1월 현재 개업 건축사
- ◆ 산인부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내인자도 응모할 수 있음)

#### ■ 출품내용

- ◆건축사부문: '90년 ~ '93년 2월까지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작품
- ◆ 신인 · 학생부문

#### ⊙주제 / 만남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건축의 기능과 형태와 상징을 창의력있게 해석하고 표현하여 감동적으로 건축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함

#### • 신인부문

- · 제목 : 이산가족 상봉센터
- · 조건 : 대지규모 20,000m²

연 면 적 - 10,00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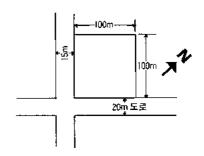
- 위 지 DMZ(비무장지대)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 · 개요 : 통일을 대비한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장소로서 숙식시설, 관람집회시설 및 오락시설등이 복합된 내용으로 작가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현행건축법에 준하여 계획할 것.

#### • 학생부문

· 제목 : 국제박람회 "한국관" · 조건 : 대지규모 - 10,000㎡

연 면 적 - 3,500m²

위 치 – 박람회장내에



· 개요: 세계속의 만남을 상징적이며 기능적으로 표현하되 세부프로그램은 작가가 설정하여 전개시킬 것

#### ■ 작품접수

- ◆건축사부문: 1993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패널제출 (작품제출시 작품집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슬라이드 또는 칼라 사진 5 ~ 6매, 잉킹도면, 설계개요첨부)
- ◆ 신인 · 학생부문 :
  - · 일자:1993. 3. 5(금)~3. 6(토)09:00~18:00
  - · 장소:대한건축사형회강당

####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 건축시부문 : 90cm × 90cm의 규격 패널 1 ~ 4매 (모형출품도 가능함)
- ◆신인·학생부문: 120cm×120cm규격패널 1매 및 100cm×100cm이내의 모형 1점 (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 설명서 첨부)

####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는 2인을 초과 할 수 없음(신인·학생부문)
-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제료의 사용은 금할 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신인·학생부문)

#### ■ 시상내용

#### ◆ 건축시부문 :

\* '93한국건축대상(7) : 상장 및 트로피

#### ◆ 선인부문

- \* 최우수상(1) : 상금 500만원 및 상장 (해외연수비 200만원 포함)
- \* 우 수 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 장 려 상(3):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학생<del>부문</del>

-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 우 수 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 장 려 상(10)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각시 · 도시 건축사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 입선(다수): 상장
- ※ 학생작품 최우수상 수상자는 ARCASIA 학생잼버리 파견특전 부여

####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 – 55

 $2581 - 5711 \sim 4,587 - 8504$ 

#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Ⅱ)

A Methodological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PORT

張順鏞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탑 by Jang, Soon - Yong

#### 5. 기둥의 종류와 배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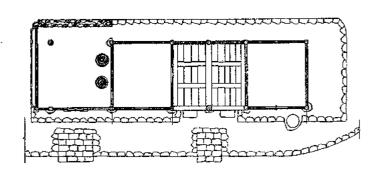
#### 1) 기둥의 종류

한옥에 사용되는 기둥의 단면형태는 사각형과 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외에 육각형과 팔각형이 정자건물에 사용되고, 아주 특이한 경우로는 가지를 치고 껍질을 벗겨서 나무의 생긴 형태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종류이다.

그리고 주택에서는 대개 사각형 기둥이 사용되고 부분적으로 원기둥이 사용된다. 현재에도 한옥을 세우려면 원목에서부터 치목해야 한다. 그만큼 한옥이 희소하게 건축되므로 기성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기계가 발달해서 웬만하면 제재소에서 일차가공을 하고 현장에서도 전통공구로 치목을 하지만, 과거에는 모든 것이 인력가공이었으며, 궁궐이나 관아건축은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위엄있게 건축하고, 사찰건축은 주변의 산림에서 목재조달이 손쉬운 편이므로 크고 우람한 목재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옥에서는 당시의 건축제한도 있지만 재료와 인력을 모두 개인이 조달해야 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특히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기도 농번기를 피하고 날씨도 좋은 계절이어야 하는 시기적 제한도 적지않다. 따라서 집 한채를 세우려면 경제적 형편에 따라 목재를 마련해서 조금씩 치목해 두었다가 적당한 때에 본격적으로 세우게 되므로 건축기간이 이삼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덕분에 건물을 세울때에는 목재가 자연건조되어 변형의 여지가 별로 없게된다. 이에 비하면 현재는 원목에서 치목 조립까지가 규모에 따라 3개월 내지 9개월에 완성되어 건립후 건조에 의한 변형이 심각한 편이다. 물론 인조건조법도 있으나 너무 고가이므로 건축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원목에서 기둥재목을 켜내고 남은 피죽으로는 두께에 따라 대청의 마루널로 사용하기도 하고, 더 얇게 켜서 판재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지붕에 적심재로 펴까는 등으로 재료의 허실이 없이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원기둥 보다는 각기둥이 훨씬 유리하다. 부차적으로 각기둥을 사용하면 벽체의 구성에서도 목재의 허실이 적고 그만큼 인력도 절약되는 이점이 있으며, 특히 주택에서는 검소하면서 깔끔한 모습을 취하려는, 방정 (方正)한 형태로의 건축을 지향하는 심리적인 면으로는 각기둥이 선택되는 배경이 있는 것이다.

한옥에서 부분적으로 원기둥이 사용되는 경우는 경제력이 있는 집이거나, 지역적으로는 목재의 조달이 손쉬운 산림지역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원기둥이 사용되는 위치는 대청이나 누마루의 전면에 한정되는 배경으로는 전래되는 사상중에 우주만물을 이루는 근본요소로 하늘, 땅, 사람이라는 삼재설 (三才說, 三極說)에서 연원하여 건축적인 표현으로 하늘은





등글고 땅은 모난 것으로 구현시키고, 이 삼재가 조화되어야 하늘이 인간에게 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각기등에 하늘의 기둥, 즉 원주를 추가한다는 것으로 풀이하고도 있다. 또 약간 단순한 해석으로는 집안이 화목하여 번성하려면 집안의 중심되는 기 (氣)가 원만하게 운동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원기둥을 사용한다고도 하므로 토속신안적인 기복사상 (祈福思想)이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이점을 현대의 건축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건물의 중심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입면에 변화를 주어 마적감각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고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작기등의 규격은 5치각에서 9치각의 범위로 사용되고, 보통은 6치각에서 8치각이 사용되며 가장 빈도높게 사용되는 규격은 7치각 내외가 된다. 7치각기둥은 직경 1자의 원목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 7치각 기둥에 1자의 원기둥이 사용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기둥의 높이는 8자에서 12자의 범위로 사용되지만 구조양식에 따라 다르고 몸채와 부속채의 종류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사용하므로 일률적인 높이는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대청과 같이 출입의 동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마루상면에서 장여나 창방 등에 이르는 유효높이를 6자반 내지 10자의 범위에서 선택되고, 보편적으로는 8자내외의 치수로 결정된다.

#### 2)기둥의 배치방법

기등의 배치는 평면계획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이지만 설계과정에서는 중요한 구조계획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후술될 도리의 배치와도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점점할 필요가 있다. 특히 ¬ 자형 평면과 같이 꺾이는 부위에서는 기둥의 배치에 따라 보를 거는 방법과 도리의 배열은 지붕의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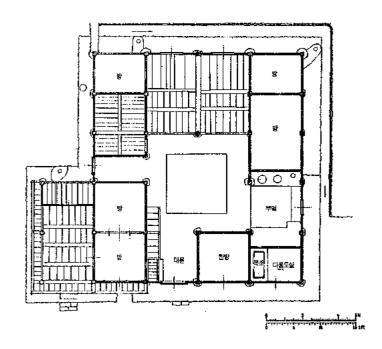
- 경북 달성군 조길방 가옥
   안채 평면도
   초가집에서 대청에 원주를
   사용한 예
- 오류정종택 전경 (정면과 무측면)
- ② 오류정종택 평면도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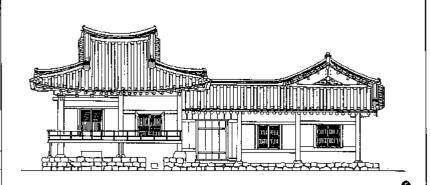
또 한가지의 점검사항은 앞퇴를 두는 평면에서는 구조적인 상황외에도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추가로 기둥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상황에 따르는 기둥의 배치는 여러가지 평면의 예를 비교 검토하여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원론적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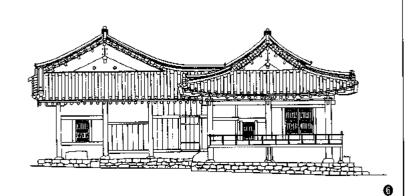
첫째로 기둥의 배치는 8자 내외의 1칸 단위로 배치하여 전체 목재의 사용량이 경제적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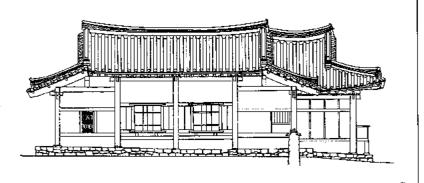
둘째로 대청과 같이 2칸 내외의 목에 대들보가 걸릴 경우에는 구조를 검토하여 스판을 줄이거나 고주를 세우는 등으로 견고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도리배치의 열과 기동열이 일치되어야 구성이 간결하게 되고 견고성이 높아지며, 각부 구성의 비례를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많아진다. 이점은 특히 중도리 위치선정이 처마하중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사항인 것이다. 주택에서는 처마깊이가 보편적으로 4자 내외로 구성하게 되므로 중도리의 위치도 처마도리와 4자의 간격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는 처마깊이 보다 1자정도는 짧게 중도리 간격을 설장할 경우도 있으나 이럴 때는 철물을 사용하여 서까래가 들뜨리는 일이 없도록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로 실내의 벽체가 없는 곳에는 기둥을 세우자 않는다. 부독이하여 구조적인 이유로 기둥을 세워야 한다면 좌우에 장지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필요할 때에는 개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구사한다.

#### 6. 도리의 구성

#### 1) 도리의 종류와 선택

도리의 종류에서도 기둥과 마찬가지로 단면이 원형인 굴도리와 사각형 단면인 납도리가 주류를 이루며 굴도리가 보다 고급의 종류에 속한다. 따라서 격식있는 주택에서는 본채에는 굴도리를 사용하고 문간채 행랑채 등의 부속채는 납도리를 사용하고, 문간채에서도 대문간의 기둥이 좌우보다 높게 구성된 솟을대문간에서는 좌우에 납도리를 쓰고 대문간은 굴도리를 사용하여 변화를 추기도 한다. 따라서 도리의 종류를 선택할 때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 중심부와 주변부의 개념이 정리되면 판단이 용이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마도라는 굴도리를 쓰고 중도리 이상은 납도리를 사용하는 혼용방법이 있으나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선책이며, 특히 대청부에서는 도리와 서까래가 노출되므로 시각적 균형미를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굴도리와 납도리의 중간형태인 8각형 도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굴도리의 치목비용을 절감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런점은 지역적인 건축개성을 살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굴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번 먹줄치기를 하여 사면을 정확하게 다듬고 다음에 괄각형으로 만들고 다시 모틀 죽여 원형단면인 굴도리가 치복되므로 굴도리의 치목단가는 납도리에 비하면 월등하 높게되고, 이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 2) 도리의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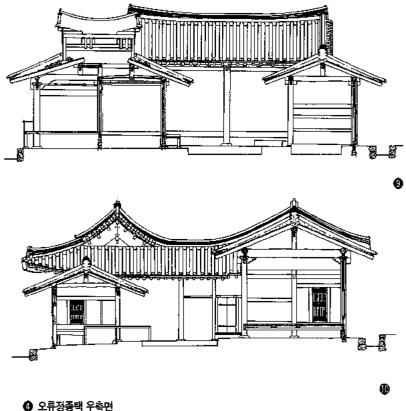
평면계획에서 외곽 중심선이 처마도리선이 되므로 처마도리의 배치는 확정되었고 중도리와 종도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측면의 길이가 1칸 내지 1칸반의 경우에는 처마도리와 종도리만으로 구성되는 삼량구조가 사용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측 처마도리의 중심열에 종도리가 배치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삼량구조와 오량구조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ㄱ자, ㄷ자, ㅁ자 등의 평면에서는 도리의 배치에 신중하여야 하고,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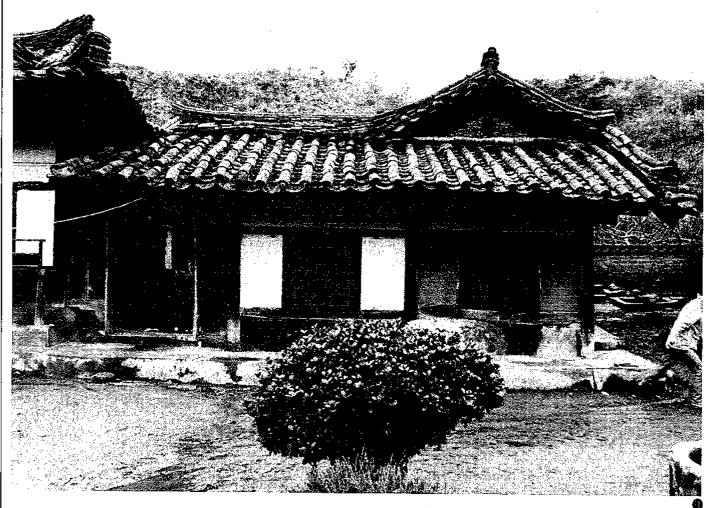
면으로는 도리의 배치때문에 평면의 주칸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5량구조에서 처마도리와 종도리의 위치는 결정되었으므로 중도리의 배치만 결정하면 된다. 형식적인 분류로서는 5량구조에 그림 ❸ ~ 나, 다와 같이 3분변작 5량구조와 사분변작 5량구조로 구분한다. 이것은 대량의 스판의 3등분점에 중도리가 배치되면 3분변작, 4등분점에 배치되면 4분변작이라 하는 것이며, 정확히 3등분 또는 4등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외 차이가 나기때문에 변작 (變作)이라는 단어가 첨가되는 것이다.

삼분변작과 사분변작의 선택은 개념적으로는 스판이 작으면 삼분변작이 사용되고, 크면 사분변작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변작의 선택은 결국 처마서까래의 하중균형을 잡는 구조적 선택으로 보면 간단한 문제가 되고 만다. 처마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걸쳐지는 서까래는 처마쪽에 돌출된 부위가 있으므로 장대한 부재가 되므로 장연(長椽)이라 하고, 기타는 단연이라 구분되게 호칭한다. 장연은 처마도리와 중도리에 못을 박아 고정하게 되고 구조적으로는 캔티레버가 되므로 처마도리를 중심으로 하여 외측의 길이와 내측의 길이가 균형을 이두거나 내측의 길이가 길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월이 흐르면 중도리에서 서까래가 들뜨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내외의 길이가 균형이 잡혔다 하여도 추녀부위의 선자서까래에서는 하중의 면적비례가 외부3에 내부1이 되어 추녀의 내측이 들뜨게 마련이므로 추녀는 중도리에 철물오 간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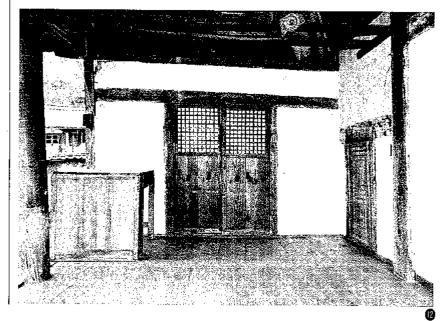


- 🗗 정면도
- 🐧 좌측면도
- 🕜 배면도
- 🚯 사랑채 정면
- ❷ 횡단면도
- ② 종단면도



칠물이 귀한 시절에는 목재만으로 추녀를 중도에 고착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것을 "강다리"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한옥에서는 대개 3량, 5량, 7량, 9량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그림 **6** -라와 같이 4량구조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경우는 몸채에서 익채가 꺽여 나오는 곳에서 몸채의 측면 중도리가 보통은 익채의 종도리와 연결되도록 하는데, 몸채의 측면 중도리선이 약채의 중심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5량으로 하기에는 스판이 작고 3량으로 하기에는 좌우의 균형이 맞지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림 ⑥참조)이와같은 응용기법이 있으므로 평면이 꺾여진 형태의 구조를 편려한 대로 구성하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도리의 평면위치가 설정되면 도리의 높이차를 결정하는 단계가 된다. 건물의 규모와 격식에 따르는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하지면 처마를 형성하는 장연은 40%, 즉 4치물매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가감하게 되고, 단연은 위로 갈수록 점차 급한 구배로 구성하며, 5량구조의 단연은 6치 내지 1자 2치물매의 범위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지붕의 볼륨구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축면의 길이가 긴 경우는 물매를 낮게 잡아도 용마루의 상대적 위치가 높게 되므로 약간 낮게 잡고, 측면길이가 짧은 경우는 지붕이 높게 보이도록 물매를 높게 잡는다. 행랑채 등의 부속채일지라도 3치물매 이하로는 도리의 높이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3차이하의 물매가 되면 기와잇기에서 암기와가 수평에 가깝게 깔려지게 되므로 빗물이 역류하여 누수될 염려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기와잇기에서 후술되겠지만 서양식 기와잇기와는 달리 한옥에서는 삼겹물림이라 하여. 암기와의 1 /3만이 노출과는 방법으로 두껍게 기와를 깔기 때문에 낮은 구배의 물매로는 기와잇기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7. 주택

#### 영양 오류정 (五柳亭) 좀택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에 소재하고, 경북



문화재자료 제 82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오류정 金斗行 (1705~1789) 선생이 1735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50여년의 풍상을 겪은 건물이 되지만 건립이후의 중수상황이 불명하여 당초의 형태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지세에 따라 동남동향을 건물의 주측으로 하는 이 건물의 평면형태는 산간지방의 폐쇄적인 ㅁ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는 전면4칸, 측면5칸이 된다. 다만 정면에서 좌측으로 1칸을 돌출시켜 누마루를 구성하여 정면2칸과 측면 2칸의 사랑채로 하여 본채와 지붕을 연결시킨 독특한 구성을 하였다. 규모로는 18칸집에 40.8평이다.

사랑채 부분에만 추녀가 사용되고 다른 곳에는 추녀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에는 완전한 형태의 ㅁ자 평면인 것을 후에 누마루 2칸을 증측하면서 지붕구조도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추녀가 사용되면 그만큼 고급의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건축비용이 높아지고 보수공사도 까다로운 편이므로, 본채는 박공지붕을 조합하여 팔작지붕 형태로 구성하는 수법은 지역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건물의 지붕모습은 그림 ♠ -가 와 같고, 건물전체로 추녀를 사용하여 지붕을 재구성한다면 그림 ❶ - 나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붕의 입면구성은 날렵한 도시형으로 , 지역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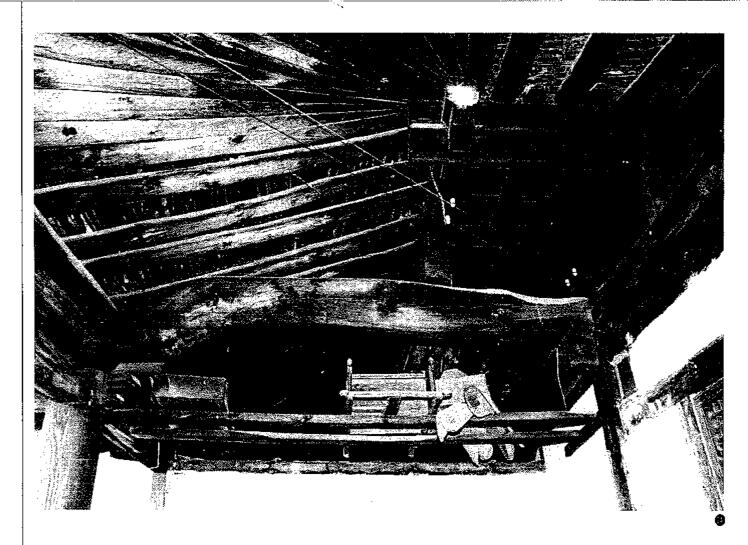
요즈음에는 이와같이 폐쇄적인 평면형을 주택으로 선택할 확률은 극히 적으나, 역으로 일년에 한 두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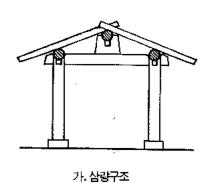
- 문간채 정면
- ② 사랑채 누마루 중앙부감실의 판문이 살림용이 아님을 암시 한다.
- (B) 안채 해면 죽담너머로 판벽과 황토벽이 산간주택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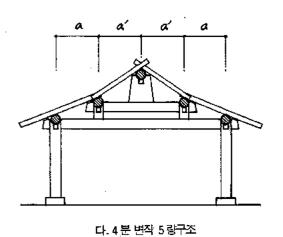
사용하는 시골의 별장으로는 오히려 관리에 유리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과연 이런 평면형이 결정되었다면 어떤 지붕형태로 설계할 것인가의 선택에는 어려움이 있다. 건축주가 한옥에 대한 식견이 높아 같은 공사비가 투입되더라도 도시의 주택이 아닌, 지역환경에 어울리고 흙냄새가 물씬나는 시골집으로 만들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건축주를 설득하기 전에는 그림 ① - 나의 형태로 설계하기가 십중팔구일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성향이 요즈음에 도시와 시골의 구별이 없이 전국적으로 한옥의 형태가 확일화되어 지역적 개성이 없어져가는 이유중 하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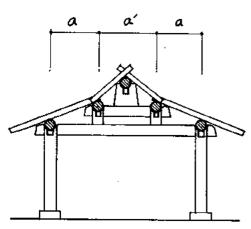
기등의 배치에서 기본 모듈을 9자반에 부차적으로 7자반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7자반이 선택된 곳은 후측의 대청부위가 된다. 대청부에서도 9자반의 주킨을 설정하였다면 대청이 정방형의 평면이 되어 비례감각이 적절치 못하게되고, 지붕이 그만큼 더 높아져야 하며, 좌우측에서 실의 구성은 면적이 약간 증대되는 효과외에는 실효가 없으므로, 이곳의 주칸을 줄여서 사용한다는 착상은 평면계획에서 긴요한 맥을 잡은 것이 된다.

가등의 규격은 7치각으로 사각기등을 사용하였으며 대청의 전면기등 1개소와 누마루의 좌측열 3개소에는 직경 1자의 원기등을 사용하였다. 이점은 기등형태의 선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를 주는 수법이며, 도시의 주택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시골의 주택에서 자주 선호되는 기법이다. 실제로 직경1자의 원목으로 만들어지는 사각기등은 7치각이 된다는 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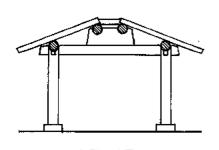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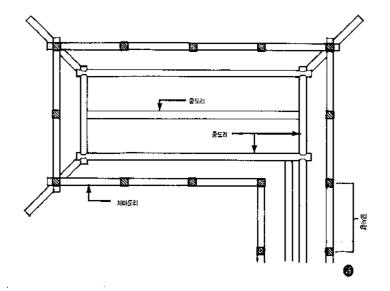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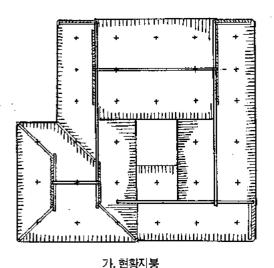
나. 3분 변작 5량 구조



라. 평 4량 구조



- 사랑채 누마루 지붕구조 서까래 사이로 산자가 노출되었다. 토벽이나 희벽으로 바르지 않아 산자가노출되는 이런 형식을 건새집이라 한다.
- 🚯 목구조의 종류
- 🚯 평 4량이 사용되는 예
- ❶ 지붕구성 개념도



나, 추녀 시용한 지붕

벽체가 없는 대청부위에 원가둥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랑채 누마루의 뒷편으로 반칸을 구획하여 벽장과 같은 감실을 구성하고, 감실내에는 후벽의 상부에 선반을 매어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감실에 설치된 두짝의 문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거미를 짜고 널판을 끼운 판문이고, 그 상부로는 격자살을 구성하여 사당의 창호에 사용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택의 일반적인 창호와는 격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랑채 누마루는 사당으로도 사용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조선중기 이후로 충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으로 집안에 사당을 건립하도록 장려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사대부는 3칸의 사당을 표준으로 하고, 여의치 못하면 1칸의 사당으로, 평민들은 가옥내의 정결한 곳을 선택하여 사당을 마련하게 된다. 결국 오류정 종택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당을 건립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크게 고려할 바는 아니지만 그와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점과, 독립된 사당이 아닌 주택에 부속된 사당의 예로는 남아있는 것이 흔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구조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대청부에는 팔각형 도리 (직경8치)를 사용하고, 주두와 소로를 사용한 소로수장을 하였고, 삼량구조에 홑쳐마로 하여 서까래는 직경 5치에 길이 12자 정도가 되는 장연을 사용하였다. 도시의 주택이라면 5량구조를 사용하여 부재의 규격을 경제적으로 하였을 것이나 목재의 확보가 비교적 손쉬운 산간지방의 편리성을 취한 구조법이라 하겠다.

대청의 기둥높이는 11자반에, 마루높이 2자, 마루에서 장여 하부까지의 유효높이는 9자로 하여 비교적 높게 구성하였다. 대청이외의 곳에는 6차×6.5차각의 납도리를 사용하고, 기둥높이는 9자반 내외로 하여 격식을 낮추었다. 사랑채는 돌출된 부위만 굴도리에 소로수장을 하였고 반대편은 행각과 같은 양식으로 처리하였다.

처마깊이는 4자에 서까래 물매는 4치물매로 구성하였고, 스판 15자의 대들보는 300×310mm를 사용하여 보춤은 스판의 1/15 정도가 되어 세장한 느낌이 있으나 보의 폭이 여유가 있어 상쇄시키고 있다.

# 패러다임(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특성(4)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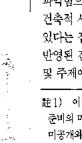
吉成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프랜, 공학박사 by Kil, Soung-Ho

- 1. 페리다임 (Paradigm)과 건축적 사고유형
- 2.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1)
- 3.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 (2)
- 4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특성
- 5. 박물관·기념관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분석
- 6. 공공청사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 분석
- 7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디자인 접근 태도의 전망
- 4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한국설계 경기 작품의 특성
- 1. 분석 대상으로서의 설계 경기 작품

설계경기(design competition)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설계안을 제시한 신인 건축가의 등용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건축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건축의 짧은 역사를 살펴보아도 역사적으로 설계경기를 통하여 문제작가가 나오고 그 시대의 건축문화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대 건축(modern architecture)의 시발점이라 일컬어지는 팍스톤경의 수정궁을 비롯하여 에펠탑, 베르라헤의 암스테르답 증권거래소 등이 설계 경기를 통하여 그 시대에

- 4 IJ N전우탐건립 설계경기 배치도

❶ U:N전우탑건립 설계경기 (1952년 : 이광노 당선)투시도



건축가의 다양한 접근과 작품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해방 이후 실시된 설계경기는 여러가지 제한된 문제점<sup>추1)</sup>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국 건축문화의 발전을 가늠하는 활력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설계경기작품을 통해서 한 시대의 건축문화에 개념적 또는 양식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발전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이 설계경기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르 꼬르뷔제의

해비타트(habitat)계획안, 뷔리오 리벨의 보스턴

등도 그 시대의 선도적인 건축가의 탄생과 새로운

동일한 건축적 주제와 문제 해결의 조 건속에서

시청사, 노만 포스터와 리챠드 로져스의 풍피두 센터

웃존의 시트니 오페라하우스, 모세 샤프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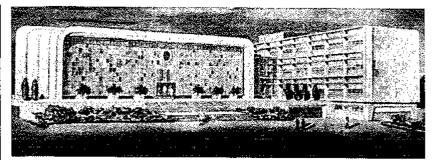
건축적 흐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설계경기작품에는 건축가의 건축적 가치 개념과 설계의도가 비교적 제약없이 표출될 수 있으며,

UN본부, 알바알토의 서독 볼후스버그 문화센터, 요른

다양한 건축적 사고의 모습과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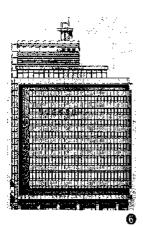
첫째, 설계경기 작품에 나타난 건축적사고의 유형을 지난호에 언급한 바 있는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파악함으로써, 한국 현대건축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축적 사고유형을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이해는 작품 속에 반영된 건축가들의 시대별 건축적 가치와 디자인개념 및 주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註 1) - 이러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주최자측의 완벽한 프로그램 준비의 미비라는 지침서상의 문제점,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의 미공개와 부적질한 심사 방식의 문제점, 공모기간, 보상비용 저작권, 제출도서, 본설계 참여권 등 시행상의 문제점들로 지적할 수 있다.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설계경기작품을 건축적 사고의 시각에서 이해함으로써 사고유형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디자인 원리, 방법, 요소 등이 한국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진 작품 속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적 고찰은 이미 한국 건축가의 디자인 언어와 개념을 형태론적, 공간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 은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패러디임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인지-행태적 속성을 디자인 창작과정에서 중요한 디지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건축적 사고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작품의 구체적 분석에 앞서 설계경기가 시행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설계경기작품<sup>주2)</sup>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건축적 사고의 한 단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보겠다.

#### 2.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시대적 특성

1) 해방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설계 경기 작품(1945~1959)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건축계는 일제에 의한 문화적 단절과 정치적 혼란으로 10여년간 뚜렷한 건축활동을 갖지 못하였다. 단지 이 시기의

- 서울특별시 의사당 신축설계경기 (1955년 : 이광노 당선)
- 우남회관 설계경기 (1956년 :종합건축당선)
- 남산 국회의당 설계도안 현상공모 (1968년당선 : 김수근의 4인)
- 유네스코회관 설계경기 (1959년 : 가작 배기청안)

건축가들은 새로운 시대가 부여하는 역할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이 당시 시행된 일련의 설계경기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문제외식과 관심을 보여주게 되었다. 해방이후 최초의 설계경기는 주거분야의 국민주택 설계도안의 현상공모로 <sup>주3)</sup>1945년 11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비주거 분야에서의 설계경기는 1947년 10월에 민간에서 시행한 서울만물전의 설계 공모에서 시작되었다. 이 공모전에서 입상한 김태식(1등). 강명구外(2등) 이희태外(3등) 등의 작품은 모두 공통적으로 합리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이어서 대구시청사(49년 3월), UN참전 기념탑(52년 4월), 국군충혼탑(52년), 경주 국립묘지건설 지명현상설계(52년 11월), 공군본부청사(52년 4월) 남대문교회(54년) 이화여대강당(55년), 서울시의사당(55년 9월) 산업은행(56년 3월). 우남회관(56년 3월), 전국 체신부청사(58년 3월), 경북도청사(58년), 남산 국회의사당 설계도안(59년), 대법원청사 및 원장공광(59년 6월), 유네스코회관(59년)등 다수의 건물에 대한 설계경기가 이 시기에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시민회관(2개), 공공청사(5개), 사무소(3개), 조형물(기념탑)(2개), 교회(1개) 등의 건물유형이 설계경기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주로 공공청사, 시민회관, 개념탑 등과 같이 기능성과 상징성이 요구되는 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50년대 전반기의 작품인 공군본부청사, 남대문교회 등은 근대적인 공간개념을 건축의 공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천승씨가 설계한 우남회관(구시민회관)은 유리와 콘크리트의 매스에 의한 대비와 표파의 재질의 변화를 커튼월의 효과로 나타내고자 한 국제주의 양식의 모습을 <sup>주4)</sup>보여 준다. 국군충혼탑과 UN전우탑 (이팡노 당선)은 과거의 인습과 양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반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명쾌한 조형을 취하고 있으나 배치형식이나 옥외공간 구성 개념에서 한국적인 공간체험의식을 강화시켜주는 디자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59년에 실시된 국회의사당 현상설계는 한국 건축계에 새로운 자성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당선작 (김수근외 4인)은 합리주의적인 기능주의 건축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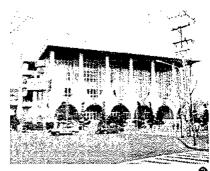
50년대 후반기에 들어 근대건축의 성립요건이

註2) 이에 대해서는 정인국 (현대건축론 1977),윤일주 (양식건축 80년사 1970),

김경수 (한국 현대건축의 미직 특성에 관한 연구1989)등 한국 현대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것

註 3) 현상모집안은 제1종 15평, 제2종 20평, 제3종 25명으로 하여 홍 86점을 모집 심사하였으며, 1층 15평형에는 천호철 (1등), 김희춘 (2등), 이희태 (3등), 2종 20평형에는 이종원 (1등), 김희춘 (2등), 조남수 (3등), 3종 25평형에는 김희춘 (1등), 친호철 (2등), 이희태 (3등) 등이 입상하였다. (대한건축학회 40년사: 1985, P38)

註4) 정신여고 과학관 (김정수 설계: 1957년), 영동성모병원 (설계1958년)은 같은 효과를 보여준다. 국제극장 (김중업 설계: 1958년)은 R.C.에 의한 조형의 가능성 타진을 보여주며 서강대 본관 (김중업 설계: 1958년)은 쿠비와 곡면에 의한 표면과 입면의 변화를 보여준다. (건축사 20년사 P216)









정착되어감에 따라 본격적인 건축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몇몇의 건축가들에 의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 예술로서의 건축을 연출하려는 노력이 기능주의적 사고와 함께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관공서 건물과 학교건축이 활발히 건축되면서 무비판적 국제주의 양식의 도입을 보여준다.

50년대의 건축계에서 주도적 활동을 한 건축가들은 이미 설계경기를 통해 많은 건축적 방향제시를 해왔다. 그러나 이 시기의 건축가들의 건축적 사고 성향은 역사적 실중주의적인 패러다임의 영역에 속하는 기능적 사고유형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천승, 김정수, 이광노교수 등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강명구, 이희태, 엄덕문, 김중업, 정인국, 장기인, 배기형, 안영배, 김정철, 강성진, 송종석, 홍순오, 감수근, 박춘영, 이상순 등이설계경기에 입상하면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인다.

#### 2) 1960년대의 설계 경기 작품(1960~ 1969)

3공화국의 탄생(1963년)과 더불어 정치적인 자각외식에 의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표방, 건설기술 발전에 의한 경제적 자립성의 확보가 추진되면서 사회적으로 민족적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재평가와 계승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건축계는 민족적, 지역적 특성을 표현수단의 근거로 한 건축적 표현을 탐구하기 시작하게 되며, 특히 새로운 시대의 각성을 통한 자주적인 신진 건축가들이 설계 경기를 통해 작품의 다양성과 건축을 위한 기초작업에 기여하게 된다. 이 사기에는 작은 규모의 다양한 건물들이 등장하며, 서강대학, 프랑스대사관(김중업 설계), 자유센터, 워커힐 힐답바(김수근 설계) 등의 노출 콘크리트를 이용한 강한 조형적 건축과 YMCA건물(김정수 설계), 조흥은행(이천승,정인국 설계)등에 의한 기능적 국제주의 성격의 건물이 병존하게 된다.

이 시기에 있었던 비 주거용 건물의 설계경기는 4.19기념탑 현상설계(60년)를 시발점으로 부산

- ✔ 부산시민회관 (1962년 : 신옥강+이광노)
- ⑤ 부산 민중역사 설계경기 (1963년 : 이광노 당선)
- 중앙청 동별관 및 관이지구 계획 설계경기 (1983년 : 야광노 당선)
- ♠ 서울 남산 시립도서관 설계경기 (1963년 : 이해성 +박학재 당선)

시민회관(62년), 중앙청 동별관 건축설계 및 관아지구계획안 (63년5월), 남산 시립도서관(63년), 부산 민중역사(63년), 건설센터(63년), 제일은행 청계지점(64년), 반도조선 아케이드(64년), 국립 중앙박물관(66년 2월)정부종합청사(67년 3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신축계획 설계안(68년 8월), 부산시청사(68년 6월), 한전본사 사옥(69년 6월), 중앙복음교회(69년) 동이 있다. 이 시기에는 박물관(1개), 시민도서관(1개), 시민회관(1개) 등에 대한 설계경기가 새로 시행되었고, 공공청사(3개)와 사무소(3개)건축 등은 계속 취급되고 있다. 여전히 공공청사와 사무소 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기념성 진물인 박물관과 공공시설인 도서관건축이 설계경기 대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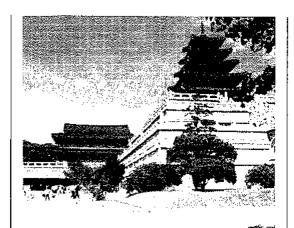
60년대 전반기의 작품들은 이념이나 기법이 정리되고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효과적인 조형성과 작가의식의 확립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남산 시립도서판(박학재+이해성 당선)은 당시의 국제주의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재료의 변화를 가머하였다. 부산 민중역사 (이광노 당선)는 역사로서의 새로운 기능과 외관 프라자 계획에서 새로운 조형적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사기는 전통성 논외와 함께 건축적 사고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의 조집을 보여준다. 유형학적 사고에 의한 디자인 접근이 시도되지만 직설적 모방이나 변형이라는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60년 후반기에는 규모가 커진 대형건물이 출현하게 되며, 다양화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전통적인 표현의 요구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국립 중앙박물관(강봉진 당선)은 고건축의 변형, 모방이라는 설계지침에 순응함으로써 전통 계승방안에 대한 시비를 야기하였으며, 당선작없이 설계용역의 시비를 야기한 정부종합청사는 외국인 실시설계에 의한 슬립품(slip-form)공법으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건물의 대형화 추세를 촉발시켰다.

여의도 개발계획(68년)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회의사당은 당선작 없는 우수작 선정과 저작권 불인정 등의 문제를 야기해 설계경기를 불신케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실시 설계안은 한국 고유미를 지닌 현대적인 석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능이 애매한 돔(dome) 지붕과 처마의 모티브, 기둥처리, 전통적 외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설계경기 당시 우수작으로 선정된 안영배안은 전통적인 배치기법에 의한 회랑의 형성과 저충의 형태구성으로 자연지형에 순응하려는 순응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산시청사(신옥강 당선)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설계경기였으나 단순한 기능적 해결에 조형성이 가미된 평범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응모안들을 공통적으로 당시의 형태 주외적인 외국의 건축사조의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건축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건축가는 전통적인 공간의식을 디자인 개념으로 활용하려는 외도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60년대는 전반기의 조형적 자각외식과 전통성 추구의 문제로 다양한 건축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후반기의 건축의 대형화, 고층화 현상과 도시개발계획 등은 도시속의 건축에 대한 배려와 함께 설계조직의 대형화를 촉진시키고 건축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설계경기에서는 이광노 교수의 활동이 두드지며. 신옥강, 이해성, 강복진, 엄덕문,이승우,나상진. 안영배, 최창규,홍순인,김정철 등이 설계경기에서 입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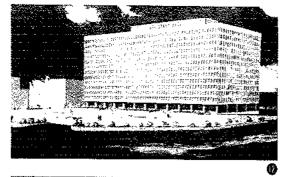
#### 3) 1970년대의 설계 경기 작품(1970~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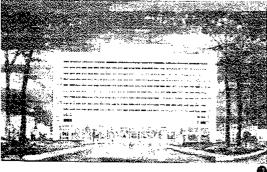
1970년대의 건축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60년대보다 다양해지고 근대 및 현대건축적인 양상과 전통을 수용하려는 절충적인 양상과 전통을 수용하려는 절충적인 양상이 공존하면서 현대건축의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되어가는 계기가 된다. 특히, 문화적 성격의 대형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둘러싸고 전통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지며, 이희태, 엄덕문, 김인석 등 전통성향의 건축가들은 진통적인 문양, 난간, 창호, 지붕 등의 도입과 변형을 통해 한국적인 조형언어를 제시한다. 국립극장(1971년:이회태 설계), 세종문화회관 (1973년:엄덕문 설계), 경주박물관(1975년:이화대 설계), 부산 시립박물관(1976년:이희태 설계), 어린이희관 문화판(1976년:김인석 설계) 등은 형태 의장적 측면에서 전통성을 탐구한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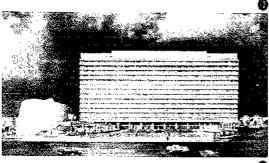
또한 이 시기는 대학교 마스터 플랜에 대한 관심(1972년:서울대 캠퍼스 플랜)과 건축의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건축의 외무공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도로, 길 등의 교통공간과 보행공간을 계획에 고려하기 시작한다. 도심 사무소 건축은 고층화와 함께 커튼월, 타일 P.C. 패널(panel) 등을 사용하여 매스와 형태적 표현을 꾀하고 있으며, 공간사옥(1971년:김수군 설계), 출판문화회관(1975년:홍순연 설계) 등에 사용된 전돌과 붉은 벽돌이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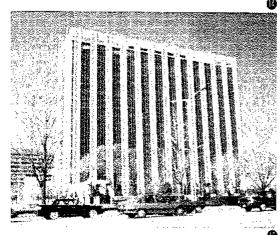
이 시기에 시행된 설계경기 작품으로는 정동제일감리교회(70년 6월), 인천시립실내체육관 (70년),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70년), KBS방송청사(73년 10월), 시민문화회관 (현 세종문화회관:73년 2월), 한국외환은행 본점 (73년 4월), 한국도로공사 사옥(74년),

- 국립중앙 박물관 설계경기 (1963년 : 강봉진 당선)
- 정부종합상사 설계경기 (1967년)가작 : 이승우안
- 정부종합상사 설계경기 (1967년)가작 : 엄덕문안
- 정부종합상사 설계경기 (1967년)가작 : 나상진안
- 정부종합상사 설계경기 (1967년)실시안 (P.A.E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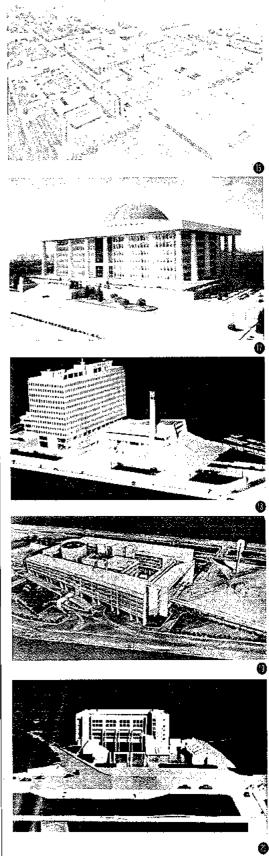






한국산업은행 본점(74년 12월), 서울시 종합청사건립계획(75년 2월), 한국은행본점 기본계획(75년)한국증권거래소 신축건물 기본설계안(75년 9월), 전북 예술회관(76년), 남서울 주경기장(77년 2월), 한국종합 전시장(77년). 한국전력 본사사옥(77년),제2정부종합청사(78년 7월)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시행된 설계경기 작품의 종류가 다양화 되고 대형화 되어가며, 많은 응모인들이 여러 건축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관(1개), 문화회관(2개), 공공청사(2개), 사무소(6개),방송청사(1개),체육관(1개), 교회(2개) 등이 시행되었고 특히 사무소 건축이 증가되고 있다.

70년대 전반기의 시민문화회관(엄덕문 당선), KBS방송청사(당선작 없음), 외환은행 본점(김정철



당선)의 현상설계는 대규모 설계조직을 갖춘 설계사무소에 의해 다양한 건축을 탐구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전통의 현대화 작업의 결정적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민문화회관은 배차계획에 있어서 전통적인 중정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장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처마, 회랑, 기단, 문양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도입하려고 한 의도를 보여준다. 많은 응모안들은 기능해석은 비슷한

- 여의도 국회의사당 설계경기 (1968년)우수작 : 안영배+ 조창한안
- ⊕ 여의도 국회의사당 설계경기 (1968년)실시안
- (8) 부산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당선작 : 신옥강
- (B) 부산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응모안 : 윤승종의
- 부산시청사 설계경기 (1968년)응모안 : 유걸안

반면, 도시적 차원에서 전면 외부광장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수법과 형태 및 외관의 표현을 위한 다양한 건축적 사고의 특징을 보여준다. 당선작없는 KBS방송청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지침의 문제로 상이한 기능해석과 다양한 건축적 해결을 보여주고 있으나 매우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본점 (원정수 당선)은 고전적인 한국은행 본관과의 조화라는 문제를 도시적 맥락에서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제시하여 기능주의적인 응모안들과는 다른 건축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기능해석의 다양한 모습은 보여주었던 증권거래소(이승우 당선)의 경우 당선안보다 이호진,윤숭충 등의 응모안들이 새로운 공간과 기능해석의 참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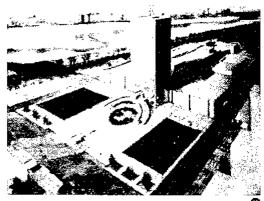
70년대 후반기의 작품인 남서울 주경기장(김수근 당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구조 개념을 벗어나 구조미를 건축적으로 조형화 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종합전시장(김정식 당선)은 전통적인 공간 및 형태개념을 현대적인 구조공법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실현시키고자 함으로써 새로운 건축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2정부종합청사(엄·이건축 당선)는 건물의 배치와 공간해석에 있어서 한국적인 배치개념과 자연지형에 순응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응모안들은 고층화된 건물군에 의한 조형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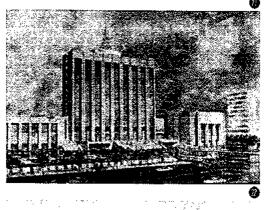
전반적으로 70년대는 후반기에 들어와 기능적 해결이라는 제한된 들에서 탈피하여 건축가의 자의식에 의한 건출탐구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며, 설계경기 작품의 응모안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특성들은 건축가들의 서로 상이한 건축적 사고에 의한 접근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50・60년대의 기능적사고가 70년대초기 이후에는 퇴조하며,기하학적 사고와 유형학적 사고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기능적 사고는 단순한 기능성의 차원을 넘어 외부공간과 도시적 맥락, 전통성의 도입 등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설계경기에는 김광문, 전동훈, 차경순, 박훈명, 송기덕, 장종진, 엄덕문, 나상기, 홍인순, 안영배, 고주석, 유화준, 김정철, 김수근, 최상식, 송민구, 김희춘, 김정식, 자순, 원정수, 이승우, 최창규 등이 입상하게 되며, 50년대와 60년대에 활동한 기성 건축가와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주며 건축 디자인에의 새로운 개념과 접근을 제시한 신진 건축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4) 1980년대의 설계 경기 작품 (1980 - 1989)

1980년대는 초기의 정치적 혼란 탓으로 건축활동은 한동안 침제되었으나. 86, 88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시설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체육, 문화, 집회 등 올림픽을 위한 대형 부대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활발해진다. 이미 70년대부터 다져진 건축설계의 기반이 80년대는 급성장 하면서 건축 디장인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작품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단순한 매스에 과감한 도형의 코어를 사용하고, 평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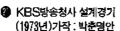






분산시켜 다양한 매스의 중첩에 의한 변화를 꾀하거나 탈근대적인 시각적 효과를 위한 곡면의 사용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것에서 일탈하려는 건축가의 내면의 추구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어져 다양한 건축어휘의 사용으로 번져간다. 건축의 내직질서의 추구와 이의 적절한 표현의 탐구, 과감한 형태나 색채의 구사, 소규모 사무소, 종교건축에서의 공간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의 모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종류의 건물이 설계경기를 통해 계획되어지며, 질적으로도 수준이 향상된 작품과 다양한 건축적 사고를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강당 현상설계(80년)를 시발점으로 국제경제연구원 청사(80년 5월), 새마을 교통화관(81년), 경남도청사(81년 4월), 전주시청사(81년 8월), 중소기업은행 및 마포함숙소(81년), 경남 문화예술회관(82년 1월)목포시청사(82년 1월), 부산 시립문화회관(82년 1월), 한국 상업은행본점(82년), 한미수교 100주년기념비(82년), 인천직할시 청사(82년 7월), 국립 중앙도서관(82년10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건물(82년 8월), 을지로 2가구역 재개발사업 건축계획(83년 3월), 서울법원 종합청사



(1973년)가작: 송기덕안

(4) KBS방송청사 설계경기 (1973년)가작 : 장종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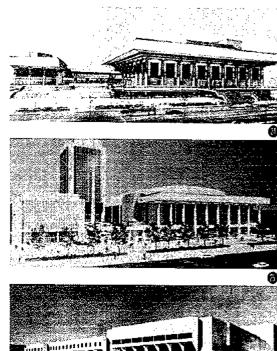
★ 서울시민회관 (현 세종문화 회관) 설계경기 (197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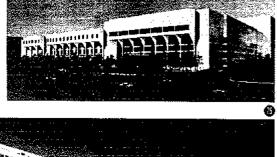
당선작 : 엄덕문안 서울시민회관 (현 세종문화 회관) 설계경기 (1973년)

준우수상: 나상기안 서울시민회관(현 세종문화 회관)

설계경기 (1973년) 장려상 : 고주석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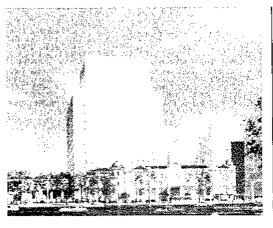
한국 중권거래소 설계경기 (1975년 : 이승우 당선)







(83년 2월), 건축사협회 신축회관(83년 6월). 독립기념관 및 독립공원 기본계획(83년 7월), 서울대 실내체육관(84년 5월), 서울대 박물관(84년) 연합통신사 사옥 (84년 2월), 한국은행본점, 재현상설계 (84년), 예술의 전당 국제현상설계 (84년 4월), 88서울 올림픽공원 조형물 (84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84년 11월), 한국종합무역센터 국제현상설계(84년 11월), 울산 시민회관(84년). 국제방송센터 (IBC)국제현상설계 (85년 5월). 전남 체신청 및 직영우체국 공모안(85년), 한밭도서관 (85년 7월), 수원 문화예술회관(85년). 군산시민종합회관(85년), 부산올림픽 기념 조형물 (85년), 전매청 전시관(85년 10월), 영광 원자력 전시관(85년 10월), 창원 시민문화회관(85년 12월). 부산 상공회의소(86년 1월), 건국대 상허기념 도서관 (86년 2월),여수시청사(86년), 한강 종합개발기념 조형물 (86년), 농협 양곡도매시장 (86년), 수원시청사 (86년), 논현동 천주교회(86년), 부산 문화방송사옥 (86년 12월), 아파트형 공장(87년)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 (87년 10월), 목동 실내방상경기장 (87년 10월), 공공도서관 건축계획(88년), 신한은행지점 신축예정건물 기본형 (88년 6월), 인천 종합문화회관





- 한국은행 본점 별관 설계경기 (1975년 : 1984년) 당선작 : 원정수
- ★ 한국은행 본점 별관 설계경기 (1975년 : 1984년)실시안
- 한국종합전시장 설계경기 (1977년 : 김정철 당선)
- 전주시청사 설계경기 (1981년) 당선안 : 김기웅
- 전주시청사 설계경기(1981년)실시안
- ❸ 경남 (진주)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공모 (1982년 : 김중업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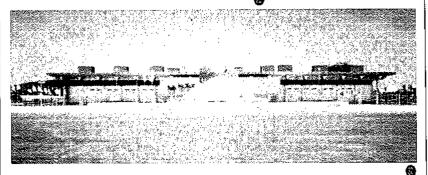
(88년 7월),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88년 8월). 마산 지방법원청사(88년), 부산 건축사회관(88년), 부산 금정구청사(88년), 광주 건축사회관(88년). 한국방송회관(88년), 일본국 F시주재 총영사관 (88년), 부산 중구청사(88년), 사회체육센터(89년 2월), 강남빌딩(89년 2월), 목동도서관(89년 3월), 헌법재판소 청사(89년 5월), 노원구청사(89년), 송피구청사(89년), 인천 상공구청사 (89년),송파구청사(89년), 인천 상공회의소 남동자소 (89년), 한국전기통신공사 광주연수원 분원 (89년). 한신대학 중앙도서관(89년), 양천구청사(89년 9월), 인천 의회청사(89년 9월), 국립 대구박물관(89년 9월), 전쟁기념관(89년), 대법원청사(89년 11월), 부여박물관(89년) 등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박물관 및 기념관(7개), 도서관(7개), 시민 및 문화회관(9개)의 동 공공 문화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공공청사(17개), 사무소(20개), 조형물(3개), 방송센터(2개), 체육관(3개) 등 대형건물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공공청사와 사무소건물 뿐만 아니라 시민 문화회관,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학교, 은행, 조형물, 대규모 복합건물, 체육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건물들이 설계경기를 통해 다루어졌으며, 그 작품수는 그 이전 시기의 모든 것을 능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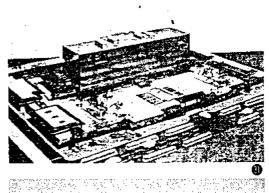
80년대 전반기에 시행된 경남도청사(송기덕 당선), 목포시청사(김기웅 당선)등은 기능주의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주시청사(김기웅 당선), 인천시청사(김창수 당선)등은 단순한 기능의 해석을 넘어 형태 및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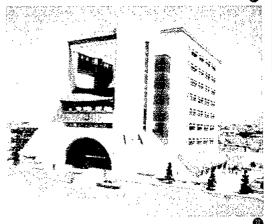
건축적 사고의 다양한 모습들은 기능적 작품과 장식적 성향의 작품의 경합을 보여준 국립 중앙도서판 위형복 당선, 서울법원 종합청사(김수근 당선), 전통과 현대라는 양립된 요소의 조화에서 다시 전통의 논의를 야기한 독립기념판(김기웅 당선), 예술의 전당 (김석철 당선), 한발도서판(장석웅 당선) 등 당시 건축계의 판심이 되었던 당선작과 입상작 및 응모안 등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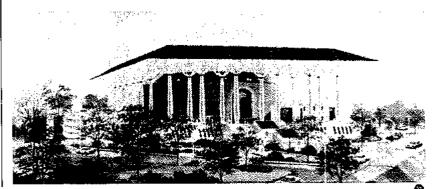
이들의 작품은 종래의 의장적 요소에 의한 형태적인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공간론적, 상징론적, 체험구조적인 개념을 중시하는 전통해석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의 해석을 통해 다양한 건축적 공간과 형태의 표현을 시도하였다.

80년대 후반기에 서행된 설계경기 작품 중에서 인천 종합 문화회관(장석웅 당선), 건국대 상허기념 도서관









(장석웅 당선), 은 당선작을 포함하여 많은 용모안들이 종래의 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나 세로운 시각에서의 문제해결을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근에 시행된 대구박물관(장세양 당선), 전쟁기념관 (곽홍건화 당선), 대법원 청사(윤승중 당선), 부여박물관(한규봉 당선) 등은 한국 건축계의 건축적 사고의 모습들이 집약된 전시장과 같은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들 작품은 과거 반세기 동안의 한국 현대건축의 결실이며 건축적 사고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러한 많은 작품을 통해 제시되어짐으로써 건축계의 발전에 신선한 충격을 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신진 건축가들이 실계경기를 통해 대거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해방 이후·초창기부터 활동한 원로 건축가들의 활동은 미약하다. 장석웅, 이승우, 최관영, 송기덕, 김기웅, 임장열, 김무영, 강석원, 김창수, 위형복, 김원, 한종언, 송광섭, 이영희, 정길협, 김자호, 장종률, 이상수, 이각표, 이용흠, 오기수, 조현군, 승효상, 장세양 등의 신진 건축가들이 다수 입상하게 되며 김중업, 김수근, 김정철, 최창규, 정인국 등의 일부 원로 건축가들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당선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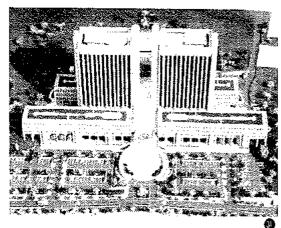
이상에서 고찰한 설계 경기작품을 용도와 유사성격에 따라 건물유형별로 분류하여 시대별로 정리하면  $\langle$  표 $4-1\rangle$ 과 같다.

#### 3 작품에 내재한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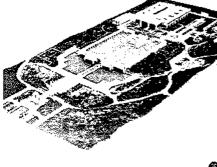
해방 이후 시행된 설계경기 작품을 시대별로 고찰하여 보면 시대적 호름속에서 작품의 경향과 건축적 사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1950년대는 주로 역사적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따르는 기능적 사고유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전통성 논의와 함께 건축적 사고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기능적 사고유형에 의한 작품이 줄어들고 유형학적 사고유형의 작품이 다수 출현하기 시작한다. 1980년대에는 건축적 사고유형은 다양성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조형과 디자인 원리, 요소의 수용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큰 호름의 테두리에서 불 때, 우리나라 설계경기의 작품은 여전히 기능적 사고유형에 치중된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주도적이었다가 80년대에는 미약해지고 있으나, 박물판 건축과 공공청사 건축작품에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기능적 사고유형에 바탕을 둔 디자인원리를 보여주는 당선작으로는 대구박물관(공간안), 부여박물관(천일안), 부산시청사(신옥강안), 대범원창사(원도시안) 등이 있으며, 입상작과 응모안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기능적 사고의 실체는 단순한 기계적, 윤리적인 윤리성보다는 자연과 건축의 유기적 조화라는 개념과 내,외부공간의 상호 관업적 체험이라는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유기적 기능개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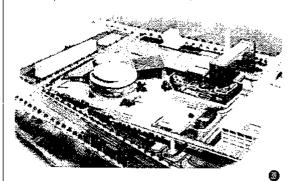












4 서울 법원 종합청사 설계경기 (1983년 : 김수근 당선)

⑤ 독립기념관 기본계획 설계경기(1983년)당선 : 김기웅 안

독립기념관 기본계획 설계경기(1983년)2등: 정길협 안

♣ 독립기념관 기본계획 설계경기 (1983년)3등 : 김형만 안

☞ 독립기념환 기본계획 설계경기 (1983년)가작 : 정인국 안

③ 국내방송센타 국제현상설계 (1985년 : 김중업 당선)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자연의 중시와 이로부터 건축적 질서를 얻고자 한 전통적 사고관은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기능적 사고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의 경우, 전시공간이 지니는 기능성과 체험적속성으로

인해 이 기능적 사고는 자연 — 인간 — 공간의 일체라는 의도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시청사건축은 기능의 경제적 해결과 간결한 평면구성의 논리가 강조되며 근대건축의 기능적 사고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대적인 이미지를 추구한 형태와 외관구성에서도 나타난다. 이 기능적 사고는 60,70년대의 경직된 틀에서 탈피하여 80년대에는 절제된 전통의 수용, 맥락의 폭넓은 해석과 역사 참조의 태도를 보여주며 그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설계경기작품에 나타나는 두번째의 사고유형은

유형학적 사고이다. 이것은 아직도 한국의 건축가들이 작품의 창작과정에 있어 전통과 그 역사적 개념, 구성원리, 요소나 방법 등에 집착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유형학적 사고에 속하는 당선작으로는 독립기념관(삼정안), 인천시청사(삼우안), 국립중앙도서관(연회안), 한받도서관(아도무안), 상허기념도서관(아도무안), 서울시민희관(엄덕문안), 부산문화회관(유중종합안), 인천문화회관(아도무안) 등이 있으며, 주로 도서관과 문화회관 건축에서 발견된다.

기능성이 요구되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기능적 사고보다 유형학적 사고가 더 작용하는 것은 주로 평면기능보다 외관 이미지에서 상징적, 조형적 효과를 의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도서관의 배치형식과 평면형식은 전형화된 반면, 외관은 여러 건축적 사고에 의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회관의 경우는 전통성 표현의 요구가 이에 부합된다. 따라서 이 두 건물 유형은 배치형식, 평면 및 공간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에 의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제시가 미흡하다. 시대적으로 볼때 유형적 사고는 60년대의 국립중앙박물관(당선작)에서는 전통요소의 모방과 목제에 의해 부산시청사 (유건안)에서는 중정이라는 물리적 구성개념의 형식의 변형을 통해 전통 표현을 시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상징적 의미부여에 의한 연상과 유추에 의해 전통의 의미론적 해석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설계경기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고유형은 기하학적 사고유형이다. 이 사고유형에 의한 당선작으로는 서울법원(공간안)을 들 수 있으며, 많은 입상작과 응모안들에서도 동일한 사고의 모습을 발견할 수있다. 기하학적 사고논리는 주로 강한 상징성과 조형성이 요구되는 박물관과 기념관 건축 및 시청사와 법원청사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상당수가 미리 설정된 개념적 형식틀에 기능을 수용하고자 집착함으로써 전통표현의지의 결여, 건축과 옥외공간의 관계미비, 맥락의 제한된 해석 등을 보여준다. 도서관과 시민회관 건축은 강한 유형학적 사고에 외한 탓으로 기하학적 사고의 모습은 미바하게 발견된다. 따라서, 기능적 사고, 유형학적 사고, 기하학적 사고의 논리가 박물관, 기념관, 시청사 건축에서 서로 강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시대적으로는 60년대의 조형적 표현이 강조된 시기와 80년대의 형태론적 표현의 시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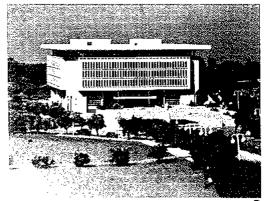
구조 - 재료지향적 사고유형에 기초한 당선작은 없으며, 입상작과 응모안수도 상당히 적어 한국 건축가들에게 이 사고논리에 의한 건축적 접근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부산시청사(김석철안), 제 2정부 종합청사(우수작 박춘명안), 독립기념관(가작 정인국안) 등은 기술의 가능성과 구조, 재료, 공간, 형태의 일체화라는 통합된 개념에 의한 구조적 건축의 전개보다는 외형적인 효과에 치중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 투명성 공간과 자연에의 통화라는 개념을 보여주는 정인국안에서만 제시되어지고 있다. 심상적 사고유형은 환상적 형태 이미지와 도상학적

〈表4-1, 時代別, 建物類型別 設計競技 作品〉

	1950~1959	1960~1669	1970~1979	1980~1989
기념관			한국종합전시장 (77)	독립기념관(83). 영광원자력전시관(8
+전시판				전매청 전시관(85), 전쟁기념관(89)
박물관		국립종합박물관(66)		서울대박물관(84).대구박물관(89)
				부여박물관(89)
				국립중앙(82), 한발(85), 상허(88)
도서관		남산시립도서관(63)		계명대 (88), 목동 (89)
				한신대 중앙(89) 도서관
<u> </u>				서울대강당(80), 부산문화희관(82)
시민회관	이화여대강당(55)	무산시민화관(63)	시민화관(73)   시민화관(73)	경남문화예술회관(82),예술의 전당(8
	시민 (우남) 회관(57)		전북예술회판(76) <u>[</u>	을 울산시민문화(84), 수원문화회관(85)
				창원시민회관(85), 군산시민종합회관(
				인천종합문화회관(88)
대구시청사(49) 공군본부청사(54) 서울시 의사당(55) 대법원 청사(59) 국회의사당(59)				경남도청사(81), 전주시청사(81)
	대구시청사(49)	[구셔청사(49) 중앙청 병관(63)		목포시청사(82), 인천사청사(82)
		부산 민중역사(63)	서울시 종합청사(75) 제2정부종합청사(78)	서울법원(83).여수시청사(86)
		정부종합청사(67)		수원시청사(86),부산급정구청사(88)
	국회의사당(68)	11201 9 8 0 1 (10)	- - 마산지방법원청사(88), 부산궁구청사(	
	I	부산시청사(68)		인천시의회청사(89), 양천구청사(89)
		1 2 1 2 1 1 1 1 1 2 1		대범원 (89), 노원, 송파구청사 (89)
				헌법제판소(89)
사을 만물점(45) 산업은행(56) 유네스코회관(59)			·	세마을교통화판(80)
			중소기업 마포연수소(81)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82)
		의환은행(73)	서울건축사회관(83),산업은행본점(83	
	   서울 만뭅점(45)	건설센터 (63) 세일은행 청계지점	기관선생(73) 도로공사(73) 산업은행(75)	연합통신사옥(84), 한국은행본점(84)
				한국여성개발원(84),무역센터(84)
	유네스코회관(59)	(63)		농협도메시장 (86), 부산상공회의소 (80
	, –	한전본사사옥 (69)	한국은행본점 (75)	한전기술연구원(87),신한은행(88)
			중권기래소 (75)	광주건축사회관(88), 한국방송최관(88
			한전본사사옥 (77)	F시 총영사관(88), 부산건축사회관(88
				전기통산공사 광주연수소(89)
			인천상공회의소 남동 (89), 강남빌딩 (8	
조형물	유엔 참전기념탑(52)			한미수교 100주년 (82), 서울88올림픽 (
	국군 충혼탐			. 부산 올림픽기념 조형물 (85)
				한강개발 조형물 (86)
방송센터		<del></del>	KBS방송청사(73)	국제방송센터(85),부산문화방송(86)
체육센터		<del> </del>	연천시립실내체육관	서울대체육관(84),목동실내병상(87)
			(70)	사회체육센터 (89)
대단지		<del> </del>		을지로2가 재개발(83)
<u> 기타</u>	남대문 교회(54)	중앙복음교회(69)	정동 교회(70)	논천동 친주교회 (86).APT형 공장(8
· 1 • • 7	Bull The MINE	0 0 7 0 22 24 (1)87	역의도순복음(70)	1.20 21204(00).70 18 0 8 0

형태 표현 및 심리적 강압효과를 주는 공간적 분위기 탓으로 설계경기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인천문화회관에서 배의 모양을 연상시키는 도상학적 암유에 의한 접근이 부분적으로 보여지고는 있으나 단지 형태적 외관에 국한되어 있어 심상적 사고유형에 의해 추구되는 공간적, 형태적, 체험적 특성을 보여주자 못하고 있다.

인자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은 1960년대부터 이미 설계경기 작품을 통해 간헐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아러한 사고유형에 기초한 접근이 점차 중시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사고유형은





- 🐠 건국대 상허기념 도서관 계확설계 설계경기 (1986년 : 장석웅 당선)
- ① 인천 종합문화회관 설계경기 (1988년 : 장석웅 당선)
- 국립대구박물관 설계경기 (1989년)당선작 : 장세양안 평면도
- ③ 국립대구박물관 설계경기 (1989년)당선작 : 장세양안 조감도
- 국립대구박물판 설계경기 (1989년)당선작 : 우수작 (삼정안)
- 국립대구박물관 설계경기 (1989년)당선작 : 우수작 (일건만)
- 전쟁기념관 건림 설계경기 (1989년 : 곽홍김+이성관 당선)
- 🚯 대법원 청사 설계공모 (1989년 : 윤승중 당선)
- 부여 박물관 설계경기 (1989년 : 한규봉 당선)

설계경기 작품에서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형태, 가능, 공간, 기술 등의 관점이 아니라 건축을 체험하는 인간의 체험속성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그 특징이며, 주로전통에 내재된 조형의식과 체험구조를 강화사켜 주기 위해 전통적 구성원리나. 요소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서 이러한 사고의 모습은 60년대의 부산시청사의 응모안 (윤승중안)에서 발견된다. 70년대에는 서울시민희관의 입상작(고주석안, 가전건축안) 에서 찾아볼 수 있고, 80년대에는 독립기념관의 입상자 (정길협안, 일건안), 한밭도서관의 입상작 (원도시안)과 상혀 기념도서관의 응모안 (정주건축안), 대구박물관의 입상작(삼정안, 일건안), 전쟁 기념관의 입상작(건원안, 창조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쟁기념관의 당선작은 인지 - 행태자향적 사고에 기초한 디자인 개념이 보다 풍부한 전통의 해석과 함께 건축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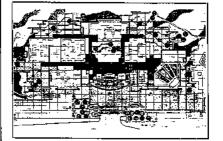
한국 설계경기의 작품에 반영된 건축기들의 사고유형의 특성은 전체적으로는 기능적 - 구조 · 재료지향적 - 기하학적 사고유형의 카테고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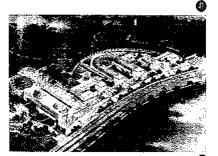
기하학적 - 유형학적 - 인지 · 행태지향적 사고유형의 카테고리로 대별되며, 기하학적 사고와 유형학적 사고는 그 중간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설계경기의 작품에는 "기능적 사고 - 기하학적 사고"와 "유형학적 사고 - 인지 · 행태적 사고"라는 건축적 사고의 유사속성군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건축을 내재적인 것에서 파악하여 그것을 내재적인 체험의 방식과 연결시키는 건축적 사고의 패러다임과 내재적인 것보다는 외재적 또는 심리적인것(이미지, 심상, 체험구조)에 기초하여 건축의 표현을 탐구하는 건축적 사고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대지에의 접속방식, 옥외공간구성의 전개, 축구성 방식, 평면구성의 방식, 이미지 표현방식 등에서 그 상이함이 존재함을 의미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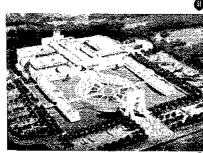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 설계경기 작품을 건축적 사고유행의 시각에서 이해함으로써 인지 - 형태지향적 사고에 의한 디자인 접근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는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건축가의 작품에 나타난 사고유형은 이미. 언급한 바처럼 기능적 사고유형과 유형학적 사고유형에 치중되어 있지만, 점차 인지 – 행태지향적 사고유행에 기초한 작품들이 심사 과정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과 다른 사고 유청에서도 인지 = 행태적 속성과 관련된 디자인 개념들이 최근의 현상설계 작품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적 사고유형의 변화는 현대의 건축적 사조를 반영해 주며, 궁극적으로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건축접근의 방법론적 시각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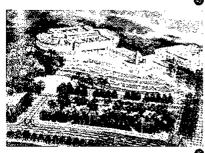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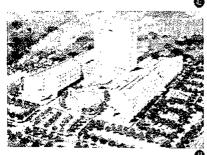












21 C 건축을 향하여

## 에밀리오 암바즈

Emilio Ambasz

OVERSEAS ARCHITECTURE

번역 / 이용재 Translation by Lee, Young - Jae

#### 에밀리오 암바즈의 건축세계

--- 마이클 소르킨 ---

전통적으로 새로운 건축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실천가들은 대개 두가지 전략증의 하나를 자신의 무기로 삼아왔다. 그 첫번째 전략은 곳곳에 사장되어 있는 건축의 가치들을 "재발견 rediscovery"해내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예가 친족관계에 있는 바로크와 초기 모더니즘일 것이다. 그래서 로버트 벤츄리나 마이클 그레입스 같은 건축가들은 매혹적인 형태를 먼저 찾기 시작했다. 이념은 나중에 형태에 맞춰 따라왔다. 두번째는 "재발명 reinvention"의 전략이다. 이 전략의 과정은 더욱 근본적이며 비밀스럽게 진행된다. 여기서 재발견자의 텍스트가 역사서라면 재발명자의 텍스트는 우화나 전설같은 것이 된다. 재발견자가 엄격한 복합성을 추구한다면 재발명자는 소박한 단순성을 자향한다. 또한 재발견자가 전달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 재발명자는 의식 (ritual)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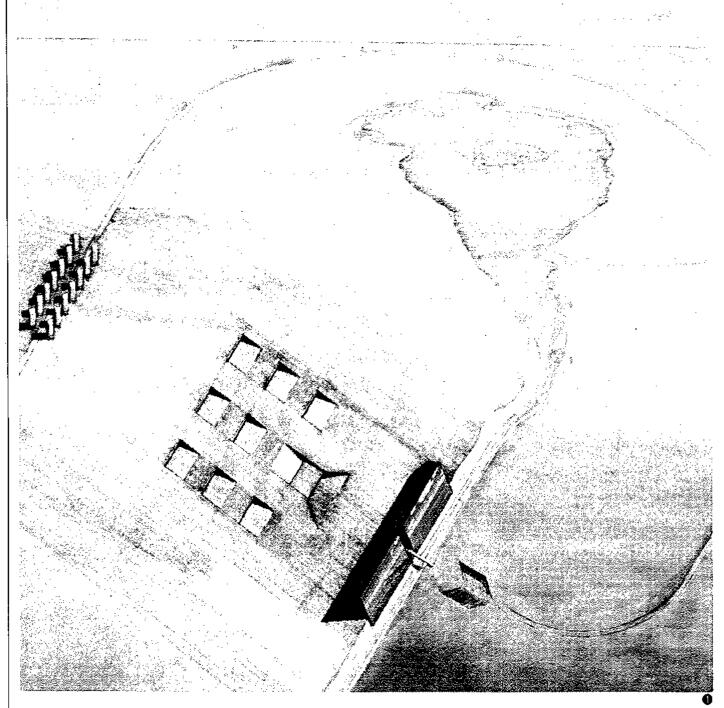
에밀리오 암바즈는 이런 제발명 건축가들중에서도 그 선두에서 있는 사람이다. 르두나 마키처럼 암바즈도 그 건축의 본성에 먼저 접근한다. 그는 위대한 건축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그는 고급스런 건축선언보다는 건축의 단순성 그 자체에 주목한다. 그는 당시대의 발전을 완성하는 이보다는 형이상학자들처럼 아직 닦여지지 않은 길의 개척에 더 관심을 보인다. 그럼으로써 건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혁명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물론 암바즈의 혁명작업은 사회내의 제반관계보다는 건축적인 관계의 재정립에 한정된다. 하지만 그는 휴머니스트로서의 예술가의 관심을 너무 1차원적으로 한정시키는 "너무 단순화된"정치적 해결책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시인의 입장을 고집하는 암바즈의 관심은 순수문학에 모아진다. 아름다움은 그의 최고의 목표이며 그것은 어쩔수 없는 조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는 아르헨티나 태생임에도 비이념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점에서

북미 태생의 느낌을 준다. 특히 그의 성실성은 평가 받을만 하다. 암바즈같은 "비저너리" 건축가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일의적인 이데올로기에의 과도한 집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는데서 그의 천재성은 돋보인다.

이념주의자이기 보다는 우화작가에 가까운 암바즈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에 집착한다. 그가 보기에 이데올로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장됐고 오히려 우화들의 견고한 불멸성이 증명됐다. 암바즈에게 있어 가장 생산적이고 비판적인 무기는 아이러니이다. 그는 결정적인 해답보다는 이름다운 해답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거역하기 어려운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의 프로젝트들을 예술적이며 그의 글은 위트로 가득찬다. 천재성은 이제 그의 보증서가 되고 있다. 우화의 발명은 단순한 문학적 악세서리가 아니고 암바즈 작업의 중심테마가 된다. 이 우화에 숨겨진 뜻은 결코 변환될 수 없는 의식 그 자체이다. 의식으로 특징 저워지는 그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일상 삶의 리얼리티가 살아 숨쉬는 진지한 미개척자들이다. 가끔 이 의식은 해바라기씨나 조림의식이 그려진 연하장으로 제시된다. 어떤때 이 의식은 풍자화되기도 한다.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외식을 위해 조직된 "커뮤니티"이다. 암바즈 프로젝트에서 이 추론된 "사용자들"은 대규모 사회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작고 자율적인 삶을 유지해 나간다. 그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의 포도재배 농가이다. 여기서는 포도재배와 수확을 찬미하면서 포도 과수원 아래 상호 보족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나간다. 그런 또 다른 프로젝트가 조지아의 자족적인 농민사회로서 여기서는 포도넝굴의 보호만으로 대지 그 자체에 뿌리박고 살아간다. 메타포만이 존재하는 루덴하우센의 "프로메모리아" 정원이야말로 암바즈의 가장 시적인 작업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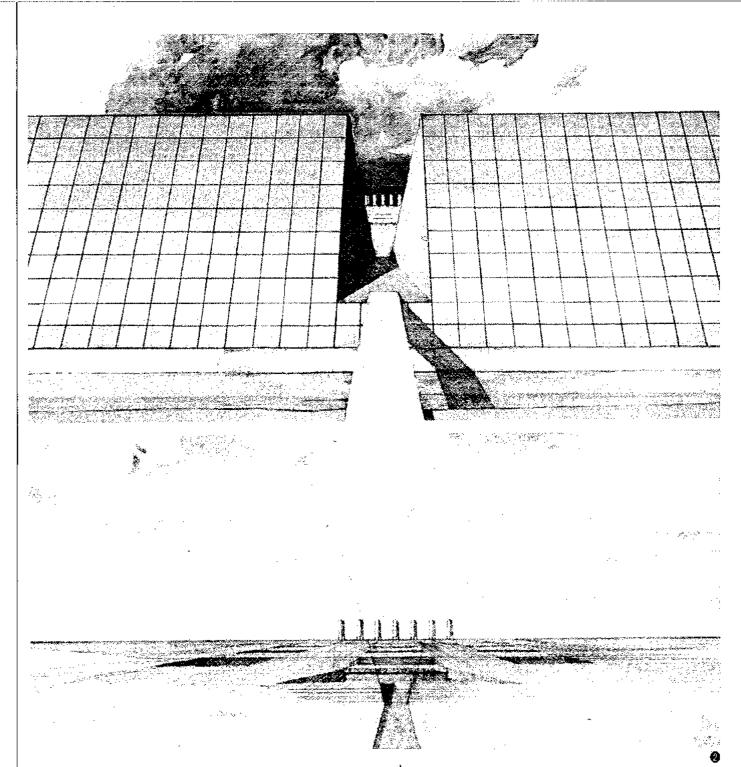
스페인과 벨기에에 있는 두개의 주택작품은 그 같은 특성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다시말해 이 주택들은 주거의식속에 존재하는 에세이들이며 가장 작은 사회단위인 가족에 대한 제식이다. 또한 라스 프로메사스에 있는 멕시코 컴퓨터 센터는



가장 현대적인 가족단위인 "연구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암바즈 작품에 일관되게 스며들어 있는 아르카디아풍의 테마는 가장 훌륭한 특성일 것이다. 그가 즐겨 인용하는 아포리즘은 "유럽이 계속 추구해 온 것은 종말에 대한 신화인 유토피아이다. 반면에 미국은 끊임없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희귀신화인 아르카디아를 찾아왔다. "확실히 아르카디아는 문화적인 재편을 꿈꾸는 암바즈에게 있어 가장 중심되는 찬가이다. 물론 이 아르카디아라 흔히 얘기되는 규준화된 꿈이 아님은 물론이다. "아르카디아를 꿈꾸는 전통적인 비전은 인간적인 정원을 뜻한다. 미국의 아르카디아는 어쩔수 없이 인간의 손으로 꾸며진 인위적인 나무나 그늘로 가득찬 숲을 의미한다."

암바즈는 진정으로 자연적인 아르카디아풍의 눈부심과"인위적인 나무와 그늘들"을 조화시켜 나간다. 그것은 정원속의 기계이기보다 독립된 기계와 정원이거나 최소한 정원의 통제하에 있는 기계일 것이다. 오히려 암바즈는 자살을 꿈꾸기보다 찬란한 자연을 양키들의 비전으로 가득채운다. 그 기계는 장소를 억압하거나 정복하려하기 보다 우리의 일부분이 되다

아르카디아와 유토피아의 이같은 상반된 입장은 암바즈의 익살스런 상상력 곳곳에서 교활한 비전으로 나타난다. 이 비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그의 소박한 성격에 힘입어 믿음을 준다. 그의 프로젝트들은 지극히 도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는 자연스러운 풍요로움이 가득차 있다. 암바즈는 조화의 기술, 즉 뜯어맞추기 (bricolage)에 능하다. 미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이 브리꼴라주는 그 재료의 선택에 따라 진부함에 빠져들 위험이 높기는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잠재력이 강렬한 수법이다. 암바즈는 익명의 랜드스케입으로부터 선택된 요소들을 끄집어내어 복합적인 조화를 아끌어내기 위해 취향 (taste)이라는 수법을 이용한다. 여기서 이 취향은 그의 가장 독특하고 비밀스러운 수법이 된다. 우리는 그의 과거 경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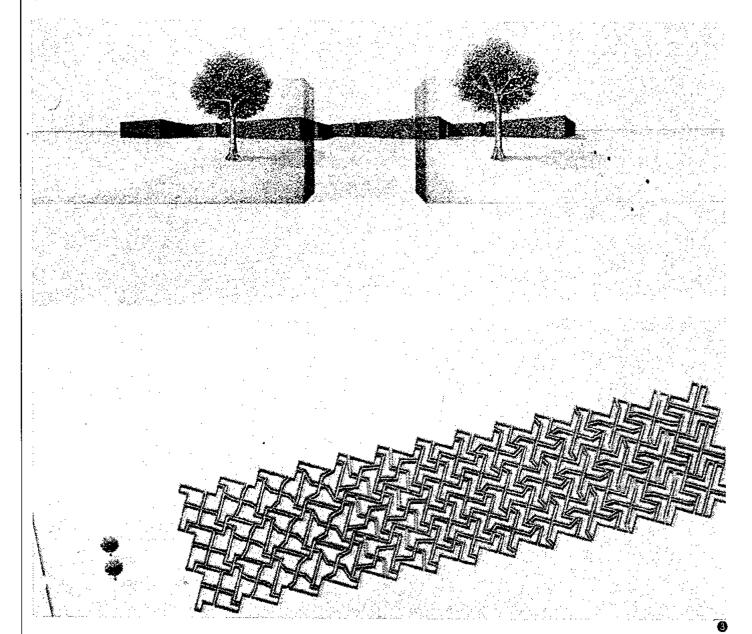


잊어서는 안된다. 그는 원래 미술관 큐레이터이자 전문 오브제 컬렉터였다. 그는 예전에 골통품과 미술품들을 수집하던 시절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지금은 건축물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암바즈의 브리꼴라주 감각은 솔라패널이나 안개 제조기같은 요소들에 뿐아니라 전체 형태 만들기에도 깊숙히 스며든다. 그같은 그의 미니밀리즘 감각은 어느정도 현대미술과 건축에서 힘입고 있다. 특히 기본 기하학이나 그리드체계, 반복체계에 대한 그의 관심은 집요하다. 그의 단순한 형상들은 언제나 비전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으며 원초적인 기하학 형태들은 근본적인 질서체계를 암시한다. 암바즈는 브리꼴라주에 대한 외도적인 이념적 채색을 거부한다. 랜드스케입을 지배하는 상징적인 건축그리드는 더욱 온화하고 목적이 분명한 태양열 집전자의 그리드 패턴으로 대체된다. 그럼으로써 그 그리드는 함축의 감옷을 벗어 던지고 더욱 친근하고 인간적인 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시각적인 감각성을 이용해서 암바즈는 몇몇 미국의 미니멀리즘 조각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감성을 성취해 낸다. 이를테면 용도나 목적에 따라 벽돌이나 스티로폼같은 일상적인 재료들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리챠드 세라나 칼 앙드레의 경향은 암바즈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예술로부터 모든 비본질적인 가식을 벗겨내려던 미니멀리스트들의 야망은 암바즈에 이르러 더욱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절서를 회복한다. "그의 질서는 합리적이거나 잠재적이기보다 그 다음 것을 예전케하는 연속성의 질서이다"라는 돈 저드의 지적은 암바즈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이처럼 생각이 깊기는 하지만 합리주의자는 아니다.

이제까지 암바즈의 작품은 단순성을 추구해 왔다. 이 단순성으로 인해 그의 오브제들은 어쩔수 없는 이름다움을 내뿜을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의 압권은 아마도 포도재배농가를

- 농가집합주거 (죠지아,1977)의 전경
- 冷 농가집합주거의 솔라엔트런스월과 사일로를
- ③ 프로메모리아/기억과 망각사이의 정원 (루덴하우센,1978)의 정문과 전경
- 부부를 위한 주택의 엑소노메트릭 도면과 지붕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6 라바인 주택 (Bierges, 1979)
- 라비인주택의 파사드와 거실전경



위한 동굴교회일 것이다. 더구나 이 작품은 그 아름다운 도판들로 더욱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것이다. 그 도판들은 거의 환상적이다. 그러면서도 암바즈는 각 오브제의 현실가능성를 항상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같은 암바즈의 실무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은 피레따와 공동 제작한 사무가구디자인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그의 매력적인 도판들은 현실과의 끊임없는 공명을 계속한다. 그의 사적이면서 기능적인 발명품들은 모두 현실직이면서 기술적인 능력에 의해 그 당위성을 보장받는다. 언뜻 꿈속을 헤메는 듯한 그의 프로젝트들은 주거와 작업환경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답을 제안한다. 이처럼 사와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지향하는 암바즈의 대안건축은 인간의디멘션 뿐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에도 어울리게 설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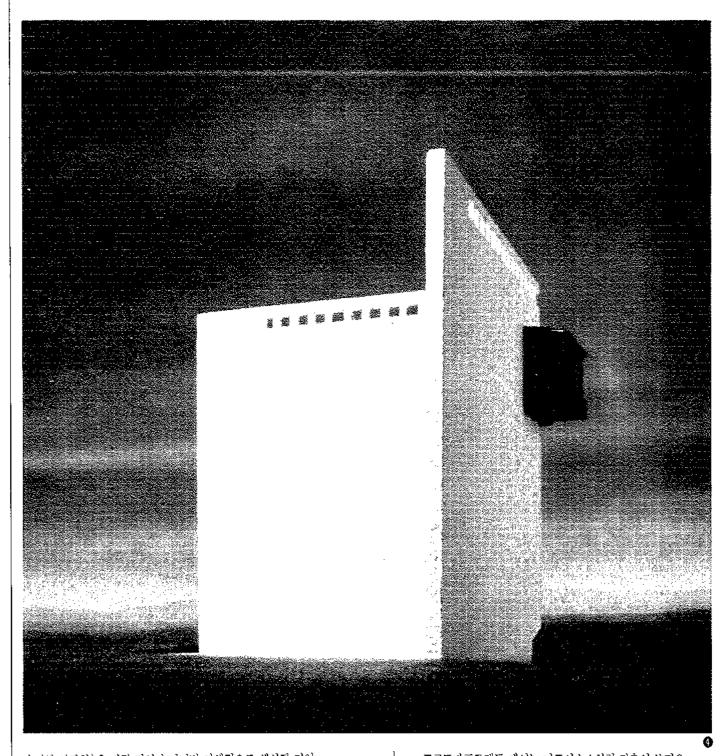
#### -----실용주익의 시학-----

훌비오 이레이스

"만약 6피트 길이에 3피트 넓이의 피라미드 형태들이 늘어선 흙문덕을 발견하게되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여기는 누군가의 무덤이구나.이것이 건축이다." (아돌프 로스「건축」 .1910)

여기서 이 흙문덕으로 가득찬 숲은 물결치는 밀밭으로 대체될수 있으며 무덤의 개념은 더 즐거운 주거로 대체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변증법적인 자극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택이 에밀리오 암바즈의 코르도바주택일 것이다. 그는 여기서 몇가지 요소들을 장중하게 사용하여 건축드라마로 가득찬 스펙트럼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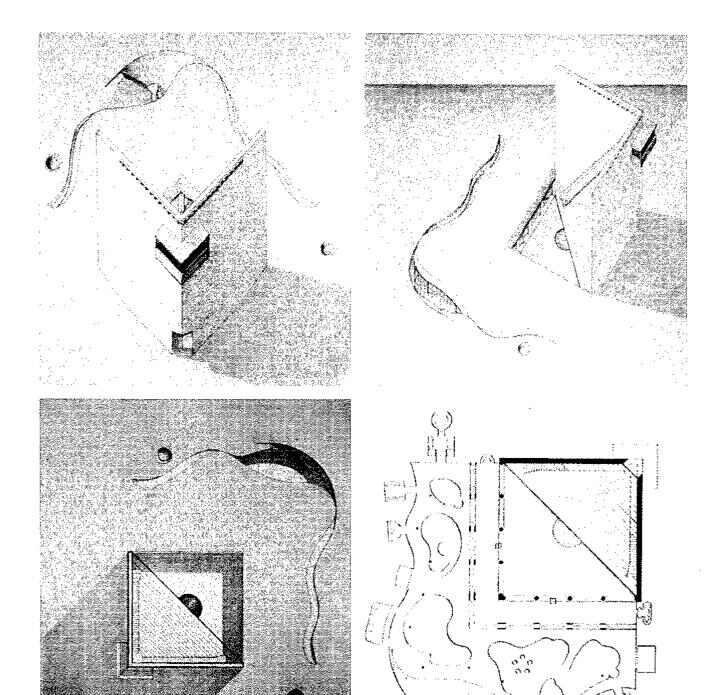
건축은 오늘날 두가지 주요 기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상징과 사인의 생성과정을 회복시켜 건축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기 위해 수사학적인 자의식(자체적으로 생산된 아주



순진한 안락함)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산된 기억 (소진의 시점까지 반복을 계속하는 연금언어)에로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작면해 있다. 그럼으로써 태초의 기억은 원형적인 아미지의 창출에 기억하게 된다. 이런 양국성은 코르도바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2중적인 사인체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한편으로 수직적인 표피와 거친 텍스처, 날카로운 기하학체계 등으로 고고학적인 기억을 상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사하는 파도같은 "유기적인"곡면으로 사라져가는 수평성을 강조한다. 이런 형태학적인 대립은 암바즈 고유의 수법이다. 이 수법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를테면 뗌므로나 조지아같은 하우징 프로젝트에서는 햇빛이 집중되는 버랑길에 드러나는 강렬한 볼륨과 사일로의 정확한 주사리듬간의 강렬한 대립을 볼 수 있다. 또한 프로 메모리아 프로젝트에서는 정원 레이아웃의 지형학적인 외형과 부드럽고 자연적인 건물자재사이의 미묘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다.

코르도바프로젝트 에서는 나르시소스처럼 건축의 본질은 부정된채 그 이미지만 투영된다. 파사도역할을 하는 두개외 직각벽체는 건물안쪽을 암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실된 자연도 투영한다. 여기서 이야기체로 응도된 건축언어는 빛나는 공예품을 출현시키거나 감각적인 제안을 암시한다. 두개의 가파르고 좁은 캔틸레버형 계단은 벽체의 만남을 부각시키며 그 꼭대기에는 사색을 위한 정적인 발코니가 배려된다. 어떤 전통적인 건축관념의 두통거리나 정적인 재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암바즈는 주택 외부의 격조높은 광대함이 베일에 가린 내부의 신비로운 친근감에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다. "하강의 축은 친근하며 미묘한 선이다. 인간은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충전받거나 전자연적인 평화를 회복한다. (듀랑, 「상상력의 구조인류학」, 1960)"

이런 많은 하강의 이미지들이 주택에 반복등장하여 대지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MoMa에서 암바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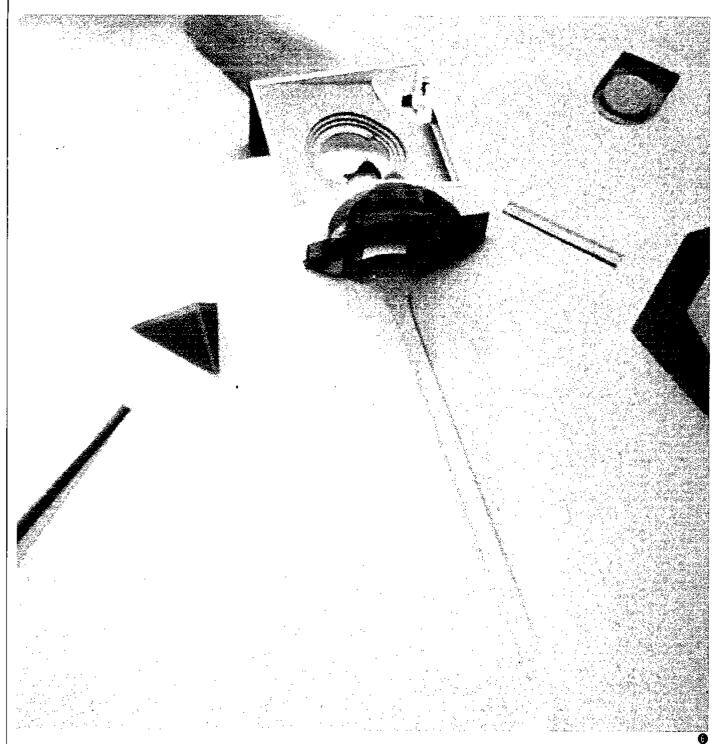
의해 개최된 Gaetano Pesce 전시회는 음울한 단편들로 구성된 작은 지하도시로써 "위대한 오염의 시대"로부터의 구제를 시도한다. 이 Pesce는 침울하고 공격적인 정방형의 공간에 다양한 시대의 벌거벗은 군상들을 거주시킨다. 암바즈의 지하이미지들은 죽음을 의미하기보다 대격변을 암시한다. 그의이미자들은 투명성을 통해 "영원한 시작"을 꿈꾸는 아르카이아의 신화를 재현한다. 그가 보기에 "건축가라는 유구한 마술사는 지금 당장 시작의 제식을 찬양하고 종말의 제식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영원한 회귀는 여기서 시작의 제식을 의미한다. 또한 더 생동적인 상징론은 또다른 죽음의 이미지와 충첩된다. "친근함의 원형 뿐아니라 회귀와 하강의 관념은 언제나 주택의 이미지를 지배한다. 따라서 주택의 이미지를 지배하는 요소는 파사드나 뽀족탑, 심지어는 구조체도 아니다.

그런 곳이 우리의 거주처이다."라고 듀랑은 이미 지적한바 있다.

그렇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장소이며 그것의 결정체가 주택이다. 이 얼마나 공간에 뿌리박은 시적인 대응인가! "주택은 인간의 실용적인 요구보다는 인간의 열정과 상상력의 결정체이다"라고 암바즈는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코르도바 주택에서는 기념비적인 그 어떤 장식물도 부재하며 벽체나 가구, 문, 창문들도 유기주의 원리에 따라 불규칙하게 배열된다. 가정의 존재에 대한 제식을 찬양하는 이 극소의 커뮤니티는 예기치못한 돌출로 극적인 공간감을 강화한다. 만곡된 천창으로 부터 쏟아져 부드럽게 확산되는 자연 빛들은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면서 실내의 낮과 밤을 조절한다. 고동치는 피막처럼 반곡된 벽체는 비장의 콘테이너들 (정방형, 원형, 정육면체, 프리즘)이 프라이버시와 위생학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기여한다.

"아담의 주택"을 꿈꾸는 이 독창적인 거주처의 테마에 대한 현실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암바즈의 지고의 목표이다. 주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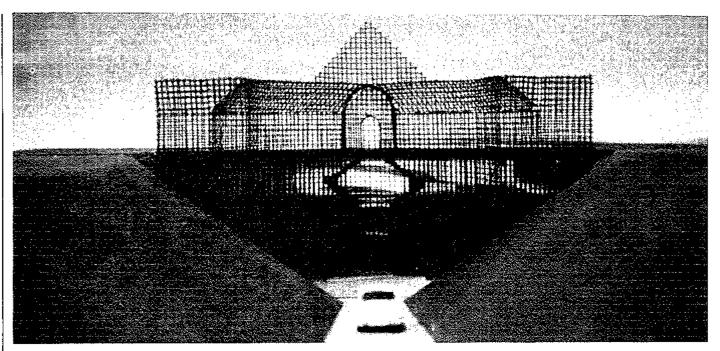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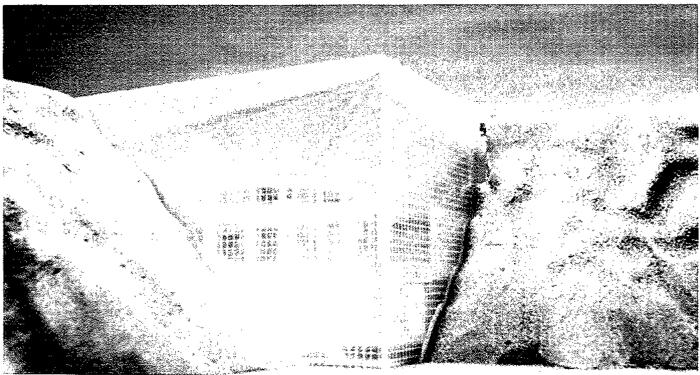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원천이라고 라이워트는 지적한바 있다. 사실 이 원시 원두막은 건축역사상 지속적인 중심테마였다. 특히 17세기에는 건축의 기원을 찾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된 토론주제였다. 또한 아돌프 로스에게 있어서 주택은 모든 "토지에서 생겨나는" 지혜의 원천이었으며 르 꼬르뷔제에게도 그랬다. 건축을 새롭게 하고 그 독창적인 기능들을 되살리려는 노력들을 근원적인 전의식으로의 회귀를 통해서만이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래의 궤 (Ark)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가능한 건축적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시작 되어야한다.

지금 도시거주민과 건축가들은 로스가 지적하듯이 "농부의 확신을 결여하고 있다. 농부는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뿌리를 상실한 도시민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암바즈는 로스의 도식적인 자각에 수반되는 단점이나 낭만화된 "숭고한 농부"의 신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암바즈는 이런 사고체계에

깔려있는 명료한 줄기를 신중하게 재추적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의 미국건축의 특성이기도한 도시건축에의 미련을 그렇게 고집하지 한는다. 오히려 그는 순수하게 정화된 사회의 재식들이 가능한 고립된 작은 커뮤니티를 제안한다. 일종의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그의 정착민들을 처음부터 인간이 손수 가꾼 정원에서 역사를 시작한다. 이처럼 태초의 자연환경을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 가꾼 환경에서 시작해야 한다.

임바즈의 정착민들은 포도나무지붕이나 울타리 벽으로 한정된 영역안에 트레일러 주택을 만들어나간다. (보레고 스프링스) 그는 또 펨브로크의 경사지 등지에는 수영장을 갖게되며 후아란코의 페루비아계곡이나 멕시코 컴퓨터센터의 연못에 떠있는 거룻배에서는 진보적인 선상건축도 갖게된다. 우리는 이제 "문화"와 "문병"즉 전산업사회의 휴머니티와 제한적인 공업생산 논리사이의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 암바즈는 전산업사회 인간의 낭만화에는 관심이 없다. 그의 독창성은 오히려 인간의 역사적 (또는후기역사적)진보에 모아진다. 이처럼 암바즈의 정착민들은 기술문명의 혁신적 진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암바즈의 정착민들은 자기문화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이중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원래 갖고 있던 문화의 생산품과 과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도그들은 알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인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이 새로운 문화인간의 정신상황에 대한 규명도 동시진행돼야한다. 그 같은 인간상은 이 시대 최후의 역사적 주제일 뿐아니라새로운 인류학의 최초의 소재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역할은 신화와 이미지 자체에 대한 해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암바즈의 경우에는 그것을 우화나 건축구조가 대신한다. 그에대한암바즈의 해답은 모험적인 낙관주의나 풍자적인 낙관주의로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중인 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품간의 유대를 이어줄 원리들을 실용적으로 탐색하기를 권한다. 그 방법으로는 "인간이 만든 정원에 거주키 위한 생산품과 기술들의 세제도법"을 빨리 습득하고 "사회적 요구가 담긴 거대한 프로그램 문맥내에서 개인적 요구와 욕망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이런 열망을 담아낼 시적인 구조물을 구축해내야 한다. 이때 가장 어려운 난점은 인간으로부터의 탈피가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되는 사실은 암바즈는 산업디자이녀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실무적인 테크닉에 건축가도 정통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점이다.) 그런 목적으로 암바즈가 즐겨 쓰는 방법중의 하나는 작업중에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를 "극화"한 우화를 집필하는 것이다. 암바즈는 이런 방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그의 윤리적인 규준과 영감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현사회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A+U.8005)

# 현상설계

### 대한주택공<mark>사</mark>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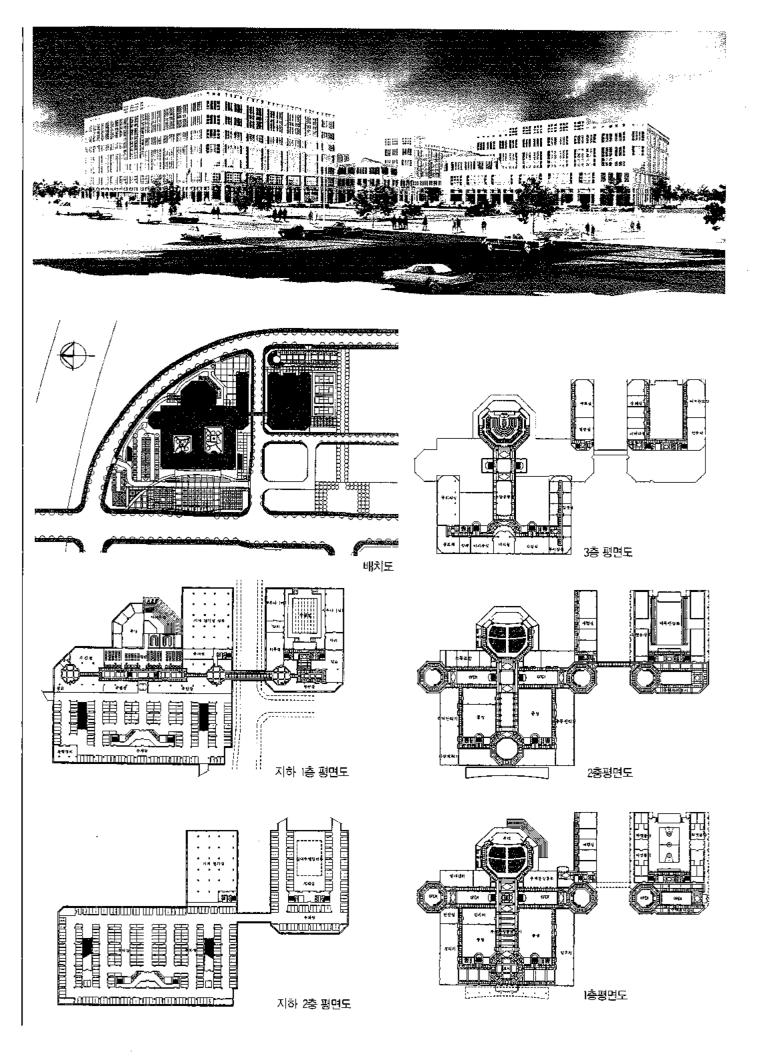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주택공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미래의 주거문화 창달과 주택보급 및 공익사업에 기여할 첨단의 인텔리젼트 빌딩의 건설로 장래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사옥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건원종합건축(대표 : 곽홍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총19 개 건축사사무소가 응모신청을 하여 그중 12 개 사무소가 작품을 제출한 이번 현상공모에는 당선작 외에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 (대표 : 김병년)안과 정림종합건축(대표 : 김정철)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원도시종합건축(대표 : 윤승중+변용)안과 회림종합건축 (대표 : 이영희)안을 가작으로 선정하였다.



**당선작** 건원종합건축 (案) (대표:곽홍길)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
개발지구 E-15-1, E-15-12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
고도제한지구(8층이하)
건물규모/ A(E-15-1)-지하 2층, 지상 7층
B(E-15-12)-지하 2층, 지상 5층

대지면적 / 37.983㎡ 건축면적 / 10,300㎡ 연면적 / 75.727㎡ 건폐율/ A(E-15-1)-24.9%, B(E-15-12)-33.3% 용적률/ A(E-15-1)-126.1%, B(E-15-12)-107.1% 주차대수/ 옥내 550대, 옥외 150대 주요외장재/ 화강석 + 칼라부층유리



#### ■ 토지이용계획

- •분당 도시구조의 공간적, 기능 적 연계
- ●간선도로의 위계별 특성에 따른 기능 및 사설 배치
- 각 기능별 Access의 위치분 리로 기능별 동선체계의 상충 방지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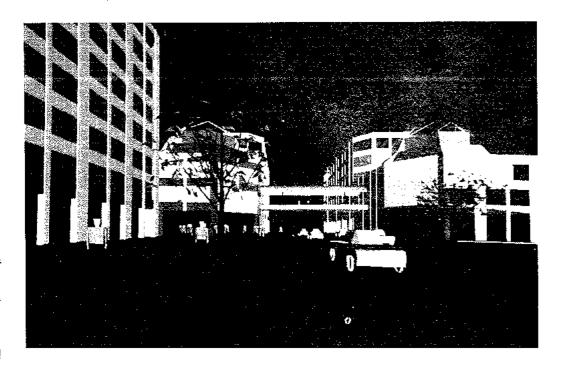
각각의 동들은 독자성을 유지 하면서 전체 매스로는 단일 블럭 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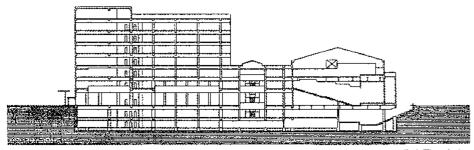
- •축-수직축으로 관통하는 수 평선의 강조
- ●구성체계ー각 동물의 횡적분 화를 종으로 꿰는 구조적 체계
- Mass 체계
- -기능 표현의 직접성과 명료성 에 의한 동일감 유도
- -체계적 반복에 의한 리듬감 형 성

####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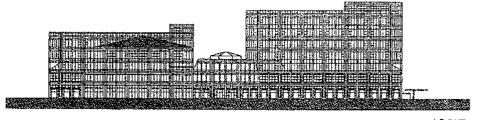
업무의 효율적 기능분리로 저 충부의 옥상부분을 정원 및 휴계 공간으로 활용

- -저층부: 민원업무, 후생복지, 강당, 체육시설, 전시장
- 상충부 : 업무, 연수, 연구, 실 형
- ◆ 민원업무 및 강당, 업무시설의 출업구를 분리시켜 보행진입 동 선의 혼재를 최소화
- •업무동의 배치 형식으로 생기 는 두개의 중정공간과 이로인한 일조 및 통풍 확보
- 저층부 Public Space의 Void 및 Sunken 야외공인장으로 지 하층의 일조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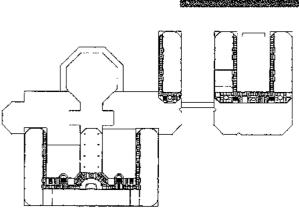


대지 종A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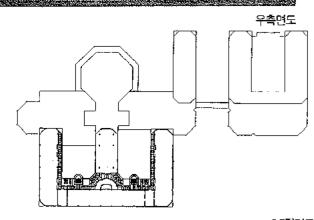


<u> Primere de la compansión de la compan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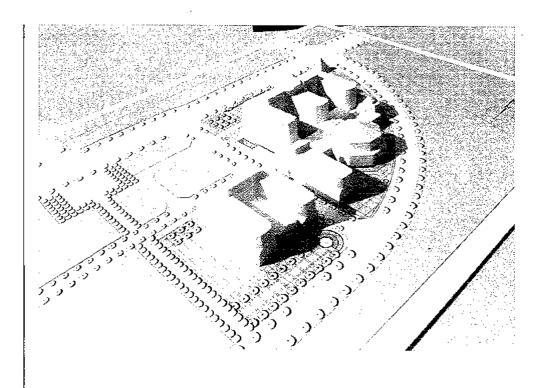
좌측면도



4,5<del>층</del>평면도



6,7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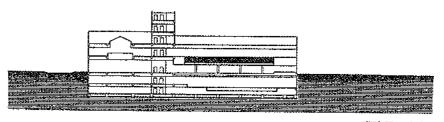


#### ■ 입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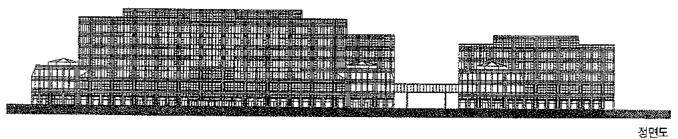
- ◆기하학적 질서에 의해 안정된 건물의 [mage 확보
- •각 동의 인접 하는 대상에서 유발되는 유사한 작용력과의 상 관 작용에 의해 전체적인 통일감 유도
- •창호의 패턴으로 유도되는 리 등감과 장래중축을 위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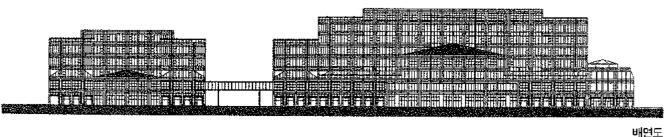
#### ■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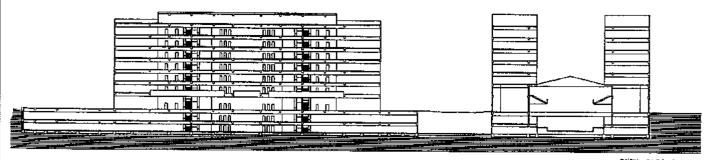
-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옥외수 차 및 전용 지하주차 램프를 설 치하고 주차장 이용층수를 구분 하여 주차 전출입 체계구성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혼재 를 막고 바닥패턴과 조경으로 보 행 안전 도모
- •지하철역(죽전역)에서의 보 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계로 이용 객의 편의 도모



대지 종B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 우수작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案)

(대표 : 김병년)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 개발지구 E-15-1, E-15-12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 고도제한지구(8총이하)

건물규모/ 본동 - 지하 3층, 지상 8층 연구동 - 지하 2층, 지상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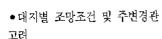
대지면적 / 37,983㎡ 건축면적 / 10,040㎡ 연면적 / 76,183㎡ 건폐율 / 26,4% 용적류 / 101,4%

용적률 / 101.4%

구조 / 본동 - 철괄월근콘크리트조
연구동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옥내 576대, 옥외 155대
주요외장재 / 화강석 불갈기 및
버너구이 + 두께
18mm파스텔 목총유리

#### ■ 배치계획

- 남향, 남남서, 남남동향 배치
- •대로변 소음을 고려한 배치 및 조경계획
- 2개의 대지를 동일단자 개념 으로 연결



- ◆각 시설간 상호 유기적 관계유 지
- ●미래 지향적이며 향후 증측 고 려

#### ■ 평면계획

- 평면 중앙에 사무공간과 아트 리움 배치하고, 앙축단에 수직동 선 위치
- •서비스 코아 배치에 외한 건물 의 보수 및 설비라인의 교체 용 이
- •아트리움 및 엘리베이터 홀을

중심으로 대칭형 사무공간 구성

- 연결 통로에 의한 본동과 연구 동의 연계성 유지
- •지하 1층의 선큰가든 활용에 의한 쾌적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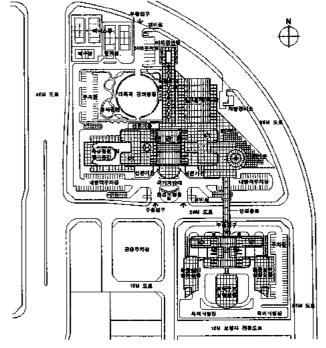
#### ■ 입면계획

- •발전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이 미지를 상징하는 독창적 스타일 창출
-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과 친 근감을 표출하여 분당 신도시의 랜드마크적 역할
- •기능상 분리에 의한 고층부와 저충부의 Mass를 적절히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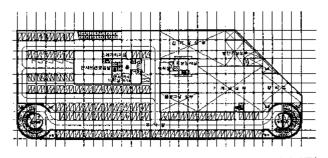
시켜 전체 입면의 균제감 형성.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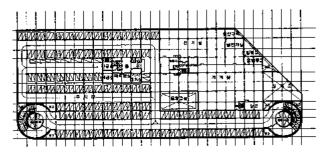
- ●아트라움을 중심으로 단면 블 럭 구성
- 상하층의 시각적 연속성을 통한 일체감 부여
- •인텔리전트화에 대응한 적정 한 층고 설정
- ◆연결통로에 의한 시설간 연계 적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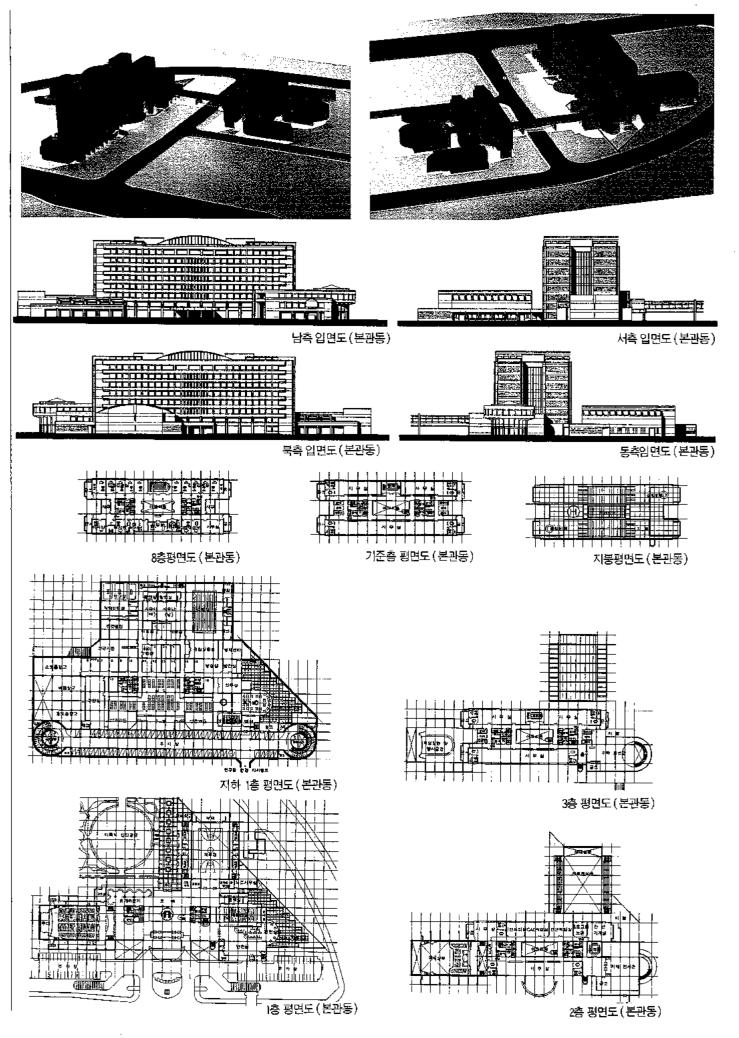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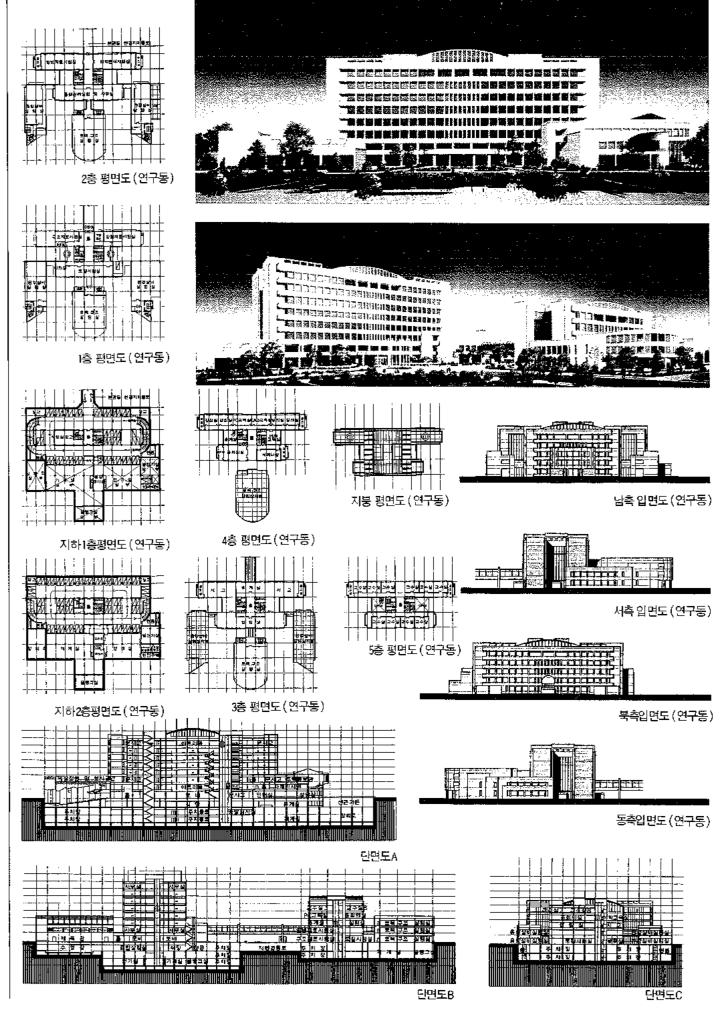


지하 2층평면도(본관동)



지하 3층평면도 (본관동)





# 우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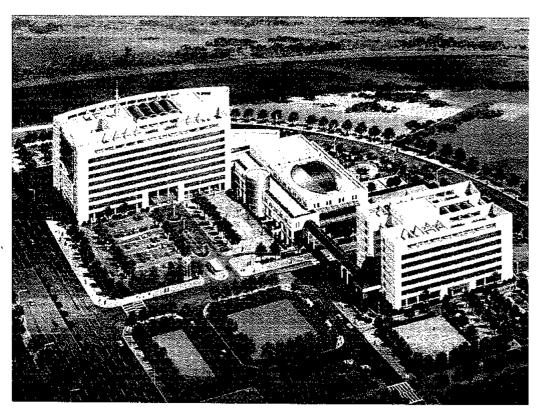
# 정림종합건축(案) (대표:김정철)

개발자구 E-15-1, E-15-12
지역・자구/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 고도재한지구(8층이하)
건물규모/지하 2 층, 지상 8층
대지면적/37,983㎡
건축면적/10,773.1㎡
연면적/76,222.8㎡
건폐율/본관-30.2%
별관-23.3%
용적률/본관-130.1%
별관-125.1%
구조/본관-철근콘크리트조+프리스트레이트 콘크리트

벌관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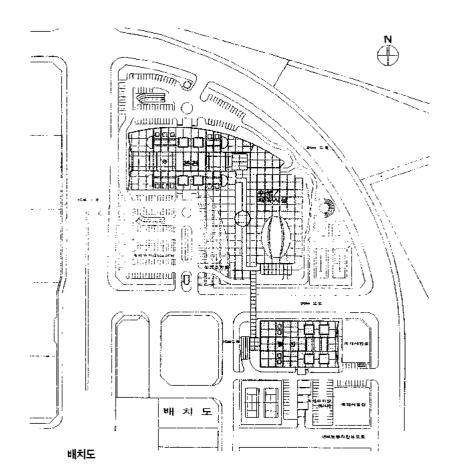
주차대수/ 808대

대지위치/ 경기도 성납시 분당



####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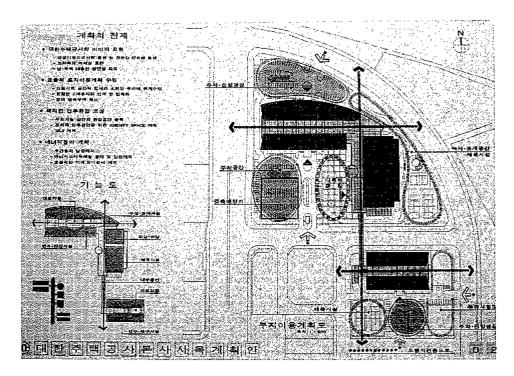
- ●분당시도시 가로의 기본 Pattern인 직교축을 도입, 토지이 용계획의 기본체계를 수립.
- •본관 (업무시설)은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본관 접근시 남북측 모두 정면성및 시각적
- 개방감을 갖도록 계획.
- •부지 북동측의 도로의 형상에 석응하면서 상호유기적인 조형 의지로서의 곡면형태는 주공이 환경해석의지인 조화와 적응에 서 적극 반영되며 분당 신도시내 에서의 Land Mark 및 주공 본사
- 의 Identity 를 표현.
- •중촉예정지를 본관의 남측에 확보합으로써 시야의 개방갑, 스 카이라인등에서 계획초기의 건 축적 Image가 증축후에도 일관 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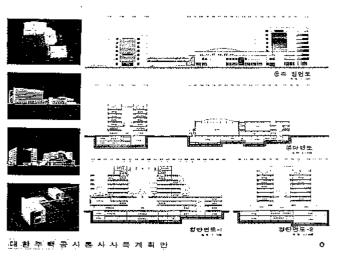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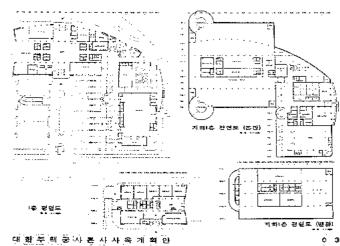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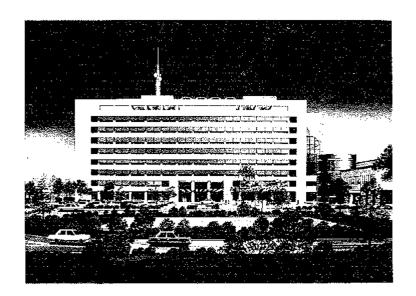
#### ■ 평면계획

- •본관: -내무공간을 기능적 업무공간과 Amenity Space로 계획하여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업무공간 조성
- -아트리움 부분은 기능에 따라 1.2층이 Open된 로비 부분과 3~8층이 Open된 아트리움 공 간으로 계획
- 후생및 체육시설 : 중앙의 연 결통로 (Spine)을 통해 본관, 별관및 다목적 광장에서 직접진 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별관: 연구및 연수시설이 주 기능을 이루며 중앙의 Spine으로 본관및 후생 체육시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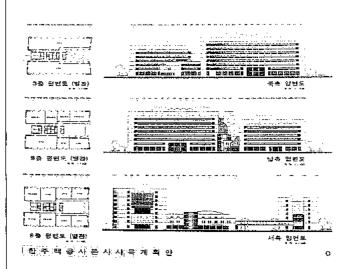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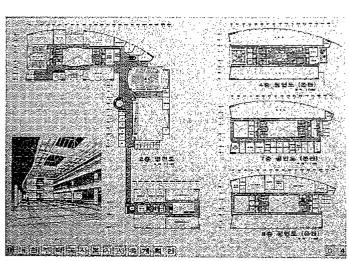
◆종래의 공공기관의 상정적 이 미지였던 수직적 입면에서 탈피, Horizontal을 강조한 입만 Facade로써 전체 부지상호간의 연계성을 부여하고 안정감과 유연한 흐름을 표현, 동적인 Image를 창출하여 신뢰성과 함께 발전하는 주공의 이미지부각

#### ■ 단면계획

- ◆외부공간 : 광장, Sunken 에서 이루어진 Open ~ View는 업무공간을 통과한뒤 내부의 아트리움에서 상승되며, 이러한 풍부한 공간감은 업무환경을 조성
- 향후 인텔리젼트 빌딩(I.B.S) 화에 따른 대비를 고려 층고 결정







# **가 작** 희림종합건축(案)

(대표: 이영회)

대지위치/ 경기도 성난시 분당

개발자구 E-15-1, E-15-12 지역 · 지구/ 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 고도제한지구 (용충이하) 경무기업 / 발명도 기원 2층 기산 2층

건물규모/ 본관동 - 지하 3층, 지상 8층 연구동 - 지하 2층, 지상 4층

대지면적 / 37,983㎡

건축면적/ 11,180㎡

연면적/ 60,371㎡

건폐율/ 29.4%

용적률/ 1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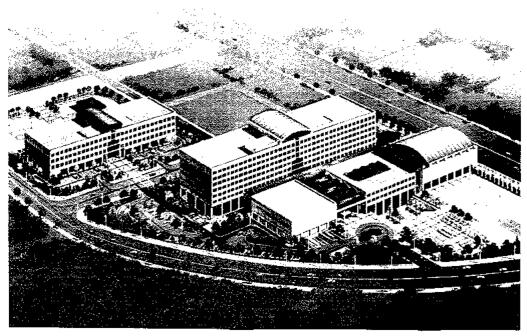
구조 / 본관동 - 철공철근콘크리트조 연구동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옥내 608대, 옥의 154대

#### ■배치계획

- •기능별로 본관동과 연구동으로 나누어 배치
- •저충부 중앙에 아트리움 설치 로 기능별 유기적 연계 및 공공 공간 조성
- ◆체육·후생부분의 일조를 고 려한 선근가든 구성
- •사무살 공간의 남향 배치
- ◆사무 공간과 체육·후생 공간의 위계 구성
- ●보행자 주 진입을 고려한 광장 조선
- •옥의 체육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후생시설과의 상호 연계 배치

####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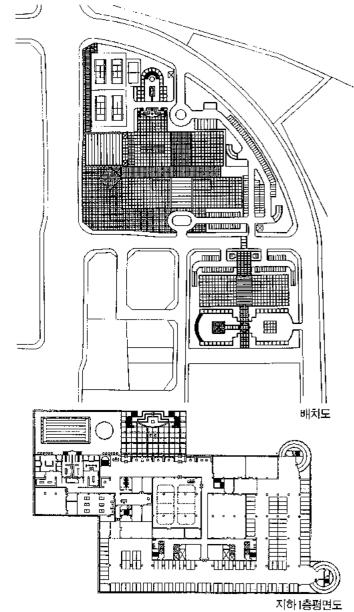
- 아트리움을 통한 중층부, 저층 부의 매개 공간으로의 효율성과 자연채광의 관업 유도
- ●기능에 따른 본관동, 연구동의 분리 배치
- -본관동:업무시설, 후생시설, 체육시설, 자재 전시관, 홍보과, 회의실, 대강당
- -연구동:연구시설, 연수시설, 도서실, 실험실
- 무주 공간에 의한 가변성과 융통성 확보로 미래 변화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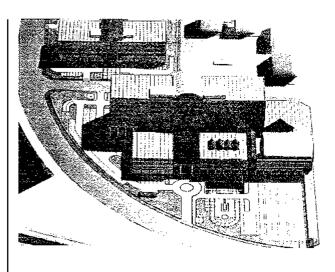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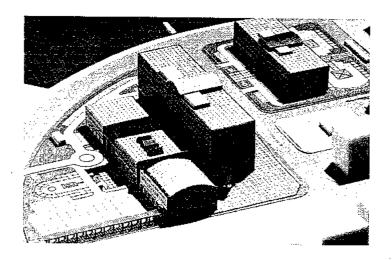
- •선큰 공간의 도입으로 지상과 지하를 일체화하고 공공 휴식공 간 제공
-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이 운용 가능한 계획으로 업무 효율의 극대화
- ●사무 공간과 체육·후생 공간 을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분산 배 차
- ◆주 업무 공간의 남향 배치로 에너지 절약 및 일조권 확보
- •본관동과 연구동 간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지하통로 계획
- •보행 주 출입구 부분의 기하학 적 이미지 강조로 인지성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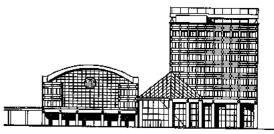
#### ■ 입면계획

- 안정감을 주는 수평 이미지의 강조로 도시 맥락에 순응
- •정면 주 출입구 부분의 후퇴 와 기둥 강조로 정면성 고취
- ●연속된 수평감의 절삭 의미인 수직적 상승 요소의 도입을 통한 입면상의 분직 효과 기대
- •화강석, 유리, 알루미늄바의 조화로 건물의 현대미와 고전미 조화
- 완만한 곡선과 사선의 도입으로 확일적인 수평과 수직선의 단조로움에서 탈피









좌측면도(본<del>관동</del>)

정면도(본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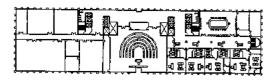
우축면도(본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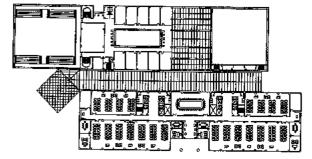
"의 배면도(본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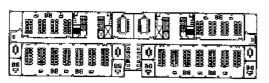
7층 평면도 (본관동 임원실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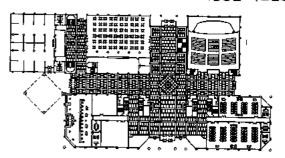
8층 평면도 (<del>본</del>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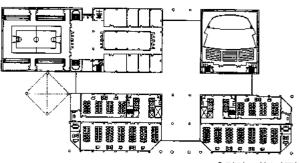
3충평면도 (본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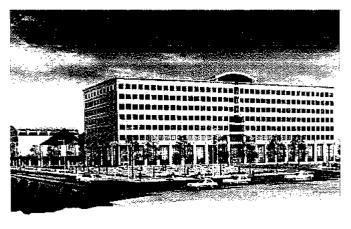
기준층 (4~6)층 평면도 (본관동)



I층평면도(본관동)



2<del>층</del>평면도 (본관동)





####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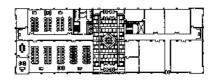
- •각 가능의 수평, 수직 분리로 효율적 공간 전개
-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적용을 위한 적정 충고(4.2m)와 사무 기계실을 고려하여 적정 천장고 확보
- •대강당, 체육관, 수영장, 대회 의실등 가능에 맞는 충고 적용
- •지하에 위치한 수영장의 일조 유입을 위한 후면 선큰가든 처리
- •오픈된 아트리움을 통해 각 기 능별 출입이 이루어지는 수평 분 리식 단면

#### ■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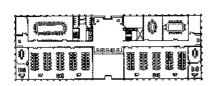
- ◆남북의 도시축상에 전면·배 면의 주 출입구 배치
- ●차량 동선의 베면 진입으로 전 면 보행 동선과 분리
- •체육·후생 기능의 집중 배치 콜 통한 보행과 서비스 동선의 단축
- •옥외 광장의 계획으로 보행 동 선의 쾌적한 진입 유도
- •출입구의 전후와 좌우 배치로 인한 동선의 명쾌함 조성
- •본관동과 연구동간의 보행 동 선 단축과 유기적 체계 확립의 지하 통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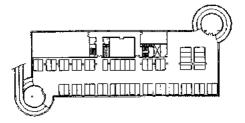




l총 평면도 (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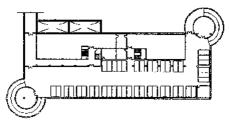
4층 평면도 (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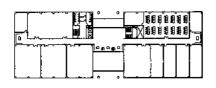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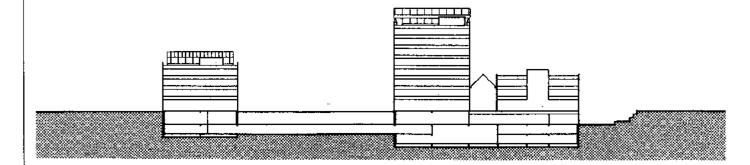
3층 평면도(연<del>구</del>동)



지하 2층 평면도 (연구통)



2층 평면도 (연구동)



단면도(본관동 · 연구동 종 단면)

# 가 작

# 원도시종합건축(案)

(대표: 윤승중+변용)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 개발지구 E-15-1, E-15-12 지역·저구/ 일반상업지역, 업무지구, 고도제한지구 (8층이하)

건물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대지면적 / 37,983㎡

건축면적 / 11,422㎡

연면적/ 69.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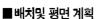
건폐율/ 30.7%

용적률/ 183%

구조/ 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75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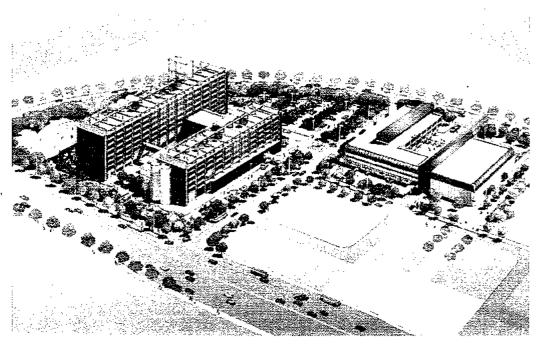
외부마감/ 금속패널+24mm복충유리 +알루미늄패널 + 화강석비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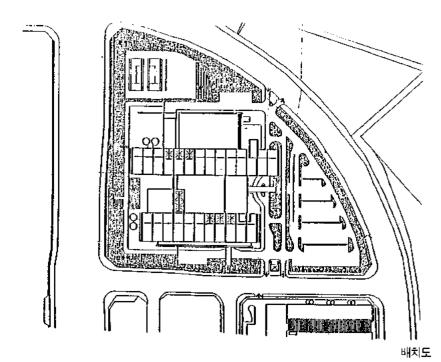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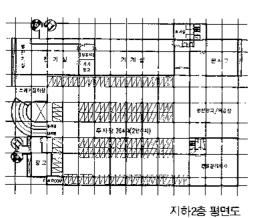
●전체적 배치개념은 전 후면 동 을 분리시켜 마당을 갖고 대지내 의 구심적 외부 공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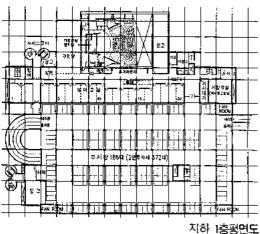
연구동과 본관을 두고 그사이에 연결통로와 회의장을 두어 □자 형 외부 마당을 갖게 되는데

- 2개의 단인 계획 부지에서 사 무 집회, 관리 체육 시설등의 음 통성 있는 방법으로 공용시설 배 치하고 사무기능의 전면적인 남 향배치로 업무의 쾌적성을 기한
- ●진입구에서 중심시설은 적절 한 통제와 개방공간을 적절히 구 분하고, 집단 대면 업무시설은 저충부에서 구성한다.
- 각각의 기능으로 진입하는 경 우 각 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전 이공간을 마련하여 기준층을 Office는 복도의 측면에 Alcove 및 발코니 마련한다.
- •시무 및 집무공간의 융통성을 위한 Office Open Planning 개념에 의해 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
- •대형 공간이 차지하는 다목적 홀, 대회의장, 강당등의 집회사 설 등은 동선의 이동이 쉽게 집 단적으로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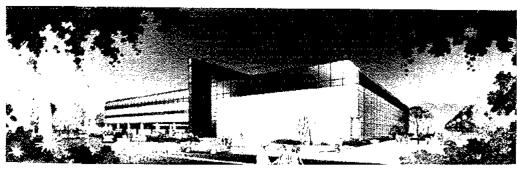
#### ■입면계획

- •건물속의 벽과 도로의 관계에서 완충 녹지공간을 형성하고 수 평적인 리드미칼한 반복적 행위 의 연속으로 입면질서의 Proportion을 갖게 한다.
- 전체적으로 기관건축물이라는 위압감을 갖지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순수 집무면적 외에는 지하에 배치하고, 도시 스카이라인을 갖게한다.
- 전후면 동의 입면은 도시적 스 케일에 대한 상징직 인지도를 가 진 전체적 통일감을 갖게한다.
- 기의 동일한 외부질서로 규범 적인 형태요소의 기계미학적 이 미지를 표하고 미래지향적인 입 면형태를 갖게한다.

####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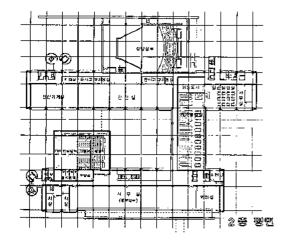
- •각 총별 휴식공간을 적합하게 할애하여 고층부 Office의 개념 에서 해결하기 난해한 쾌적한 업 무공간으로 유도한다.
- •1층과 지하층의 생활지원가능 을 수직 Shuttle Elevator로 시민에게 개방하며 통제와 개방 기능에 융통성을 가진다.
- •순수 업무공간은 고층부에 배 치하고 전산및 사무자동화 관련 시설을 저충부에 공동분배한다.
- 전면동과 후면동사이에 비어 있는 정적인 성격의 마당에서 Event를 기대하는 공간형성한 다.
- •전면동을 일반 시물관리동으로 후면동은 기술연구시설등의 동별Zoning을 갖게한다.
- 각 동의 연결부위에는 공용시 험공간, 집회공간 등 구조 System을 달리하는 시설군을 설치 하며, 이는 또한 전후면동의 연 결기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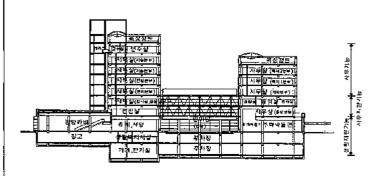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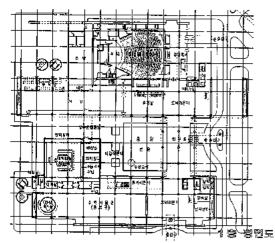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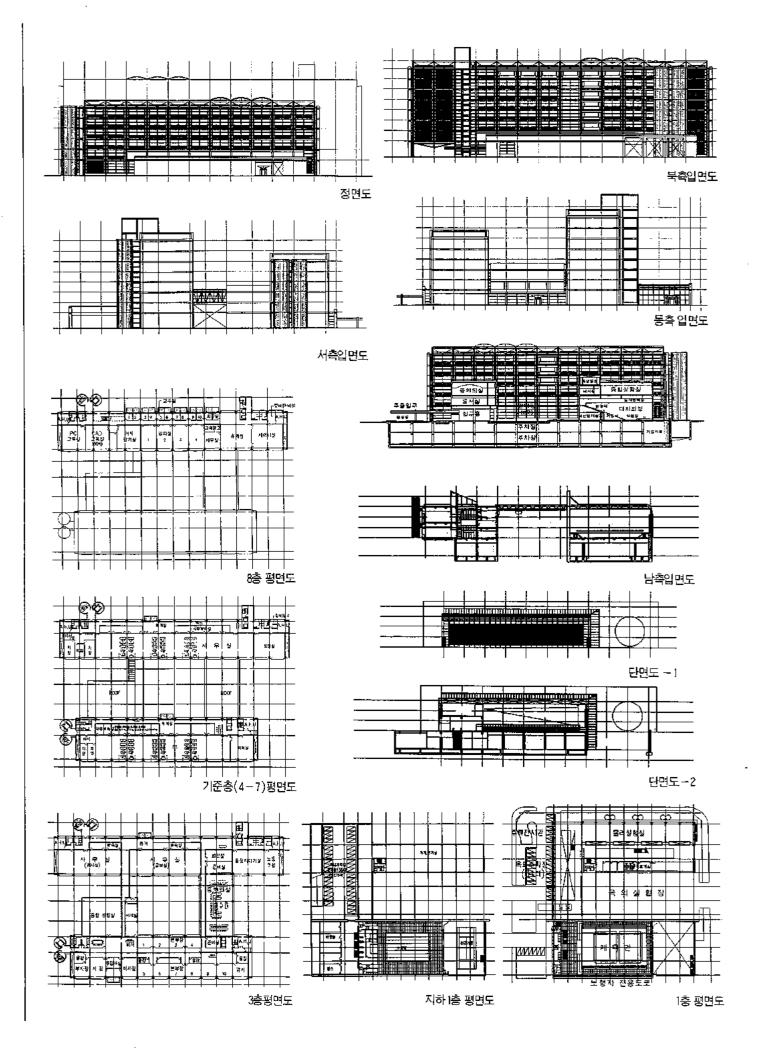
#### ■동선계획

- ●배치계획과 기능배분의 토지 이용 계회기에 의해 외부동선 계 획은
- -출퇴근시 완전한 One Way 방식화
- -내방객을 위한 옥외주차 공간 확보와 Shadow Parking및 옥 내 2단주차장 가능성 확보
- 자동차 통로와 보행자 통로와의 적극적 조경유입으로 자동차길 산책로 확보









# 건축법 질의 · 회신

An Authoritati 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건설부 건축계확과〉

#### ▶질의

- 가, 건축하가시 오수 · 분뇨정화조의 평면도 구조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건축허가시 건축설비도등을 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 특별시장)

#### ▶회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와 동시 처리되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나.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건축설비도서는 소방설비도의 제출에 한정되는 것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사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경우 설비건술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규칙 별기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설비 허가사 설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가. 도시개획시설로 결정된 일반주기지역내 기존재래시장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별표3"제1호자목의 적용여부 및 동 건축물의 배장일부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중음식점으로 변경 가능여부

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내 기존재래시장을 공동주택 및 대중읍식점등 타 용도와 복합용도로 건축기능여부 (결의자 : 서울 특별시장)

#### ▶회신

#### 가. 질의 "가 "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액관한규칙의 개정 ('87.12.9)이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재래시장포함)은 건축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건축법시행령 "벌표1"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포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대중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판매시설이 되는 것임.

또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변경은 사업시행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경우도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허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기존재래시장의 재건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3"제1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장외 면적이 종전의 면적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임.

또한 판매시설내에 대중음식점의 설치는 회신내용가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

공동주택의 발코니의 전체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동건축물 설계변경시 (발코니부분 제외)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자 : 대한건축사협회장)

## ▶회신

건축범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범령에 적당한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관제공무원이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이를 간과히 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당연히 적법한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법 허가시에는 이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만 허가를 독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건축법이개정되기전에 종전의 건축법제44조재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경기의 과열방지를 위하여 건축히가제한과 관련하여 특별시장이 건축해가를 반려한후 동반려된 건축해가가 건축법이 개정된후 다시 접수될 경우 건축해가는 누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자: 서울특별시장)

#### ▶회신

92.6.1.부터시행되고 있는 개정건축법제8조에서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부칙제3조에서 이범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전에 건축허가를신청한 것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착공신고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 등은 이법 시행이전과 같은 절차를 이행 할수 있을 것이나, 건축허가제한 때문에 허가가 반려된 것에 대하여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대하여 '92.5.30. 공포된 건축법시행령 부칙제4조를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 ▶질의

개정건축법 (법률 제4381호,

'91.5.31)제18조제4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외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되어 후퇴한 부분도 지작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특별시장)

#### ▶회산

질의의 경우 소요도로폭에 미달되어 후퇴한 부분의 지적변동은 사용검사 신청시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적변동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 ▶짍의

주 용도가 의료시설인 병원에 장례를 행하는 장례실을 설치시 이 주용도인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집의자 : 보건사회부장관)

#### ▶회신

건축법상 부속용도라함은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함계의 50퍼세트미만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인 바, 절의의 장례식장이 당해 병원에서 사망한자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범위내어고 주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의 50퍼센트미만 이라면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대자에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질의자:인천직할시장)

#### ▶회신내용

전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에는 대지의 소유나 권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고등기라 함은 일반의 제3자에게 현재 등기의 원인무효나 취소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 내용을 기입하는 동기로서 이는 단순히 경고의 효과만 지나고 있을뿐 등기로서의 대항력은 없는 것이므로 예고등기만 되어 있다면 예고등기자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허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 ▶짐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변경 (공업지역→주거지역)지정고시되기 이전에 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수질, 소음, 배출시설허가 및 공장등록된 사업장이 용도지역변경이후 기존건축물내에서 추가로 오염불질 방지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을 설치시 가능한지여부 (질의자 : 환경처 장관)

#### ▶회신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법상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하게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은 가능한 것입니다.

#### ▶절의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사업이 시행되지않은 도시계획도로를 서울특별시에 무상기증하는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 등을 위한 높이제한 건폐율ㆍ용적율 등을 완화해줄 수 있는지 여부. (절의자: 서울특별사장)

#### ▶회신

건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특정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범령의 규정취지에 부합되고 또한 건축법령의 규정을 조문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불합리하게 많은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받게되는 불이익을 보진해 주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전용주거지역 등과 같이 규제사항이 많은 대지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건패율・용적을 등의 적용을 완화해줄 수는 없는 경우와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종전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의 1면은 폭은 폭20미터인 도로에 접해있고 다른1면은 폭50미터인 하천에 접한 경우 폭20미터의 도로부분에 폭50미터인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직합시장)

#### ▶회신

종전건축법시행령 체88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대상이 아닙니다.

#### ▶질의

건축법전문개정 ('91.5.31.)에 따라 동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전폐율 및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는바, 이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사 전폐율 및 용적률 완화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확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특별시장)

#### ▶회신

수도권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확법 제3조제2항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 (서울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강력익세토록 되어 있음)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등을 수립할 수 없으나, 국민경제발전상 부득이한 경우에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서울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지하층중 1면이 지상에 완전하게 노출된 경우 동부분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창문 등의 설치 가능 여부 (질의자 : 대한건축사 협화장)

#### ▶회신

가. 건축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라함은 당해총의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2(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2분의1)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지하층의 벽체는 건물의 층수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두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나. 경사지동에 지하층을 설치시 성토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 지표면 산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에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의 1면이 완전하게 지상에 돌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하층의 외벽은 동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근콘크라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충수에 따라 벽체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노출된 부분에는 주차용 출입구 또는 당해 지하층에 이용하는 사용자의 출입문과 통풍을 위한 개구부 (환기창 또는 진역창 등 제외)의 설치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어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설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이 되어야만 유사시 대피목적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한 지하층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된 업무시설인 산문사의 인쇄시설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능여부 (질의자: 서울특별시장)

#### ▶회신

일반주거자역내에 적법하게 건축된 업무시설인 신문사라면 동신문사의 인쇄 시설이 주된 용도의 기능상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면적이 주된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50퍼센트미만이라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해 주용도인 업무시설인 신문사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적합시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공업매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도시재개발 (도심지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내 기존건축물일부를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자 : 서울특별시장)

#### ▶회선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도시에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고 건축계획을 번경할 경우에는 도시재개발 사업목적이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부속용도인 판매시설의 일부를 건축법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개발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여부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사업시행권자인 귀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질의

건축허가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잘못 처리되어 건폐율·용적률이 위반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대구직할시장)

#### ▶회신

질의의 경우 현재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집의

시장등은 건축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시에도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부 (질의자: 경상남도지사)

#### ▶회선

절의의 경우 건축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대상인 문화재주변 사·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인 건축물을 신고로서 이를 갈음하더라도 동법 제8조제2항의 사전승인규정까지 배제한 내용이 없는 점과 문화재지역의 환경 및 경관유지 등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규정임을 감안할 때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가. 8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하가받아 7세대로 면적증감없이 변경코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한지 여부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식품공장에 베합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 : 충청남도지사)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허가 또는 신고없이 실계변경이 가능하나 사용검사식 제출하는 설계도서에는 이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제한조치에 의하여 '92.12.31까지 세대당 전용면적 135제곱미터이상의 다세대주택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의 배합사료공장도 한국산업분류중 분류 15음식료품제조업 (1533)에 해당되어 식품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산림재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헬기격납고의 건축법상 용도 및 건축허가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 산림청장)

#### ▶회신

절의의 경우 당부에서 시행중인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중 착공연기대상인 공공 업무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가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채의 청사를 말하는 바, 절외의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제한대상이 아닌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유회,시설인 공작물 (바이킹, 엔터프라이즈, 댄성후라이, , 뮤직 익스프레스)을 일반 주거지역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충청남도지사)

#### ▶회신

질의의 경우 유회시설인 대형공작물 (바이킹, 엔터프라이즈, 댄싱후라이, 뮤직익스레스 등)에 매표소, 관리소 등,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상 "유기장"에 해당하는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공작물이라 하더라도 등 유회시설의 성격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질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준공업지역에 부적합하게된 공장에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의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경기도지사)

#### ▶회신

절의의 경우 적법하게 건축하가 및 배출시설하가를 받았으나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무석합하게 된 공장이라면 건축법령상 건축행위 (공장시설의 교체로 인하여 일반공장이 공해공장으로 되거나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출시설의 교체 (증설포함)는 건축법령상에는 규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질의

수산물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 및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이 건축법령상의 식품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자 : 동해시장)

#### ▶회신

질의의 수산물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유와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은 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D.제조업의 중분류15.음식료품제조업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음식료품 및 식품재료, 식용 및 비식용 동식물성 유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법령상 이는 식품공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질의의 그림과 같이 벽체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질의자: 충청남도지사)

#### ▶회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사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경우 벽체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벽체 또는 기둥중심선중 외곽에 위치한 박체 또는 기둥중심선을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필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충남 예산

#### 윤세일)

#### ▶회신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는 설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의 등록을 한자만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

질의의 그림과 같이 일반숙박시설의 객실내 전실, 욕실, 복도에서 거실의 범위는?(질의자 : 경북 점촌 권일수)

#### ▶회사

건축법 제2조제5조호의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장기간 연속적으로 머물지 아니하는 린넨창고, 화장실 등은 거실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단위 객실에서 거실의 일부에 이러한 용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 부분은 거실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가. 옵·면의 지역에서 동일대지안에서 주택 84제곱미터, 창고 100제곱미터, 축사 156제곱미터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로서 가능한지 여부

나, 읍·면의 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을 (주택 가동 50제곱미터, 나동 40제곱미터)2동이 있는 경우 이중 1개동인"가"동을 철거하고 주택을 84제곱미터로 건축시 건축신고로서 가능한지 여부(질의자: 경북 점존 권일수)

#### ▶회신

가.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이 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한 주택, 축사, 창고 등은 건축법상 주용도와 부속용도와 부속용도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 축사, 창고 등의 용도별로 각동의 연면적 합계를 말하는 바 귀 절의의 경우 창고 및 축사가 주택의 부속용도인지 등 각용도간의 관계에 따라 건축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당해 허기권자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나, 질의 "나"의 경우"신고대상 85㎡이하"라 함은 당해대지안에 있는 모든주택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입니다.

#### ▶질의

건축법시행규칙 개정 ('91.6.1)전에 건축하가를 얻어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허용오차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전북 남원 김재만)

#### ▶회신

건축법령 개정전에 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도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역부 (질의자: 경남 진주 조진호)

#### ▶회신

건축허가대상 뿐만 아니라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신고대상인 건축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의 규정에 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물의 노대 (발코니)부분이 외벽중심선에서 1.0마터이하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결의자 : 경남 울산 전현수)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노대 (발코니)부분의 수평투영면적전부에 대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는 지하층 설치대상건축물이었으나 시공도중 건축립시행령이 개정 ('92.5.30.)되어 지하충설치대상에서 제외된 바, 이 경우 지하충을 설치하자 않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경기 성남 신승재)

#### ▶회신

기 질의의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집의

건축물의 높이에 산업되지 않는 옥탑의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여부? (질의자 : 전남 목포 이호성)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산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철도,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학교의 운동장도 포함되는지 여구? (질의자 : 강원 춘천 최인성)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는 학교의 운동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는 대지안의 조경규정이 제외되는 바, 이범 개정이전 ('92.5.30)에 건축하가받아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조경규정이 제외되는지 여부 (절의자 : 충북 괴산 신영숙)

#### ▶회신

읍 · 면의 건축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 면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지안의 조정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문의의 경우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짐의

500제곱미터이하의 실내골프연습장이 건축법령상 어느 용도로 분류되는지와 다른 용도의 기존 건축물에 위와 같은 시설을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 강남 최청송)

#### ▶회신

골프연습장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반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나목 (4)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기존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공장안에 콘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여 간이 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요망 (질의자 : 대전 대덕 이준학)

#### ▶회신내용

'92. 5. 30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였으며, 동 가설건축물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신고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 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외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전면에 폭 20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또한 축면에 폭 50미터의 하천에 접하고 있을때 폭 20미터의 도로쪽에 폭 50미터의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 건축범 제88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 북구 한유섭)

#### ▶회신

중천건축법 제88조의 건축물높이제한 완화규정은 대지가 2이상의 도로애 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가 도로와 하천에 접한 경우에는 완화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짚의

승강기식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바닥면적산정방법은? (질의자 : 서울 서초 권혁조)

#### ▶회신

기계식주차전용건축물의 총수를 1층으로 보아 그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짎의

긴축법 제25조의 적용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 주문하고 있는 외국대사관소유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 강남 이근창)

#### ▶회신

질의의 외국대사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건축법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이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인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가.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이나 소요폭에 미단되어 건축선 후퇴부분이 건축물의 사용공사 신청시 지적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시 또는 읍지역에서 2층 이하 연면직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시 대자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아도 착공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 구로 김영선)

#### ▶회신

가. 질의의 경우 소요도로폭에 미달되어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법상의 지적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 시 또는 읍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건축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도로와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시 또는 읍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건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구역에서도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자:서울 강남 오양근)

#### ▶회신

질의의 같은 경우 건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조의 적용제외 구역에서도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 85제곱미터까지는 신축 및 중축과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자 : 서울 동대문 정병구)

#### ▶회신

건축범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 주택이라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연며적을 포함하되,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 경우 새로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인 면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시장.군수가 도로의 지정시 지목과 관계없이 지정가능 여부

다. 건축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층이하로서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착공신고만 하고 건축가능 여부 (질의자 : 서울 구로 길영선)

#### ▶회신

가.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절외의 경우 건축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와 관계없이 건축할수 있으며 건축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층이하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 나.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도로는 당해도로의 자목과는 관계없이 가능하나 당해 도로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는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질의

가. 도로점용하가는 건축하가신청전에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설계서는 반도시 측량업등록을한 토목측량사무소에서 작성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질의자 : 서울 서초 김양반)

#### ▶회신

가.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건축하가 신청전에 도로점용하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 나.질의요지 "나 "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의 분임서류인 설계도서는 도로점용으로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점용허가검토시 필요로 하는 서류이므로 점용지적, 평면, 종횡단, 배수, 면적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설계회사 (토목측량사무소등 포함)가 작성하는 설계서에 한정하지 아니합니다.

#### ▶집의

도시설계의 내용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함께 공동개발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건축물의 철거, 보상 등과 관련하여 공동개발이 불가한 경우 단독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인천 남동 김성학)

#### ▶회실

질의와 같이 도시설계의 내용상 인접대자와 공동개발도록된 경우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 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인접대지주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단독개발도 가능한 것이나 그리 이시기 바랍니다.

#### ▶집의

자연녹지지역안의 한 필지의 일부를 토지형질번경허가받아 건축하려할 때 하나의 필지중 토지형질변경이 되지 아니한 부분 (기 자연적으로 조경되어 있음)을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부산 서구 강석진)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해하나의 필지가 분리 (분할)되는 때에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기준하여 조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질의

판매시설 (상가)인 건축물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입주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판매시설로 보는지? (질의자 : 경기 안산 정명근)

#### ▶회신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건축물에 부동산중개업소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등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없이 동 부동산중개업소를 설치할 수 있읍니다.

(다음호에 계속)

# 1992년 9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9월분 8백76만7천8백39m² 보 다 11.37%(99만7천3백16m²) 감소

한 7백77만5백23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9월누계 1억4백79만2백98m² 보

다 23.51%(2천4백63만9천8백73m²) 감소 한 8천15만4백25m²의 실적을 보 였다.

다. 전 월 비 전월 8월분 7백49반2천6백74m² 보다 3.71%(27만7천8백49m²) 간소 한 7 백77만5백23m²의 실적을 보였다.

#### 全國 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         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1,188,443         2,774,297         1,585,854         133.44%           증가지역         대 구         236,861         289,429         52,568         22,19%           광 주         202,189         395,981         193,792         95.85%           부 산         725,061         443,051         (282,010)         -38.89%           감소지역         인 천         333,267         230,974         (102,293)         -30.69%           대 전         907,211         293,431         (613,780)         -67.66%           경 기         1,923,491         1,356,530         (566,961)         -29.48%           강 원         183,192         179,595         (3,597)         -1.96%           충 보         338,853         249,489         (89,364)         -26.37%           충 보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증가지역 대 구 236,861 289,429 52,568 22.19% 광 주 202,189 395,981 193,792 95.85% 부 산 725,061 443,051 (282,010) -38.89% 인 천 333,267 230,974 (102,293) -30.69% 대 전 907,211 293,431 (613,780) -67.66% 경 기 1,923,491 1,356,530 (566,961) -29.48% 강 원 183,192 179,595 (3,597) -1.96% 충 북 338,853 249,489 (89,364) -26.37% 충 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전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구	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광 주 202,189 395,981 193,792 95.85%  부 산 725,061 443,051 (282,010) -38.89%  감소지역 인 천 333,267 230,974 (102,293) -30.69%  대 전 907,211 293,431 (613,780) -67.66%  경 기 1,923,491 1,356,530 (566,961) -29.48%  강 원 183,192 179,595 (3,597) -1.96%  충 북 338,853 249,489 (89,364) -26.37%  충 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서 울	1,188,443	2,774,297	1,585,854	133.44%
감소지역       부 산 725,061       443,051       (282,010)       -38.89%         임 천 333,267       230,974       (102,293)       -30.69%         대 전 907,211       293,431       (613,780)       -67.66%         경 기 1,923,491       1,356,530       (566,961)       -29.48%         강 원 183,192       179,595       (3,597)       -1.96%         충 북 338,853       249,489       (89,364)       -26.37%         충 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증가지역	대 구	236,861	289,429	52,568	22.19%
감소지역 인 천 333,267 230,974 (102,293) -30.69% 대 전 907,211 293,431 (613,780) -67.66% 경 기 1,923,491 1,356,530 (566,961) -29.48% 강 원 183,192 179,595 (3,597) -1.96% 충 북 338,853 249,489 (89,364) -26.37% 충 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광 주	202,189	395,981	193,792	95.85%
대 전 907,211 293,431 (613,780) -67.66% 경 기 1,923,491 1,356,530 (566,961) -29.48% 강 원 183,192 179,595 (3,597) -1.96% 충 북 338,853 249,489 (89,364) -26.37% 중 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부 산	725,061	443,051	(282,010)	-38.89%
경 기 1,923,491 1,356,530 (566,961) -29.48%  강 원 183,192 179,595 (3,597) -1.96% 충 복 338,853 249,489 (89,364) -26.37% 충 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감소지역	인 천	333,267	230,974	(102,293)	-30.69%
강 원 183,192 179,595 (3,597) -1.36% 충 북 338,853 249,489 (89,364) -26.37% 충 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대 전	907,211	293,431	(613,780)	-67.66%
충 북 338,853 249,489 (89,364) -26.37% 중 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경 기	1,923,491	1,356,530	(566,961)	29.48%
충남 416,754 273,751 (143,003) -34,31% 전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주 85,263 40,476 (44,787) -52,53%		강 원	183,192	179,595	(3,597)	- 1.96%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충북	338,853	249,489	(89,364)	-26.37%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충 남	416,754	2 <b>73,7</b> 51	(143,003)	-34.31%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전 북	354,512	199,988	(154,524)	-43.59%
경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전 남	297,661	158,381	(139,280)	-46.79%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경 북	565,954	444,581	(121,373)	-21.45%
		경 남	1,009,127	440,569	(568,558)	-56.34%
할 계 8,767,839 7,770,523 (997,316) -11.37%		제 주	85,263	40,476	(44,787)	-52.53%
	함	74[	8,767,839	7,770,523	(997,316)	- 11.37%

## 全國 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타의 / m²)

(연면석기군)				(단위 / m <sup>-</sup> /
용 도 별	8월분	9월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768,353	777,640	9,287	1.21%
다세대주택	290,885	246,271	(44,614)	- 15.34%
연립 주택	58,803	82,603	23,800	40.47%
아 파 트	2,834,375	3,177,941	343,566	12.12%
근린생활시설	1,354,319	1,277,312	(77,007)	-5.69%
종 교 시 설 :	54,777	58,878	4,101	7.49%
의 료 시 설	11,241	25,647	14,406	128.16%
교육연구시설	398,998	239,001	(159,997)	-40.10%
업 무 시 설	231,793	283,065	51,272	22.12%
'숙박시설	33,282	34,723	(1,441)	4.33%
공 장	765,689	854,626	88,937	11.62%
기 타	690, 159	712,816	22,657	3.28%
계	7,492,674	7,770,523	277,849	3.71%

####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9月分)

	구분	분 산축ㆍ개축ㆍ재축			중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시도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견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2,661	2,804	2,697,387	95	102	76,910	0	0	٥	2,756	2,906	2,774,297
부	<u>산</u>	890	1,077	401,923	105	123	21,233	. 27	32	19,895	1,022	1,232	443,051
대	구	487	523	245,193	334	344	23,886	22	23	20,350	843	890	289,429
인	천	365	379	207,631	27	27	19,308	14	14	4,035	406	420	230,974
광	주	243	288	352,760	60	78	30,672	i 11	11	12,549	314	377	395,981
대	전	279	329	251,517	62	62	25,880	65	65	16,034	406	456	293,431
경	기	1,259	1,547	1,222,950	179	231	90,449	71	71	43,131	1,509	1,849	1,356,530
강	원	365	404	138,584	133	148	38,596	13	13	2,415	511	565	179,595
충	북	471	587	212,703	106	135	29,534	41	43	7,252	618	765	249,489
충	남	253	290	224,691	106	106	38,255	19	19	10,805	378 !	415	273,751
전	북	204	275	163,765	75	88	26,635	8	8	9,588	287	371	199,988
전	남	276	363	122,724	86	99	24,719	21	24	10,938	383	486	158,381
경	북	448	583	306,127	133	178	134,580	9	9	3,874	590 ;	770	444,581
경	남	650	176	346,262	190	229	80,430	15	15	13,877	855	1,020	440,569
제	주	116	127	33,890	55	55	6,586	0	0	0	171	182	40,476
합	계	8,967	10,352	6,928,107	1,746	2,005	667,673	336	347	174,743	11,049	12,704	7,770,523

##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槪況(1~9月 合計分)

	구분	신	축·개축·자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함		계
시도별		건 수	통 수	연면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건 수	등 수	연 면 적	견 수	동 수	연면적
서	웈	19,907	20,828	13,062,925	919	991	809,896	1	1	0	20,827	21,820	13,872,821
부	산	10,211	13,095	6,799,713	1,235	1,553	392,250	398	444	253, 133	11,844	15,092	7,445,096
CĦ	구	4,366	4,738	2,572,147	2,795	2,974	286,144	<b>3</b> 23	341	197,222	7,484	8,053	3,055,513
인	천	3,218	4,336	3,638, i56	287	292	178,243	190	793	78,842	3,695	4,821	3,895,241
광	주	2,259	2,629	2,026,221	582	674	237,961	101	101	42,445	2,942	3,404	2,306,630
CH.	전	2,540	2,996	3,185,675	443	468	235,209	629	657	236,955	3,612	4,121	3,657,839
경	기	13,124	17,603	17,629,396	1,592	1,872	745,641	796	797	516,201	15,512	20,272	18,891,238
강	원	4,376	5,123	2,716,794	952	1,103	334,612	147	150	33,988	5,475	6,376	3,085,394
충	북	4,679	5,690	2,293,424	975	1,255	351,755	574	601	96,451	6,228	7,546	2,741,630
충	남	3,404	3,706	2,797,016	1,030	1,053	353,350	203	222	118,882	4,637	4,981	3,269,248
전	냶	2,974	3,493	2,303,548	680	775	233,757	179	179	111,287	3,833	4,447	2,648,592
전	남	3,840	4,796	2,556,809	994	1,287	347,877	226	248	64,319	5,060	6,331	2,969,005
경	북	5,398	6,563	3,943,110	1,356	1,697	786,762	226	221	229,554	6,980	8,481	4,959,426
경	남	7,995	9,802	5,600,155	1,617	2,212	787,210	322	327	180,607	9,934	12,341	6,567,972
제	주	1,538	1,797	718,782	648	650	65,998	0	0	0	2,186	2,447	784,780
함	계	89,829	107,195	71,843,874	16,105	18,856	6,146,665	4,315	4,482	2,159,886	110,249	130,533	80,150,425

#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9月分)

	구분	면 신축·개축·재축			중	중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계
용도별		건 수	통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876	3,982	739,211	522	535	35,637	34	34	2,792	4,432	4,551	777,640
다세다	H주 택	519	545	242,840	26	26	2,574	5	. 5	857	550	576	246,271
연 립	주 택	51	70	82,166	1	1	100	2	2	337	54	73	82,603
0} II	<u> </u>	112	545	3,169,815	10	12	6,489	4	4	1,637	126	561	3,177,941
근린생	활시설	2,859	2,991	1,109,375	486	511	88,280	160	164	79,657	3,505	3,666	1,277,312
종 교	시 설	74	88	42,085	47	55	16,623	ı	1	170	122	144	58,878
의 료	시설	4	5	12,482	10	. 15	12,211	2	2	954	16	22	25,647
교육연	구시설	54	78	163,461	72	77	57,014	11	13	18,526	137	168	239,001
업 무	시 설	90	105	229,702	48	50	29,236	21	21	24,127	159	176	283,065
숙 박	시설	16	16	32,736	5	5	1,112	5	5	875	26	26	34,723
공	장	392	726	582,385	187	309	247,030	34	37	25,211	613	1,072	854,626
기	타	920	1,201	521,849	332	409	171,367	57	59	19,600	1,309	1,669	712,816
합	계	8,967	10,352	6,928,107	1,746	2,005	567,673	336	347	174,743	11,049	12,704	7,770,523

#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9月 合計分)

	구분	신	축ㆍ개축ㆍ지	 바축	<del></del>		축	대수	·선 및 용도 I	 변경	합 '		계
용도발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40,369	42,175	6,990,643	5,287	5,583	395,865	417	421	36,048	46,073	48,179	7,422,556
다세대	대주 택	3,910	5,348	1,929,774	210	214	23,779	39	43	6,893	4,159	5,605	1,960,446
연 립	주 택	440	602	796,925	26	26	4,888	8	8	956	474	636	802,769
0} ī	파 트	1,327	7,616	34,525,913	98	153	110,794	32	43	103,541	1,457	7,812	34,740,248
근린생	홡시설	28,672	30,058	10,456,848	4,358	4,604	836,872	2,189	2,227	792,248	35,219	36,889	12,085,968
종 교	시 설	634	774	434,513	405	468	164,145	52	53	17,925	1,091	1,295	616,583
의 료	시 설	52	55	168,160	77	95	139,670	19	19	17,196	148	169	325,026
교육연	구시설	535	713	1,634,866	<b>54</b> 5	658	990,022	208	226	190,921	1,288	1,597	2,815,809
업 무	시 설	909	1,031	3,347,913	401	437	299,653	190	196	193,589	1,500	1,664	3,841,155
숙박	시 설	169	178	340,957	90	97	63,108	74	76	116,752	333	351	520,817
공	장	3,779	6,500	5,514,038	1,877	3,025	1,846,453	440	494	349,330	6,096	10,019	7,709,821
기	E}	9,033	12,145	5,703,324	2,731	3,496	1,271,416	647	676	334,487	12,411	16,317	7,309,227
합	계	89,829	107,195	71,843,874	16,105	18,856	6,146,665	4,315	4,482	2,159,886	110,249	130,533	80,150,425

# 直 協會消息

# 市. 道建築士會 定期總會 開催

본 협회 15개 市・道建築士會의 제 27회 定期總會가 지난 10월 21일 濟州道建築士會를 필두로 開催되어 '93사업계획승인 및 예산(안)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 주요 안건을 의결, 처리하였다. 각 建築士會別 總會 부의사항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회장기총회



□ 서울건축사회 정기총회

# 서울特別市建築士會

\*개최일시: 1992.10.30(급)

\*개최장소 : 본협회 강당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868명

중1,158명

\*외결내용

• 93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워안대로 승인

• 93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김영수부회장:김봉혼

간 사 : 신·구회장에 위임 선출후 서면통보키로 결의

감 사 : 임상원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방법은 소속분회 회원중에서 70%를 선출하고 30%는 집행부에서 선출키로

결의

# ▶ 釜山直轄市建築十會

\*개최일시 : 1992.10.28. (수)

\*개최장소:해운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참석인원:재적회원 434명중

360명

\*의결내용

●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전학주

간 사:박정덕,이봉춘,

이기원

감 사:이종수

•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신임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

# '92 市·道建築士會 定期總會

# 激勵辭

각 市·道 建築主會의 92年度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激勵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平素 協會發展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聲援해 주신데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人이 大韓建築士會의 會長으로 就任한 지 어느덧 2年 가까운 歲月이 흘렀습니다.

2年前 遠大한 抱負와 希望을 가지고 重責을 맡으면서 急變하는 環境變化의 時代的 흐름에 副應하고, 協會發展과 會員의 權 益伸張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 成果가 會員여러분들의 期待値에 어느정도 附合됐는지 자못 걱정이 됩니다.

특히, 最近 2年間 國內景氣 沈滯와 建築許可 規制로 인하여 會員여러분들께서는 業務領域의 委縮과 사무실 운영의 극심 한 어려움을 堪耐하면서도 大乘的 자세와 忍耐의 結集으로 協會發展을 위해 聲接을 아끼지 않으신 會員 여러분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本人의 就任이래 推進해 온 主要한 事項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1962年度 建築法 制定이래 지난해에 처음으로 法과 同 施行令의 全文을 改定 한 바 있으며,

둘째, 우리多數 會員들의 오랜 宿願이었던 單獨事務所 業務範圍의 大幅 上向調整案은 그간 많은 協議過程을 거쳐 11월중 國務會議에서 議決되면 3個月 後인 내년초부터 施行・發效될 豫定입니다.

셋째, 會員들의 福祉問題와 關聯된 年金制度改善方案은 약 7個月間 서울대학교의 專門研究팀에 의해 보다 科學的이고 合理的이며 發展的인 研究成果가 完成段階에 이르러 11월 本會 總會에서 報告드릴 計劃입니다.

其他, 調査檢事 業務의 關聯된 運營指針書 작성, 建築士 所得標準率 인하 推進 그리고 報酬料率의 現實化 등 여러 課業 들을 年末까지 마무리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 ▶大邱直轄市建築士會

◆개최일시 : 1992.10.28. (수)

\*개최장소 : 대구 파크호텔

\*참석인원:재적회원 260명중

228명

\* 의결내용

•93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간 사 : 김선돌, 김홍대,

이길웅

감 사:장상희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대의원 : 김재우외 11인 선출

# ▶光州直轄市建築士會

\*개최일시: 1992.10.30.(급)

\*개최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참석인원:재적회원 127명중

109명

\* 의결내용

◆9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

출예산(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중인

● 염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김덕수

부회장 : 윤익상

간 사 : 이창율, 이하규

감 사: 안태경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대의원: 김덕수외 14인선출

# ▶仁川直轄市建築士會

\*개최일시: 1992.10.29. (목)

\*개최장소 : 여산빌딩

\*참석인원:재적회원 119명중

83명

\*의결내용

• 92년도 경정예산(안)승인의

74

-원안대로 승인

•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공사감리업무운영시행세칙 개

정 (안)승인의 건

-유보키로 결의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간 사:이봉은,김현국

감 사:김영민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회장에게 위임 (추후 회원에게 통보)

# ▶大田直轄市建築士會

\*개최일시 : 1992.10.27. (화)

\*개최장소 : 프린스관광호텔

\*참석인원 : 재적회원 120명중

109명

\*의결내용

•92년도 추가경정수지예산

(안)승인의 건

-원인대로 승인 ●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숭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임근수

부회장 : 정인협

간 사:이영순,김영두,

이길주

•대외원 개선 및 선출의 건

-대의원: 김종민의 12인선출

會員 여러분!

本 協會는 올해로 創立 스물 일곱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建築文化를 先導하는 團體로 成長해왔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建築環境은 建築의 本質이 輕視된 他率에 순응되어, 建築行政 곳곳에 漫然된 構造的不合理와 消耗的 慣行이 殘在하여 建築分野 發展을 沮害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打破하지 못하는 심히 아타까운 實情에 있습니다.

待望의 21世紀를 目前에 두고 開放과 國祭化 時代에 발맞추어 우리 建築分野도 종래의 前近代的인 慣行과 固定觀念을 果敢히 떨쳐버리고, 未來 우리사회의 住居文化와 公益을 先導할 수 있는 特化된 建築技術과 強度높은 高品質이 擔保된 한 차원 높은 水準으로 發展, 昇華시켜 나갈 새로운 位相을 定立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傳統과 現代, 自然과 人間이 調和된 韓國的인 建築文化를 創出하여 國際的으로 높이 評價 받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努力할 것을 다짐합시다.

회원 여러분의 結緣한 改革意志와 積極的인 參與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많은 聲援에 다시한번 感謝드리며, 오늘의 이 總會를 통하여 市·道建築士會의 發展方案을 摸索하고 會員 모두가 和合과 結束을 다지는 가운데 더 큰 發展의 契機로 삼는 값진 時間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市·道 建築士會의 無窮한 發展과 더불어 會員여러분의 健康과 家庭에 幸運이 充滿하심을 祈願하면서 이만 激勵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1992. 10.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 雲 東

# 協會消息

# ▶ 京畿道建築士會

\*개최일시: 1992.10.29. (목)

\*개최장소 : 수원 부라운

관광호텔

\*참석인원 ; 재적회원 330명중

225명

\*의결내용

● 93년도 일반회계 및 수지예산

(안)증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3년도 특별화계 및 수자예산 (안) 중인의 건

-원안대로 중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송인창 부회장 : 최재남

간 사:이진우,박상옥,

윤덕찬, 연진명

감 사:한진택

# ▶ 汀原渞建築十会

\*개최일시: 1992.10.27.(회)

\*개최장소 : 뉴설악호텔

\*참석인원:재적회원 57명중

45명

\*의결내용

•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승인의 전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및 대의원 개선의 건

-회 장:김길창 간 사: 면경수

감 사:방송문

대의원:조정호,홍영배,

박세진

# ▶忠浩北道建築十會

\*개최일사: 1992.10.22. (목)

\*개최장소 : 청주관광호텔

\*참석인원: 재적회원 80명중

\*외결내용

• 92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

안)숭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중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최호진

부회장 : 홍록표

간 사:박성인

감 사:오수복

•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대의원:이용철,김진용,

최용묵, 강경구, 송준영

# ▶忠淸南道建築士會

★개최일시: 1992.10.22. (목)

\*개최장소 : 온양 웨스턴호텔

회의실

◆참석인원: 재적회원 61명중

48명

⋆외결내용

• 93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전

-회 장:이갑준 부회장 : 이천규

대의원 : 심재석, 이외영,

신기현, 권백순

# ▶全羅北道建築士會

\*개최일시: 1992.10.28.(수)

\*개최장소 : 구례 프라자리조텔

\*참석인원:재적회원 80명중

75명

\* 의결내용

• 93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최락운 부회장 : 이정선

간 사:최영배

감 사:임종선

대의원 : 이상돈, 유철갑,

엄주호, 문상식

# ▶全羅南道建築士會

\*개최일시: 1992,10,30.(금)

\*개최장소 : 광주 추선회관

\*참석인원:재적회원 52명중

43명

\* 의결내용

• 92년도 경정수지예산(안)승

인의 건

-원안대로 중인

● 93년도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화 장 : 김인모

간 사:노상익, 김태주

감 사:서재권, 장기태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대의원 : 김광호, 양동범

# ▶慶尙北道建築十會

\*개최일시:1992.10.29.(목)

86명

\*개최장소 : 경주 힐튼호텔

≠참석인원 ; 재적회원 96명중

+의결내용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김태웅

부회장 : 이상만

간 사:전재기,장학선,

조성현

감 사: 김용관, 임병욱

•대의원 개선 및 선출의 건

-대의원 : 손재수의 10인선출

# ▶慶尙南道建築士會

\*개최일시:1992.10.30.(금)

\*개최장소:경남건축사회관

\*참석인원:재적회원 205명중

152명

\* 의결내용

•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배동권

부회장 : 이동일

간 사:백종현,유재신,

이상열

감 사:노진달

대의원 : 개선 및 선출의 전

-대의원: 최불형외 12인선출

# ▶潛州道建築十會

\*개최일시: 1992.10.21.(수)

\*개최장소 : 제주 아일랜드호텔

\*참석인원: 재적회원 43명중 42명

\* 의결내용

 92년도 제2회 감액경정 수지 예산(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간사업무 분담 및 위위회 설치 (안)승인의 건

→원안대로 중인

●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및 선출의 건

회 장: 김수현

간 사: 강행생,고성국, 김유 봉

감 사:김팽남, 이세환

◆대의워 및 선출의 건

-대의원 : 김수현, 김창우.

강요준, 고정식, 고봉규

# '93 新任 市·道 建築士會 會長 現況



《서울特別市建築士會》 金榮洙 1941년 9월 27일생 1965년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田學問 1938년 1월 23일생 1959년 부산공고 건축과 졸업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국일・왕건・ 고려・대호대표

〈釜山直轄市建築士會〉



**金德洙** 1941년 4월 3일생 1965년 조산대 건축과 졸업 현 삼남ㆍ김덕수건축사사무소 대표

〈光州直轄市建築士會〉



大田直轄市建築士會〉 林根珠 1944년 1월 21일생 1962년 대전공고 건축과 졸업 현 조형중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宋寅昌 1941년 5월 10일생 1965년 한양대 건축과 졸업 현 건축사사무소 신라 대표

〈京畿道建築士會〉



〈江原道建築士會〉 金吉昌 1940년 9월 19일생 1965년 홍익대 건축과 졸업 현 구미건축사시무소 대표



《忠清北道建築士會》 崔浩珍 1945년 9월 24일생 1965년 대전공고 건축과 졸업 현 대호건축사사무소 대표



(忠清南道建築士會) 李甲俊 1938년 8월 7일생 1957년 대전공고 건축과 졸업 현 갑전 · 우인 · 서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全羅北道建築士會》 崔洛雲 1940년 2월 27일생 1980년 동신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인ㆍ삼중 대표



**金仁模** 1916년 10월 19일생 1934년 전남 송정공업학교 졸업 현 김인모건축사사무소 대표

〈全羅南道建築士會〉



《慶尚北道建築士會》 金泰雄 1940년 10월 7일생 1967년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흥한건축사사무소 대표

〈慶尙南道建築士會〉



**裴東權** 1947년 8월 25일생 1968년 부산공전 건축과 졸업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미건축 대표



**金守賢** 1941년 9월 3일생 1965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금강건축사사무소 대표

〈濟州道建築士會〉



# 제 5 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

본 협회 오운동회장을 비롯한 📗 16명의 대표단은 지난달 23일부 터 28일까지 파키스탄 라흐르에 서 개최된 제5차 이시아 건축사 대회에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제13회 아카시아이 사회에서는 본협회 국제위원회

김지덕 위원장이 아카시아 부회 장 (1993~1994)으로 선출되었 으며, 93년도 제7회아카시아 토 론회는 홍콩에서, 94년도 제 6 차 아시아건축사대회는 필리판에 서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金知德

1942년 3월 30일生 1964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국제위원회 위원장 현(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동경건축사회 방문

서울건축사회의 이문우회장을 비롯한 역대회장단 등 6명은 지 난달 2일부터 2박3일동안 동경 건축사회를 방문했다.

동경건축사회와의 상호교류축 진 각서교환(1992, 6, 9,서울) 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는 간담회를 통하여 일본건축하 물은 계기가 되었다.

가절차와 공사감리제도, 동경건 축사회의 재원조달방법과 출판 및 도서발간 그리고 동경시의 건 축행정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으 며, 개정 건축법규의 해설 외 22 종의 건축관계서적을 기중받는 등 정보교환과 자료수집을 위한

# 장학금 전달

인천건축사회 (회장 허 집)는 지난 9월 21일 92년 3월 상반기 에 이온 하반기분 장화사업을 전 개하여 인천지역의 건축학도등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인천지역 건축학도들의 학구 열 고취와 지역출신 건축학도 인 재양성을 위하여 펼친 이번 장학 사업은 인천관내 각급학교장 추 천을 받은 모범 건축과 재학생 12명 (대학생4명, 전문대학생4 명. 고등학생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 친선 골프대회 개최

광주직할시건축사회 (회장 서 정민)는 지난달 6일 광주건축사 골프회(회장 임성규)주최로 광 주, 부산건축사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광주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광주, 부산, 대전 건축사 46명이 참석하여 건축사 골프 동호인 상호간의 친목과 우 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회원 개 개인의 심신단련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회원 간담회 개최

제주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0 월 15일 오후 2시부터 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제주시 건축조례 개 정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한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시에 사 무소를 개설한 다수회원과 서귀 포 분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건축 사회의 위임을 받아 의견서를 작 성한 김영식회원의 제안설명으 로 시작된 회의는 5시간 동안 진 📗

지한 분위기에서 계속 되었다.

이날 축소심의된 조례개정에 대한 건축사회의 의견은 평소 건 축사업무수행 중 건축조례 적용 과 운영에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점과 시 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을 포함 하여 의견서를 작성, 간사회에서 예비검토를 거친후 제주시의회 의장과 제주시장에게 제출하였

# 직원 단합대회 개최

경북건축사회(회장 김태웅)포 항분회에서는 지난달 23일 회원 과 직원물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아유회를 검한 단합대회를 실시 하였다.

문경세재 -- 수안보 -- 충주호 --

단양-부석사 코스로 총 180명 이 참석한 이번 단합대회는 회원 등간의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 론, 회원과 직원들간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 경남 학생건축대전 개최

경남건축사회(회장 최봉형)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까지 7일간 경남건축사회 대회 의실에서 제2회 경남학생건축대 전을 개최하였다.

경남지역 건축학도들의 학구 다.

열 고취와 후진양성을 위해 개최 된 이번 행사에는 도내 소재 대 학 건축공학도 85명이 32개작품 을 출품하였으며, 울산대 이성 우, 장무환군이 대상을 차지했

# 체육대회 개최

충북건축사회 (회장이용철)는 📗 지난달 16일(금)청주실내채육 관에서 충북 건축가족체육대회 를 개최하였다. 회원 및 보조원, 직원, 가족 등 총400여명이 참가

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각종경 기와 장기자랑을 통해 심신을 단 련함은 물론, 상호 친목을 도모 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한 마당이 되었다.

# 永宗島신공항 설계 당선작 발표

宗島신공항의 여객터미널 국제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 발 표했다. 최우수작으로는 정림,

한국공항공단은 11월 10일 永 | 원도시, 희림, 범건축 등 국내 4 兆社와 美맥클리어 CW펜트리 스社 등 2개사가 공동제작한 작 품이 선정되었다.

# 신소재의 건물 내·외장재

# 살루미늄 복합판넬 '아키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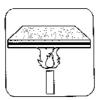


우아하고 개성있는 외관은 건물을 돋보이게 하고 도시를 이름답게 꾸며줍니다.



# 진동 소음에 대한 방읍, 방진

ARCHITECKS는 복합재료이므로 진동과 소음의 절연효과가 큽니다. (차음효과 : R = 24db, KSF 2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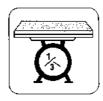
#### 내화성

ARCHITECKS는200℃ ~ 250℃ 에서 가열 경화접착 시키므로 판재의 변형은 물론 인화성이 전혀없다.



#### 내구성 및 평활성

화학적 장애에 대한 강한 내구성을 지닌 ARCHITECKS는 PVDF (불소)로 표면처리되어 품질을 보장하고 코아(CORE)부의 물성이 탄성을 유지하고 있어. 복합판넬의 장점인 FLAT함을 영구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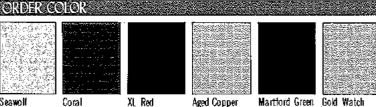
#### 경량성

동일두께의 알루미늄 활이나 범랑, 철, 동, 스테인리스 등 기타 금속판의 ½ - ½의 중량이므로 건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다.

세련된 색상의 ARCHITECKS는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색상과 설계의 조화에 따라서 어떤 목적의 건물 외관에도 잘어울리는 신소재입니다.





본칼라는 제품칼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서울·강남구 대치통 1007-3 총회회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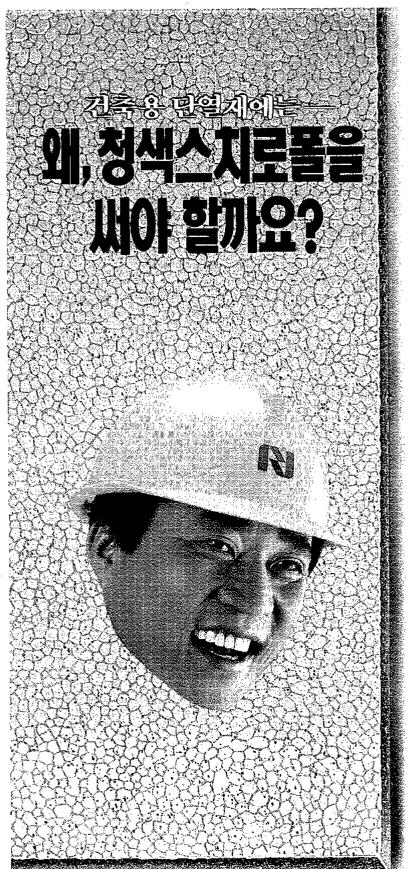
TEL. (02)562-1264,553-0697,568-3474~6 FAX. (02)566-0856

보사 및 공장: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303-2

TEL. (0336) 636-5119, 636-1903~4 FAX. (0336) 636-9316

전문시공업체 ◆서울: 홍성공영(주) TEL, (02)511-6431~5 FAX. (02)545-5169

●서울: 홍성공영(주) TEL, (02) 511-6431~5 FAX, (02) 545-5169 ●서울: 유성일미늄(주) TEL, (02) 552-5294~5 FAX, (02) 516-8199 ●七: 태양건업(주) TEL, (051) 326-3301~3 FAX, (051) 312-9940 ●전주: 용신산업(주) TEL, (0652) 224-9600 FAX, (0652) 224-6424







스치로폴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청색스치로폴은 오로지 단열재로만 쓰입니다. 한남화학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발포성 폴리스터렌, 첫색스치로폴/

내수성이 뛰어나 시공후에도 단열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에너지 절약형 단열재입니다. 건축용 단열재를 선택하실 때에는 꼭 청색을 확인하십시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쾌적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청색스치로폴은 물에 강합니다./
단열재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단열효과가 떨어지고,
심하면 벽을 헐고 재사공해야 합니다. (물 1% 흡수시 성능 7% 저하)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폴리스티렌 수지를 원료로 하는 반영구적 단열재입니다.

청색스치로폴은 압축강도가 뛰어납니다/ 내압강도가 높고 압축강도 또한 설계적제하중 보다 60배 정도가 높은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건물바닥이나 옥상 등 적재하중이 요구되는 단열시공에 좋은 단열재입니다.

청색스치로폴은 불이 스스로 꺼입니다/ 국내 최초로 UI\_난연 시험에 합격한 한남화학 청색스치로폴은 불이 붙었다가도 화원만 제거해주면 3초이내에 불이 스스로 꺼지는 자기소화성 단열재입니다. (UI\_94 HF-1 등급 인증)



최신 **소치로쯤 원료제조원** 

🔪 한남화학주식회사